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404-10

© 2022-62 | 2022. 12. |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 조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 담당

황윤재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김부영 | 전문연구원 | 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제 출 문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 황 윤 재 (선임연구위원)

연구 참여자 : 김 부 영 (전문연구원)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마련된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된 연구로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현황,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분석,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어린이·청소년 600명(4학년~고등학교)과 성인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는 4개 부문별로 4개 성과지표, 총 16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10개 성과지표가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계측된다.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과지표를 계측한 결과, 성과지표 중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81.4%)이 측정치가 가장 높았으며,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25.3%)은 지표 중에서 가장 측정치가 낮았다. 이는 2021년도 실태조사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체 성과지표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지표는 5개 지표였으며, 반대로 감소한 지표는 5개 지표였다. 이 중 증가폭이 가장 큰 지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4.3%p)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지표는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4.6%)이었다.

- 부문별로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부문의 2개 지표 중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25.3%에 불과하였다. 즉, 성인의 25.3%만이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고 있었다. 또한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은 46.8%로 측정되었다. 2021년 대비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이 1.8%p 감소하였으며,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도 소폭 감소하였다(0.6%p).
-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부문의 4개 지표 중에서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81.4%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은 35.8%로 높지 않으며,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55.3% 수준이었다.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은 2021년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도 전년 대비 0.6%p로 소폭 증가하였다.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은 0.2%p 감소한데 그쳐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부문에서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은 43.0%이었으며,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42.5%로 두 성과지표가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부문을 구성하는 2개 지표 중에서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은 전년 대비 2.3%p가 감소하였으나,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다.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에서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가 5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밖에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은 49.0%였으며, ‘식생활교육에 관심

을 갖고 있는 비율'은 43.2%였다.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에서 '국가나 공공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이 전년 대비 4.3%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 이밖에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 식생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2022년 성인의 만족도는 49.2%, 청소년은 46.8%였다. 성인의 국민 식생활 만족도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은 전년 대비 4.9%p가 감소하였다.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주요 연구내용 3
- 3. 연구 대상과 방법 4

제2장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현황

- 1. 조사 추진 동향 7
- 2. 조사 추진 체계와 방법 10

제3장 2022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 1. 조사 추진 개요 17
- 2. 조사 결과 21

제4장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및 분석

- 1. 기본계획 성과지표 개요 197
- 2. 기본계획 성과지표 결과 분석 198

제5장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

- 1. 조사 결과 종합 205
- 2. 정책 시사점 217

부록

- 청소년용 설문조사표 221
- 성인용 설문조사표 232

- 참고문헌 247

표 차례

제1장

〈표 1-1〉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개요	5
---------------------------------------	---

제2장

〈표 2-1〉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9
〈표 2-2〉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개요	13
〈표 2-3〉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식생활 지침 변화	15

제3장

〈표 3-1〉 성인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20
〈표 3-2〉 청소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표 3-3〉 성인·청소년의 일주일간 식사 현황(평균 식사 일수)	23
〈표 3-4〉 성인·청소년의 평일 아침식사 유형	27
〈표 3-5〉 성인·청소년의 평일 점심식사 유형	28
〈표 3-6〉 성인·청소년의 평일 저녁식사 유형	29
〈표 3-7〉 성인·청소년의 평일 아침식사 행태	31
〈표 3-8〉 성인·청소년의 평일 점심식사 행태	32
〈표 3-9〉 성인·청소년의 평일 저녁식사 행태	33
〈표 3-10〉 성인·청소년의 주말 아침식사 유형	35
〈표 3-11〉 성인·청소년의 주말 점심식사 유형	36
〈표 3-12〉 성인·청소년의 주말 저녁식사 유형	37
〈표 3-13〉 성인·청소년의 주말 아침식사 행태	39
〈표 3-14〉 성인·청소년의 주말 점심식사 행태	40
〈표 3-15〉 성인·청소년의 주말 저녁식사 행태	41
〈표 3-16〉 성인·청소년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43

〈표 3-17〉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	46
〈표 3-18〉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신선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51
〈표 3-19〉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신선한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52
〈표 3-20〉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53
〈표 3-21〉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54
〈표 3-22〉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우유·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55
〈표 3-23〉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짠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56
〈표 3-24〉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57
〈표 3-25〉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58
〈표 3-26〉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편이다')	59
〈표 3-27〉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편이다')	60
〈표 3-28〉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61
〈표 3-29〉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아침식사를 꼭 하는 편이다')	62
〈표 3-30〉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는 편이다')	63

〈표 3-31〉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는 편이다’)	64
〈표 3-32〉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음식을 먹을 때 각자 덜어 먹는 편이다’)	65
〈표 3-33〉 성인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술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66
〈표 3-34〉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 (‘나는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	67
〈표 3-35〉 성인·청소년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70
〈표 3-36〉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	73
〈표 3-37〉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74
〈표 3-38〉 성인·청소년의 국가 및 지자체 차원 식생활교육의 전반적 필요성	80
〈표 3-39〉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미취학 아동 대상)	81
〈표 3-40〉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초등학생 대상)	82
〈표 3-41〉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중고생 대상)	83
〈표 3-42〉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성인 65세 미만 대상)	84
〈표 3-43〉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성인 65세 이상 대상)	85
〈표 3-44〉 성인·청소년의 국가 및 지자체 차원 식생활교육의 전반적 충분성	86
〈표 3-45〉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미취학 아동 대상)	87
〈표 3-46〉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초등학생 대상)	88
〈표 3-47〉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중고생 대상)	89
〈표 3-48〉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성인 65세 미만 대상)	90
〈표 3-49〉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성인 65세 이상 대상)	91
〈표 3-50〉 성인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식생활교육과 연계하면 효과적인 과정 ..	93
〈표 3-51〉 성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식생활교육과 연계하면 효과적인 과정	94
〈표 3-52〉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관심도	96

〈표 3-53〉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98
〈표 3-54〉 성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식생활교육	100
〈표 3-55〉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103
〈표 3-56〉 성인·청소년의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104
〈표 3-57〉 성인·청소년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	106
〈표 3-58〉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109
〈표 3-59〉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생산자(농업인)) ...	111
〈표 3-60〉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가공업자)	112
〈표 3-61〉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유통업자)	113
〈표 3-62〉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판매자)	114
〈표 3-63〉 성인의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체험 여부(영유아(미취학아동))	116
〈표 3-64〉 성인의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체험 여부(초·중·고등학생)	117
〈표 3-65〉 성인의 자녀 농산어촌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추천 의향	118
〈표 3-66〉 성인·청소년의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경험 여부	121
〈표 3-67〉 성인·청소년의 농림어업 체험의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 중요성 인식 도움 정도 ...	122
〈표 3-68〉 성인·청소년의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 인식	124
〈표 3-69〉 성인·청소년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용어 인식 여부	126
〈표 3-70〉 성인·청소년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소비 실천 수준	128
〈표 3-71〉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제철농식품 이용)	131
〈표 3-72〉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친환경농식품 이용)	132
〈표 3-73〉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동물복지축산물 이용)	133
〈표 3-74〉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로컬푸드(지역농식품) 이용) ...	134
〈표 3-75〉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국산농식품 이용)	135
〈표 3-76〉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포장(포장재질, 과대포장 등)을 고려한 식품 구입)	136
〈표 3-77〉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식품 조리 및 보관)	137

〈표 3-78〉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필요한 만큼 농식품을 구입하고, 조리)	138
〈표 3-79〉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조리과정에서 버리는 부분을 적게 하려고 노력)	139
〈표 3-80〉 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필요한 만큼 덜어 먹으려는 노력)	140
〈표 3-81〉 성인·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	140
〈표 3-82〉 성인·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은 포장)	141
〈표 3-83〉 성인·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음식점에서 적정량을 주문,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	142
〈표 3-84〉 성인·청소년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선택 정도	144
〈표 3-85〉 성인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소비 이유	145
〈표 3-86〉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환경교육 및 체험 참가 여부	147
〈표 3-87〉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환경 교육·체험의 환경을 고려하는 식생활 실천 도움 정도	148
〈표 3-88〉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	151
〈표 3-89〉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의 전통 식생활 계승·실천 도움 정도	152
〈표 3-90〉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종류	154
〈표 3-91〉 성인·청소년의 가정 내 실천 및 계승하는 전통 식생활 종류	156
〈표 3-92〉 성인·청소년의 평소 지역과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 계승 및 실천 수준	157
〈표 3-93〉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160
〈표 3-94〉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확인하는 표시 및 인증 사항	162
〈표 3-95〉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개념 인지 여부	164
〈표 3-96〉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수준	165

〈표 3-97〉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 (친환경 농식품, 로컬푸드(지역농식품) 구입 용이성)	168
〈표 3-98〉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 (충분하게 영양가 있는 농식품 구입 가능성)	169
〈표 3-99〉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 (식생활교육 및 체험(농촌체험)의 기회)	170
〈표 3-100〉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 (유용한 농식품 관련 정보제공의 충분성)	171
〈표 3-101〉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환경을 고려한 식생활 실천) ...	172
〈표 3-102〉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	173
〈표 3-103〉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 (농식품의 생산·폐기 전 과정 참여자에 대한 감사)	174
〈표 3-104〉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전반적 만족도	175
〈표 3-105〉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안보)	177
〈표 3-106〉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자급률)	178
〈표 3-107〉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식량안보의 충분성)	180
〈표 3-108〉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충분한 양의 음식 섭취 가능성)	181
〈표 3-109〉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안전한 음식 섭취 가능성)	182
〈표 3-110〉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가능성)	183
〈표 3-111〉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국민들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에 충분한 식량 생산 여부) ...	184
〈표 3-112〉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에 관한 인식	186

〈표 3-113〉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 (식품가격 상승이 나와 우리 가족 식생활에 영향)	187
〈표 3-114〉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 (식품가격 상승으로 충분한 양의 식품 섭취 어려움)	188
〈표 3-115〉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 (식품가격 상승으로 충분한 영양과 품질을 갖춘 식품 섭취 어려움)	189
〈표 3-116〉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 (식품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190
〈표 3-117〉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 (식량안보나 먹거리 문제 관심 증가)	191
〈표 3-118〉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192
〈표 3-119〉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국내 식량 생산 기반 마련 필요)	193
〈표 3-120〉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취약계층 정부 식품 지원 필요) ...	194
〈표 3-121〉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 (국민들의 먹거리 중요성 인식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위해 교육 필요) ...	195

제4장

〈표 4-1〉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199
〈표 4-2〉 국민 식생활 만족도	203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5

제2장

〈그림 2-1〉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내용 9

제3장

〈그림 3-1〉 성인·청소년 일주일간 식사 현황(평균 식사 일수) 22

〈그림 3-2〉 성인의 아침·점심·저녁식사 실천율 비교 24

〈그림 3-3〉 청소년의 아침·점심·저녁식사 실천율 비교 24

〈그림 3-4〉 성인의 평일 식사 유형 26

〈그림 3-5〉 청소년의 평일 식사 유형 26

〈그림 3-6〉 성인의 평일 식사 행태 30

〈그림 3-7〉 청소년의 평일 식사 행태 31

〈그림 3-8〉 성인의 주말 식사 유형 34

〈그림 3-9〉 청소년의 주말 식사 유형 35

〈그림 3-10〉 성인의 주말 식사 행태 38

〈그림 3-11〉 청소년의 주말 식사 행태 38

〈그림 3-12〉 성인·청소년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42

〈그림 3-13〉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 45

〈그림 3-14〉 성인·청소년의 연도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 비교
(‘들어본 적이 있음’) 45

〈그림 3-15〉 성인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 수준 48

〈그림 3-16〉 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 수준 50

〈그림 3-17〉 성인·청소년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68

〈그림 3-18〉 성인의 연도별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비교 69

〈그림 3-19〉 청소년의 연도별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비교	69
〈그림 3-20〉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 정도	71
〈그림 3-21〉 성인의 연도별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경험 비교	72
〈그림 3-22〉 청소년의 연도별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경험 비교	72
〈그림 3-23〉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76
〈그림 3-24〉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76
〈그림 3-25〉 성인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비교	77
〈그림 3-26〉 성인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비교	77
〈그림 3-27〉 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78
〈그림 3-28〉 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79
〈그림 3-29〉 청소년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비교	79
〈그림 3-30〉 청소년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비교	80
〈그림 3-31〉 성인의 어린이집·유치원 식생활교육 연계 과정 효과 평가	92
〈그림 3-32〉 성인의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연계 과정 효과 평가	92
〈그림 3-33〉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관심도	95
〈그림 3-34〉 성인의 연도별 식생활교육 관심도 비교	95
〈그림 3-35〉 청소년의 연도별 식생활교육 관심도 비교	96
〈그림 3-36〉 성인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97
〈그림 3-37〉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97
〈그림 3-38〉 성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식생활교육	99
〈그림 3-39〉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102
〈그림 3-40〉 성인·청소년의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102
〈그림 3-41〉 성인·청소년의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105
〈그림 3-42〉 성인의 연도별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비교	105
〈그림 3-43〉 청소년의 연도별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비교	106
〈그림 3-44〉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107

<그림 3-45> 성인의 연도별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비교	108
<그림 3-46> 청소년의 연도별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비교	108
<그림 3-47> 성인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	110
<그림 3-48> 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	110
<그림 3-49> 성인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여부와 추천 의향	115
<그림 3-50> 성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체험 여부 비교	116
<그림 3-51> 성인·청소년의 농산어촌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여부와 중요성 인식 도움 정도	119
<그림 3-52> 성인의 연도별 농림어업 체험 여부 비교	120
<그림 3-53> 청소년의 연도별 농림어업 체험 여부 비교	120
<그림 3-54> 성인·청소년의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 인식	123
<그림 3-55> 성인·청소년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용어 인식 여부	125
<그림 3-56> 성인·청소년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소비 실천 수준	127
<그림 3-57>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129
<그림 3-58> 성인의 농산물 유형별 이용 실천 비중 비교	129
<그림 3-59>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	130
<그림 3-60> 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	131
<그림 3-61> 성인·청소년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선택 정도	143
<그림 3-62> 성인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소비 이유	143
<그림 3-63> 성인·청소년의 환경 교육·체험 경험 여부와 식생활 실천 도움 정도	146
<그림 3-64>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와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 정도	149
<그림 3-65> 성인의 연도별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 비교	150
<그림 3-66> 청소년의 연도별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 비교	150
<그림 3-67>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종류	153

〈그림 3-68〉 성인·청소년의 가정 내 실천 및 계승하는 전통 식생활 종류	155
〈그림 3-69〉 성인·청소년의 평소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 실천 수준	157
〈그림 3-70〉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158
〈그림 3-71〉 성인의 연도별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비교	159
〈그림 3-72〉 청소년의 연도별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비교	159
〈그림 3-73〉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확인하는 표시 및 인증 사항	161
〈그림 3-74〉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개념 인지 여부	163
〈그림 3-75〉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수준	165
〈그림 3-76〉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	167
〈그림 3-77〉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	167
〈그림 3-78〉 성인·청소년의 연도별 식생활 만족도 비교(‘만족함’ 비중)	168
〈그림 3-79〉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안보)	176
〈그림 3-80〉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자급률)	177
〈그림 3-81〉 성인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179
〈그림 3-82〉 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179
〈그림 3-83〉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에 관한 인식	185
〈그림 3-84〉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	187
〈그림 3-85〉 성인의 식량문제의 식량에 관한 인식 영향	191

제4장

〈그림 4-1〉 성인·청소년의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200
〈그림 4-2〉 성인·청소년의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	201
〈그림 4-3〉 성인·청소년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	201
〈그림 4-4〉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202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경제 발전, 국민 소득 증가, 유통 및 과학기술 발달 그리고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과거에 비해 먹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해짐. 그러나 먹거리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먹거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심화되면서, 소비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는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정책 개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특히 국민들이 먹거리와 관련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에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제정하고, 2010년에는 5년 단위 정부 정책계획인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함.
 -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됨(동법 제1조 목적).
- 2020년에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새로이 수립되었으며, 2024년까지 이를 근간으로 국가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이 추진될 예정임.¹⁾ 식생활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식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또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식생활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환류해야 함.
-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국민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음.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부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을 점검·평가하여 정부의 식생활교육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함.
- 아울러 식생활을 둘러싼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식생활 관련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먹거리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제3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의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특히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 및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환경) 식품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실천, (건강) 건강한 삶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 실천, (배려)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식생활 전(全) 과정에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 실천을 의미함(관계부처 합동, 2020).

-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변화, 국가 간 전쟁, 그리고 기타 먹거리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식품물가와 같은 이슈들의 중요성과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이슈들이 국민들의 식생활과 인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마련된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첫째, 국민들의 식생활과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조사하여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 점검·평가와 향후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함.
 - 둘째, 2022년도 조사 결과를 이전 실태 조사 및 관련 통계 조사들과 비교·분석하여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식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기여함.
 - 셋째, 먹거리 여건 변화로 인해 최근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식품물가 등의 먹거리 이슈들이 국민들의 식생활과 인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2.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는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현황,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식생활 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현황에서는 기존의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동향과 현황을 검토함.

- 둘째,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022년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분석함.
- 셋째,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에서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2022년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측함.
- 넷째,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에서는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주요 설문조사 결과 및 성과지표 계측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식생활 정책 및 교육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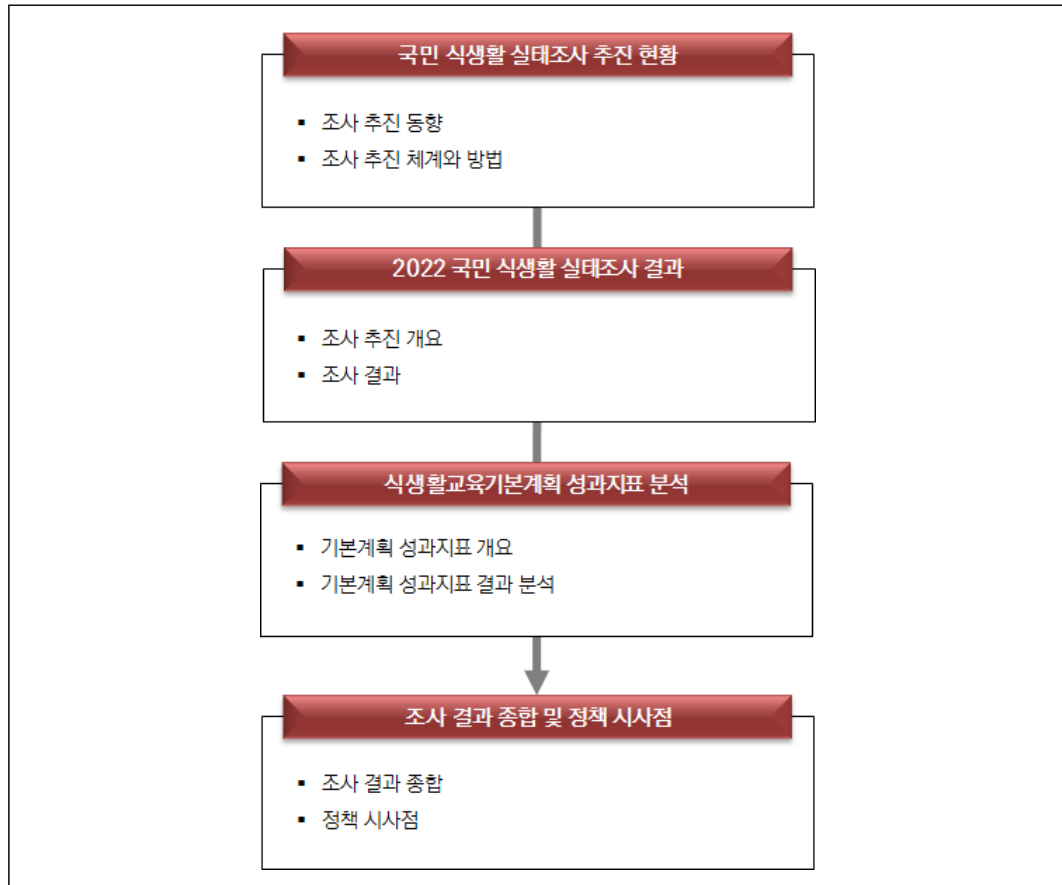
3. 연구 대상과 방법

- 이 연구는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임. 연구 대상은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의 어린이·청소년과 성인임.
-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어린이·청소년 600명, 성인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함.
 - 인구통계를 참고하여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을 통해 조사 표본을 배분함. 성인은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4~6학년) 203명, 중학교 201명, 고등학교 196명을 할당하고, 성, 지역을 고려하여 배분함.
 - 성인은 연령별로 비례할당, 어린이·청소년은 학년별로 균등할당을 실시함.
- 2022년도 조사 결과를 기존 국민 식생활 실태 조사 결과와 식생활 관련 조사·통계들과 비교·검토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분석함.

〈표 1-1〉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75세 이상은 제외 어린이·청소년(4학년-고등학교) 남녀
조사 기간	2022년 9월 26일-2022년 11월 24일(약 8주간)
조사 방법	개별면접조사
조사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1,000명(성인) 어린이·청소년: 6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203명, 중학생 201명, 고등학생 196명
표본배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성·연령·지역을 고려하여 배분) - 어린이·청소년은 학교급별로 할당하고, 성, 지역을 고려하여 배분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2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현황

○ 이 장에서는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그간의 조사 추진 동향과 조사 추진 체계 및 방법 등을 정리함.²⁾

1. 조사 추진 동향

○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제정되고, 2010년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국가단위 식생활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또한 2009년에는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도입함.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1조(식생활 조사·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건전한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를 통해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²⁾ 황윤재·박성진(2021)을 참조하여 정리함.

- 실태조사는 식생활교육 현황과 국민 식생활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됨. 이에 따라,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지표, 기타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내용들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과 2016년에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음.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국가 식생활교육에 관한 5년 단위 정부 정책계획임. 이에 따라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춰서 5년마다 조사 내용을 새로이 개편하고 있음.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10-2014)’의 성과지표와 기타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는 조사가 2014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이후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고려한 실태조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실시됨.
 - 식생활교육 및 국민 식생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부 문항은 유지함.

- 2020년에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새로이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전략 및 과제,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이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실현’이며, 주요 목표는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람 중심 교육 실시’,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으로 우리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 등임.
 - 제3차 기본계획은 정부 식생활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개 전략과 전략별 3개 추진과제, 그리고 3개 전략 부문별로 총 16개 성과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림 2-1〉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내용

가치	환경·건강·배려
비전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행복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람 중심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율(%), 국민식생활실태조사 : ('24) 75 ◆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국민식생활실태조사 : ('19) 66.8 → ('24) 75 ◆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으로 우리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농산물 이용 실천율(%), 국민식생활실태조사 : ('19) 60.8 → ('24) 70
전략	다양한 삶을 포용하는 사람 중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과 연계한 교육 ② 미래 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③ 성인의 식생활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농촌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기반 조성 ② 도시 속 농업·농촌 체험 기회 확대 ③ 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교육 확대
	지역과 전통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농산물 확산 연계 교육 기반 조성 ② 민·관 협업으로 지역 내 교육 수요 발굴 ③ 전통 식생활 교육·체험 및 계승·발전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실천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②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 ③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 확대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 식생활교육 추진기반 강화 및 확산 ○ 부처 간 협업 확대 및 사업 평가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15) 재인용.

〈표 2-1〉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 사람 중심 교육(4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개선 • 청소년 과일·채소 1일 섭취량 •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 	■ 지역과 전통의 가치를 자원을 활용한 교육(4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 • 기초지자체 추진계획 수립 수 • 식재료의 국내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도 •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 실천하는 국민 비율
■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교육(4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 •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 • 도시텃밭 참여 인원수 •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기반 강화(4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 전국 시·군·구 민간(지역협의체) 결성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 •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참조.

2. 조사 추진 체계와 방법

2.1. 조사 추진 체계

-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당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매년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사 수행기관은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음.

2.2. 조사 내용 및 방법

2.2.1. 조사 대상 및 범위

-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2015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성인 대상 조사와 어린이·청소년 대상 조사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성인 대상 조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 대상 성인남녀 연령 기준을 대체로 만 20세 이상으로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2009년, 2014년 등 일부 실태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 실태조사부터는 성인에 관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만 19세를 성인 조사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관되게 적용함.

- 2015년부터 실시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조사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는 12~19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 대상 어린이·청소년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조사 대상을 5학년,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함. 그러나 초등학생 대상 조사가 5학년, 6학년 등 고학년에 한정되어 있어 초등학생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7년 조사부터는 설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4학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4학년부터 6학년 까지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국민 전반의 식생활과 관련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한 조사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설문조사로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2015년까지의 조사는 지역 규모, 조사 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주요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제주도의 경우 지역 인구 규모가 크지 않고,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조사 수행이 쉽지 않다는 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인구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됨.

- 그러나 2017년 조사부터는 전국 단위 조사로서의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를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성인남녀 1,000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200명이 추가된 1,200명으로 조사 규모를 확대함. 2015년에는 조사방식 전환, 조사 문항 개발 등을 검토하면서 사전조사 형식으로 실시되어 성인남녀 조사가 전년 대비 600명이 감소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린이·청소년 130명이 조사 표본으로 추가됨.
 - 2015년 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면서 어린이·청소년 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이후 2017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성인남녀 1,000명, 어린이·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조사 규모가 300명으로 확대됨. 2019년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 규모에서 다시 200명을 추가하여 어린이·청소년 조사 규모가 500명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1,000명, 어린이·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어 2020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 조사 규모가 다시 100명이 증가하여,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성인 1,000명, 어린이·청소년 600명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2.2. 조사 방법

○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함. 2017년부터는 국민 식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태를 조사한다는 조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시 개별면접조사로 조사방식을 전환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실태조사는 ‘식품소비행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가구를 통한 대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되었음.

〈표 2-2〉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추진 개요

구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사 지역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	-	-	-	어린이·청소년(5학년~고등학교생)	어린이·청소년(5학년~고등학교생)	어린이·청소년(4학년~고등학교생)	어린이·청소년(4학년~고등학교생)	어린이·청소년(4학년~고등학교생)	어린이·청소년(4학년~고등학교생)
조사 기간	'09.9.23 ~10.14	'11.11.21 ~12.23	'12.11.12 ~11.30	'13.12.9 ~12.19	'15.1.16 ~1.28	'15.12.7 ~12.20	'17.11.17 ~12.15	'18.8.23 ~9.28	'19.7.15 ~8.25	'20.9.28 ~11.30	'21.10.4 ~11.24
조사 방법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가구방문 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면접조사
표본 크기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1,200명	600명(성인) 130명(어린이·청소년)	1,000명(성인) 200명(어린이·청소년)	1,000명(성인) 300명(어린이·청소년)	1,000명(성인) 500명(어린이·청소년)	1,000명(성인) 600명(어린이·청소년)	1,000명(성인) 600명(어린이·청소년)
표본 추출 방법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	제곱근비례할당(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	비례층화추출법(지역별·연령별 배분)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성별·연령별·지역별 배분)

주: 2017년 조사부터 어린이·청소년은 초등학생(4-6학년), 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함.
자료: 황윤재·박성진(2021)을 참조하여 정리함.

2.2.3. 조사 문항

○ 식생활 관련 여건·환경과 실태가 계속 변화하고,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새롭게 수립되면서, 실태조사 조사 문항도 5년마다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거나,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5년마다 조사 문항을 개편하여 세부적·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인 설문조사의 틀과 주요 내용은 유지하고 있음.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실태조사를 구성하는 조사 문항상의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점검하기 위한 문항과 식품 구입 및 소비 실태, 식생활 및 식습관 행태, 식생활 지침과 식생활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함.
- 국민 식생활과 식생활 관련 인식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부 문항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 첫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조사에는 식품 구입 및 소비 행태와 관련한 다수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5년 조사부터는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사라는 실태조사의 기본 추진 목적을 고려하여 식품 구입 및 소비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항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문항들이 제외됨.

○ 둘째,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는 식사, 외식 등과 관련한 식생활·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일반적인 식사 행태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을 다수 포함함. 그러나 시범조사 형식으로 실시된 2015년 실태조사에서는 이들 문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2017년에는 이러한 시범조사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반영하여 조사를 실시함.

- 2015년 실태조사부터 성인의 과거 식생활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현재 활용 정도, 가족과의 식사와 관련하여 세부 식생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생활습관병에 관한 문항도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실천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이전 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한식식단 음식별 섭취 빈도, 식품 종류별 섭취 빈도, 전통 음식 품목별 조리법 인지 여부 등은 2015년 실태조사부터 제외함.

○ 셋째, 식생활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식생활 지침에 관한 문항은 매년 기본적으로 포함됨. 그러나 식생활 지침이 주기적으로 수정·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식생활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2016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 지침을 통합하여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2017년 조사부터 이를 반영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2021년에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 변경되고 일부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2021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도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 문항을 수정함.

- 2014년까지는 ‘바른 식생활 지침’,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각각의 개별 식생활 지침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함.

〈표 2-3〉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식생활 지침 변화

바른 식생활 지침 (2009~2014년 조사 적용)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2017~2020년 조사 적용)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2021년 이후 조사 적용)
① 환경친화적인 농식품은 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킵니다	① 쌀·잡곡, 채소, 과일, 우유·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①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
② 알맞은 식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니다	② 아침밥을 꼭 먹자	②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③ 근거리 농수산물 소비는 에너지를 줄여 녹색성장을 이끕니다	③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③ 물을 충분히 마시자
④ 골고루 먹는 알맞은 식사는 내 건강을 지킵니다	④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④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⑤ 밥 중심의 전통 식생활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⑤ 단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	⑤ 아침식사를 꼭 하자
⑥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⑥ 술자리를 피하자	⑥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⑦ 다양한 식생활 체험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⑦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⑦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⑧ 음식은 소중하게 생산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⑧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⑧ 술은 절제하자
	⑨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⑨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자료: 저자 작성.

○ 넷째, 2015년부터 기존의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문항에 로컬푸드, 음식물 쓰레기 절감 실천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 또한 식생활 관련 캠페인에 관해서는 2015년까지는 식생활

관련 캠페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2015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캠페인(‘바른밥상 밝은 100세’)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2017년 조사 문항이 구성됨. 이밖에 ‘가족 밥상의 날’에 대한 인지 및 실천 수준을 파악하는 문항이 포함됨.

-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바른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과 ‘가족 밥상의 날’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후 조사에서는 관련 문항이 제외됨.

○ 다섯째, 식생활교육에 관한 문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2014년 조사부터는 국가 식생활교육 실태와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생활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 기초 지식 보유 정도, 식생활교육이 필요한 대상·장소, 자녀의 농어촌 체험활동 참여 여부 등 식생활교육에 관한 다양한 문항을 추가하였음. 2015년 조사에서는 식생활교육에서 가정, 학교, 지역, 농업, 전통 식생활 관련한 세부항목의 중요 정도와 추진(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됨. 그러나 2017년 조사부터는 이 중 중요도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추진(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만 포함되었으며, 이밖에 국가 식생활교육 필요 및 추진 정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됨.

○ 여섯째, 2021년 조사부터 기존에 실태조사를 구성하던 조사 문항 이외에도 당해 연도의 주요한 식생활 관련한 이슈를 반영한 문항들이 조사에 추가됨. 이에 따라 2021년 조사에는 COVID-19가 국민 식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금년(2022년) 조사에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식품물가 등과 관련된 국민 인식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짐.

3

2022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

○ 이 장에서는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추진 개요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함.

1. 조사 추진 개요³

1.1. 조사 목적

○ ‘국민 식생활 실태 조사’는 국민 식생활 실태와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① 국민 식생활 실태와 식생활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②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추진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며, 이를 통해 ③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³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중에 실시되어 설문조사 결과가 일부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 조사 설계

1.2.1.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청소년⁴

- 어린이·청소년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함.

○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2.2. 표본 설계

○ 표본 크기

- 성인: 1,000명
- 어린이·청소년: 600명(초등학생 203명, 중학생 201명, 고등학생 196명)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

- 성인은 성, 연령, 지역, 어린이·청소년은 성, 연령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1.2.3. 조사방법 및 일시

○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⁴ 성인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만 75세 이상인 경우 조사를 종료함.

○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실시기간: 2022년 9월 26일 ~ 2022년 11월 24일(약 8주간)

1.2.4. 응답자 특성

가) 성인 응답자 특성

○ 설문 응답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은 50.6%, 여성 49.4%이며, 연령은 50대가 21.7%로 가장 많고, 40대 21.0%, 60대 이상 20.1%, 20대와 30대가 각각 18.6%임.

-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1.4%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 포함) 17.8%, 동남권 17.4%, 호남권(제주도 포함) 17.1%, 대경권 11.7%, 강원권 4.6% 순임.
-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700만 원 미만인 3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500만 원 미만 33.2%, 300만 원 미만 20.2%, 700만 원 이상 10.8%임.
- 교육 수준은 대학 이상(전문대 포함)이 61.6%, 고졸 이하가 38.4%임.
- 직업은 관리자·사무직·공무원이 31.2%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판매/서비스직 20.9%, 전업주부 14.9%, 전문직 9.1%, 생산기능직 9.0%, 학생 5.6%, 농림어업 1.6% 순임.
- 가구원 수별로 2인 이상 가구가 85.7%, 1인 가구가 14.3%가 포함되었으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성인 응답자의 비중은 28.9%였음.

나) 청소년 응답자 특성

○ 어린이·청소년은 남학생 50.8%, 여학생 49.2%이며, 연령별로는 초등학생(4·5·6학년) 33.8%, 중학생 33.5%, 고등학생 32.7%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7.7%로 가장 많고, 호남권 20.8%, 충청권 20.5%, 동남권 15.0%, 대경권 12.0%, 강원권 4.0%로 나타남.

- 제주도는 호남권,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에 포함됨.

〈표 3-1〉 성인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6	50.6
	여성	494	49.4
연령	20대	186	18.6
	30대	186	18.6
	40대	210	21.0
	50대	217	21.7
	60대 이상	201	20.1
권역	수도권	314	31.4
	충청권	178	17.8
	호남권	171	17.1
	대경권	117	11.7
	동남권	174	17.4
강원권	강원권	46	4.6
	300만 원 미만	202	20.2
	300~500만 원 미만	332	33.2
	500~700만 원 미만	358	35.8
	700만 원 이상	108	10.8
가구소득	미혼	288	28.8
	기혼	712	71.2
결혼 여부	고졸 이하	384	38.4
	대학 이상	616	61.6
학력	관리자·사무직·공무원	312	31.2
	전문직	91	9.1
직업	판매/서비스직	209	20.9
	농림어업	16	1.6
	생산기능직	90	9.0
	학생	56	5.6
	전업주부	149	14.9
	기타	77	7.7
	19세 미만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89
자녀 없음		711	71.1
가구원 수	1인	143	14.3
	2인 이상	857	85.7

자료: 저자 작성.

〈표 3-2〉 청소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전체		600	100.0
성별	남성	305	50.8
	여성	295	49.2
연령	초등학생(4·5·6학년)	203	33.8
	중학생	201	33.5
	고등학생	196	32.7
권역	수도권	166	27.7
	충청권	123	20.5
	호남권	125	20.8
	대경권	72	12.0
	동남권	90	15.0
	강원권	24	4.0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결과

2.1. 식생활 및 식습관 실태

2.1.1. 식사 유형과 행태

가) 일주일간 식사 현황

○ 성인은 일주일간 점심과 저녁을 먹는 횟수가 각각 평균 5.95회, 6.47회였음. 그러나 아침 식사는 평균 4.39회로 점심과 저녁에 비해 상대적으로 먹는 횟수가 적은 편이었음.

-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남성(4.43회), 60대 이상(5.94회), 동남권(4.64회), 가구소득 300~700만 원 미만(4.43회), 2인 이상 가구(4.60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일주일간 점심식사 횟수는 남성(6.00회), 60대 이상(6.37회), 강원권(6.13회),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6.16회), 2인 이상 가구(5.97회)에서 많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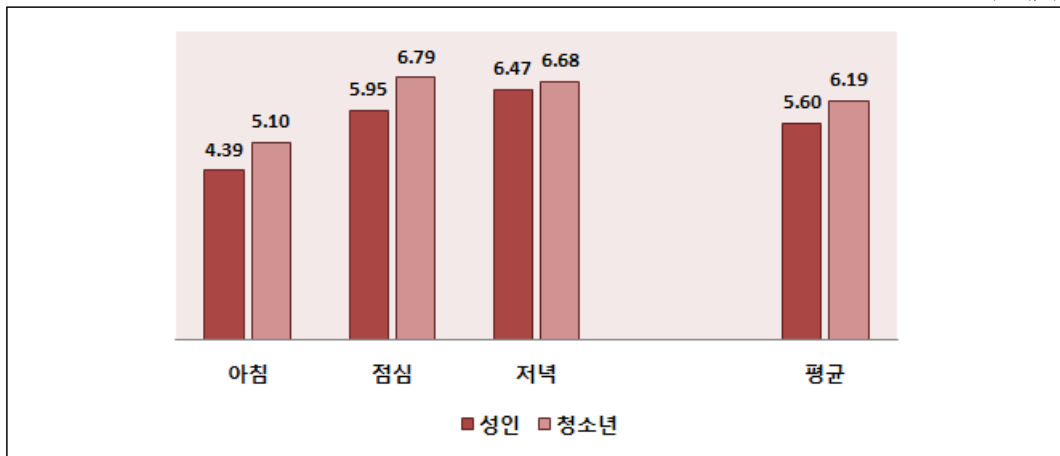
- 일주일간 저녁식사 횟수는 여성(6.48회)과 남성(6.46회)이 비슷한 수준이고, 60대 이상(6.67회), 충청권(6.70회),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6.52회), 2인 이상 가구(6.51회) 등에서 많은 편이었음.

○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하게 점심과 저녁을 먹는 횟수는 각각 평균 6.79회, 6.68회로 많은 편이었으며, 아침은 평균 5.10회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 초등학생은 일주일간 아침(5.54회), 점심(6.84회), 저녁(6.73회) 식사 횟수가 모두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음.

〈그림 3-1〉 성인·청소년 일주일간 식사 현황(평균 식사 일수)

단위: 회/주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3〉 성인·청소년의 일주일간 식사 현황(평균 식사 일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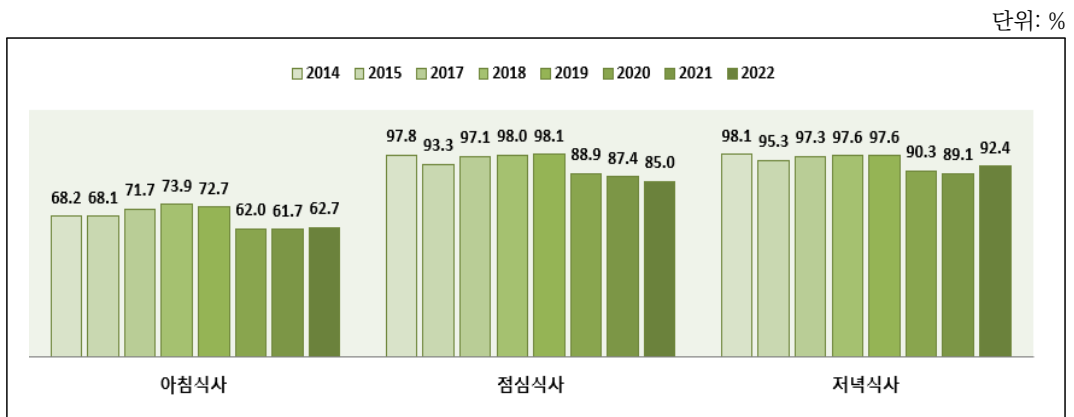
구분		평균 아침 식사일	평균 점심 식사일	평균 저녁 식사일	전체 평균
전체(성인)		4.39	5.95	6.47	5.60
성별	남성	4.43	6.00	6.46	5.63
	여성	4.34	5.90	6.48	5.57
연령	19~29세	3.15	5.48	6.30	4.97
	30대	3.51	5.90	6.38	5.26
	40대	4.25	5.73	6.44	5.47
	50대	4.91	6.22	6.52	5.88
	60대 이상	5.94	6.37	6.67	6.33
권역	수도권	4.54	5.83	6.32	5.56
	충청권	4.53	5.98	6.70	5.74
	호남권	4.10	5.99	6.57	5.55
	대경권	3.83	5.92	6.50	5.42
	동남권	4.64	6.06	6.34	5.68
	강원권	4.33	6.13	6.54	5.6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32	6.16	6.45	5.64
	300~500만 원 미만	4.43	6.01	6.52	5.65
	500~700만 원 미만	4.43	5.91	6.46	5.60
	700만 원 이상	4.23	5.50	6.39	5.37
가구원 수	1인	3.15	5.85	6.24	5.08
	2인 이상	4.60	5.97	6.51	5.69
전체(청소년)		5.10	6.79	6.68	6.19
연령	초등학생	5.54	6.84	6.73	6.37
	중학생	5.00	6.76	6.66	6.14
	고등학생	4.74	6.76	6.63	6.05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성인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62.7%였으며, 점심은 85.0%, 저녁은 92.4%였음. 청소년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실천율이 성인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음. 청소년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72.9%였으며, 점심은 97.0%, 저녁은 95.4%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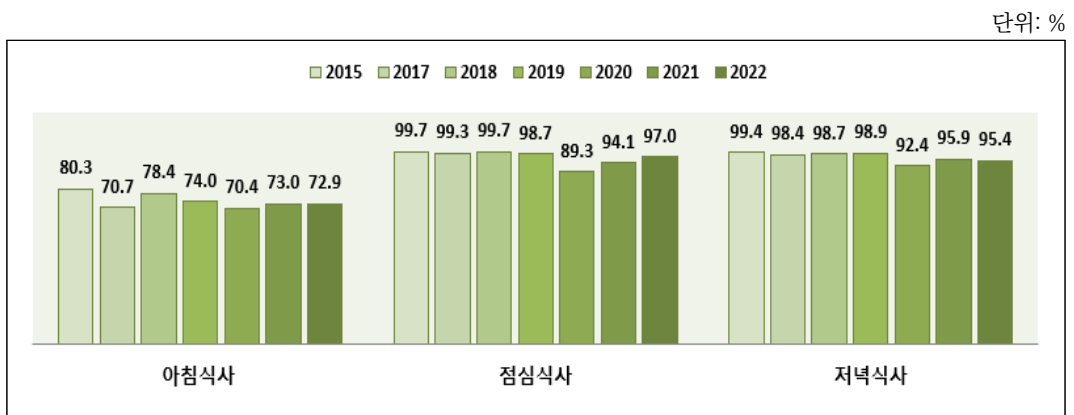
- 성인의 경우 2022년도 점심식사 실천율은 전년 대비 2.4%p 감소하였으나, 아침식사(1.0%p)와 저녁식사(1.3%p)는 다소 증가함.
- 청소년은 2022년도 아침과 저녁 식사 실천율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점심식사 실천율은 전년도에 비해 2.9%p가 증가함.

〈그림 3-2〉 성인의 아침·점심·저녁식사 실천율 비교



주: 2014~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3〉 청소년의 아침·점심·저녁식사 실천율 비교



주: 2014~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나) 평일 식사 유형과 행태

○ 성인은 평일 아침과 저녁은 집밥(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먹는 비중이 각각 55.0%, 57.7%로 컸음. 점심은 집밥(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먹는 비중이 41.2%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음식점(식당, 베이커리 등)이 27.5%, 배달식과 단체급식이 각각 7.4%와 7.2%, 편의점(간단 조리제품, 도시락)이 6.6%였음. 성인의 경우 평일 아침에 식사하지 않는 비중이 35.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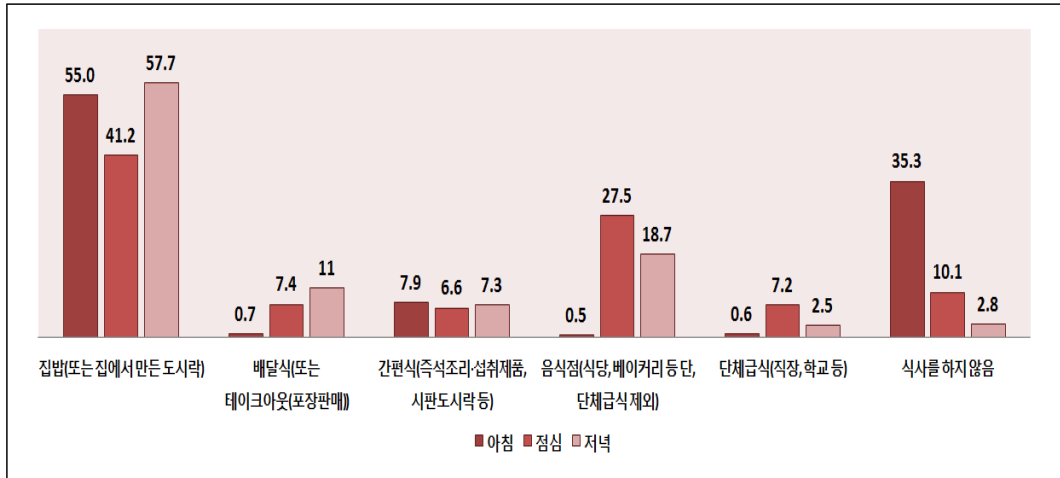
- 평일에 아침을 집밥으로 먹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과 남성이 55% 내외 수준이고, 60대 이상(82.6%), 동남권(60.3%),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57.8%), 2인 이상 가구(60.0%)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평일에 아침을 먹지 않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36.2%), 20대(53.8%), 대경권(46.2%),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38.0%)과 300만 원 미만(37.6%), 1인 가구(55.9%)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평일에 점심을 집밥으로 먹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50.0%), 50대(49.8%), 대경권(48.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44.1%), 2인 이상 가구(42.5%)에서 큰 편이었음. 음식점에서 먹는 비중은 남성(34.8%), 60대 이상(31.3%), 충청권(35.4%),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30.7%), 2인 이상 가구(28.2%)에서 큰 편이었음.
- 평일에 저녁을 집밥으로 먹는 비중은 여성(60.7%), 60대 이상(75.1%), 대경권(65.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64.9%), 2인 이상 가구(60.9%)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은 평일 아침과 저녁은 집밥(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먹는 비중이 각각 69.7%, 81.5%로 컸으며, 점심은 학생이라는 특성상 단체급식 비중이 95.2%였음. 청소년은 평일 아침에 식사하지 않는 비중이 23.3% 정도였음.

- 청소년은 평일에 아침과 저녁을 집밥으로 먹는 비중이 초등학생은 각각 80.8%, 94.6%로 컸으며,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중은 고등학생이 29.1%로 가장 컸음.
- 점심을 단체급식으로 먹는 비중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96.6%, 96.0%이며, 고등학생은 92.9%로 조사됨.

〈그림 3-4〉 성인의 평일 식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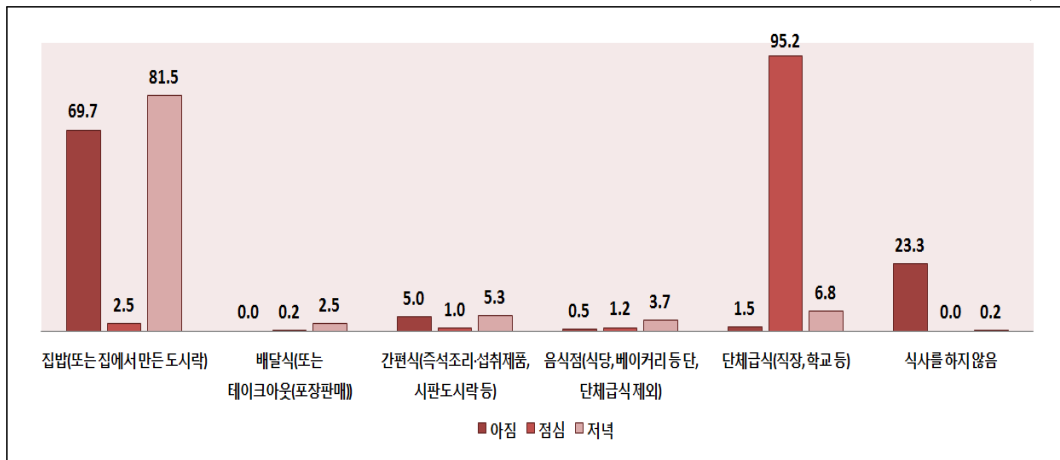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5〉 청소년의 평일 식사 유형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4〉 성인·청소년의 평일 아침식사 유형

단위: %

구분		집밥 (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	배달식 (또는 테이크아웃 (포장판매))	간편식 (즉석조리· 섭취제품, 시판도시락 등)	음식점 (식당, 베이커리 등 단, 단체급식 제외)	단체급식 (직장, 학교 등)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55.0	0.7	7.9	0.5	0.6	35.3
성별	남성	54.7	0.8	8.9	0.6	0.6	34.4
	여성	55.3	0.6	6.9	0.4	0.6	36.2
연령	19~29세	29.6	0.5	15.1	0.5	0.5	53.8
	30대	35.5	1.6	12.4	0.0	1.1	49.5
	40대	52.9	0.5	7.1	1.0	1.4	37.1
	50대	70.0	0.5	2.3	0.9	0.0	26.3
	60대 이상	82.6	0.5	4.0	0.0	0.0	12.9
권역	수도권	57.0	1.0	12.1	0.6	0.6	28.7
	충청권	57.3	1.1	7.3	1.1	1.1	32.0
	호남권	50.3	0.6	5.8	0.0	0.6	42.7
	대경권	47.9	0.9	5.1	0.0	0.0	46.2
	동남권	60.3	0.0	3.4	0.0	0.0	36.2
	강원권	47.8	0.0	13.0	2.2	2.2	34.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2.5	1.5	6.4	0.5	1.5	37.6
	300~500만 원 미만	55.1	0.9	8.4	1.2	0.3	34.0
	500~700만 원 미만	57.8	0.0	7.5	0.0	0.3	34.4
	700만 원 이상	50.0	0.9	10.2	0.0	0.9	38.0
가구원 수	1인	25.2	4.2	13.3	0.7	0.7	55.9
	2인 이상	60.0	0.1	7.0	0.5	0.6	31.9
전체(청소년)		69.7	0.0	5.0	0.5	1.5	23.3
연령	초등학생	80.8	0.0	3.9	0.0	0.0	15.3
	중학생	68.2	0.0	5.5	0.5	0.0	25.9
	고등학생	59.7	0.0	5.6	1.0	4.6	29.1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5〉 성인·청소년의 평일 점심식사 유형

단위: %

구분		집밥 (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	배달식 (또는 테이크아웃 (포장판매))	간편식 (즉석조리· 섭취제품, 시판도시락 등)	음식점 (식당, 베이커리 등 단, 단체급식 제외)	단체급식 (직장, 학교 등)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41.2	7.4	6.6	27.5	7.2	10.1
성별	남성	32.6	7.3	7.3	34.8	9.1	8.9
	여성	50.0	7.5	5.9	20.0	5.3	11.3
연령	19~29세	37.6	7.0	7.0	17.7	10.8	19.9
	30대	37.1	8.6	8.1	28.0	7.5	10.8
	40대	37.6	5.7	7.1	29.5	4.3	15.7
	50대	49.8	9.2	4.6	30.0	4.6	1.8
	60대 이상	42.8	6.5	6.5	31.3	9.5	3.5
권역	수도권	45.2	10.5	4.1	24.2	3.8	12.1
	충청권	32.6	6.2	7.9	35.4	6.7	11.2
	호남권	32.2	3.5	7.6	26.3	21.6	8.8
	대경권	48.7	8.5	7.7	19.7	3.4	12.0
	동남권	46.0	6.9	6.9	32.2	1.7	6.3
	강원권	43.5	4.3	10.9	26.1	8.7	6.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1	7.9	7.9	24.3	10.9	5.0
	300~500만 원 미만	38.9	7.5	8.1	30.7	6.0	8.7
	500~700만 원 미만	43.0	5.6	4.7	27.1	7.5	12.0
	700만 원 이상	37.0	12.0	5.6	25.0	2.8	17.6
가구원 수	1인	33.6	11.2	9.8	23.1	10.5	11.9
	2인 이상	42.5	6.8	6.1	28.2	6.7	9.8
전체(청소년)		2.5	0.2	1.0	1.2	95.2	0.0
연령	초등학생	2.5	0.0	1.0	0.0	96.6	0.0
	중학생	2.0	0.0	1.0	1.0	96.0	0.0
	고등학생	3.1	0.5	1.0	2.6	92.9	0.0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6〉 성인·청소년의 평일 저녁식사 유형

단위: %

구분		집밥 (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	배달식 (또는 테이크아웃 (포장판매))	간편식 (즉석조리· 섭취제품, 시판도시락 등)	음식점 (식당, 베이커리 등 단, 단체급식 제외)	단체급식 (직장, 학교 등)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57.7	11.0	7.3	18.7	2.5	2.8
성별	남성	54.7	9.5	6.5	23.1	2.6	3.6
	여성	60.7	12.6	8.1	14.2	2.4	2.0
연령	19~29세	50.0	10.8	11.8	22.0	2.2	3.2
	30대	41.9	16.7	8.1	25.3	4.8	3.2
	40대	53.8	12.9	7.6	20.0	2.9	2.9
	50대	65.4	9.7	7.4	13.8	1.4	2.3
	60대 이상	75.1	5.5	2.0	13.4	1.5	2.5
권역	수도권	52.5	16.6	6.7	19.7	1.3	3.2
	충청권	55.6	9.0	8.4	22.5	2.2	2.2
	호남권	60.2	7.0	7.6	20.5	3.5	1.2
	대경권	65.8	7.7	2.6	19.7	2.6	1.7
	동남권	59.2	10.3	10.3	12.6	2.3	5.2
	강원권	65.2	6.5	6.5	10.9	8.7	2.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4.9	5.4	7.9	12.4	5.4	4.0
	300~500만 원 미만	57.2	13.3	5.4	19.0	2.4	2.7
	500~700만 원 미만	54.5	12.3	9.2	20.4	1.1	2.5
	700만 원 이상	56.5	10.2	5.6	24.1	1.9	1.9
가구원 수	1인	38.5	13.3	11.9	23.1	7.7	5.6
	2인 이상	60.9	10.6	6.5	18.0	1.6	2.3
전체(청소년)		81.5	2.5	5.3	3.7	6.8	0.2
연령	초등학생	94.6	2.0	2.0	1.5	0.0	0.0
	중학생	89.1	3.5	3.5	4.0	0.0	0.0
	고등학생	60.2	2.0	10.7	5.6	20.9	0.5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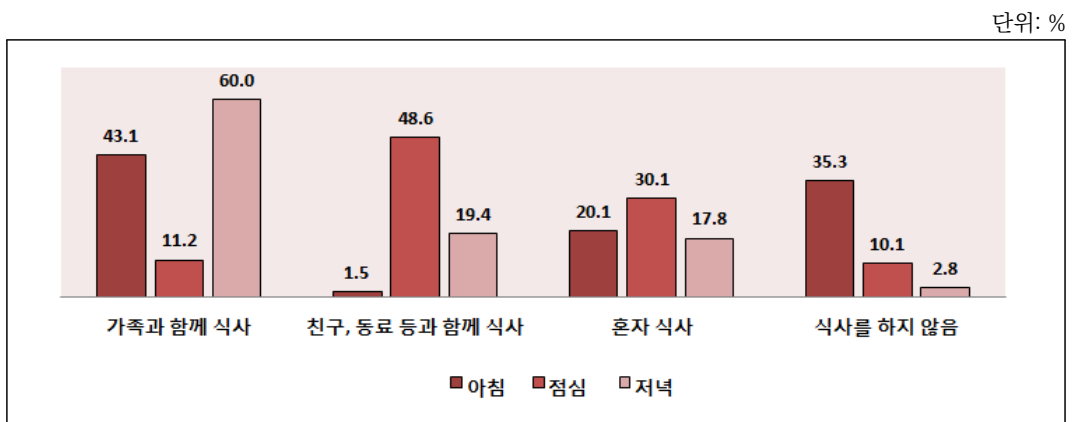
○ 성인은 평일 아침과 저녁은 가족과 식사하는 비중이 각각 43.1%, 60.0%로 컸으며, 점심은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식사하는 비중이 48.6%에 달하였음.

- 평일 아침을 가족과 먹는 비중은 여성(45.1%), 60대 이상(65.7%), 충청권(52.2%),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46.9%), 2인 이상 가구(50.3%)에서 큰 편이었음.
- 평일 점심을 친구, 동료 등과 먹는 비중은 남성(57.9%), 30대(55.9%), 호남권(63.2%),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0.0%), 2인 이상 가구(49.2%)에서 큰 편인 것으로 조사됨.
- 평일 저녁을 가족과 먹는 비중은 여성(63.6%), 50대(71.4%)와 60대 이상(71.6%), 충청권(62.9%),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64.8%), 2인 이상 가구(70.0%)에서 큰 편이었음.

○ 청소년도 평일 아침과 저녁을 가족과 먹는 비중이 각각 57.7%, 76.0%로 컸으며, 점심은 친구, 동료 등과 함께 먹는 비중이 96.5%에 달하였음.

- 평일 아침과 저녁을 가족과 먹는 비중은 초등학생이 각각 71.9%, 94.1%로 큰 편이었음. 평일 점심을 친구, 동료 등과 먹는 비중은 중학생이 98.0%, 초등학생이 97.0%인 반면, 고등학생은 94.4%로 다소 낮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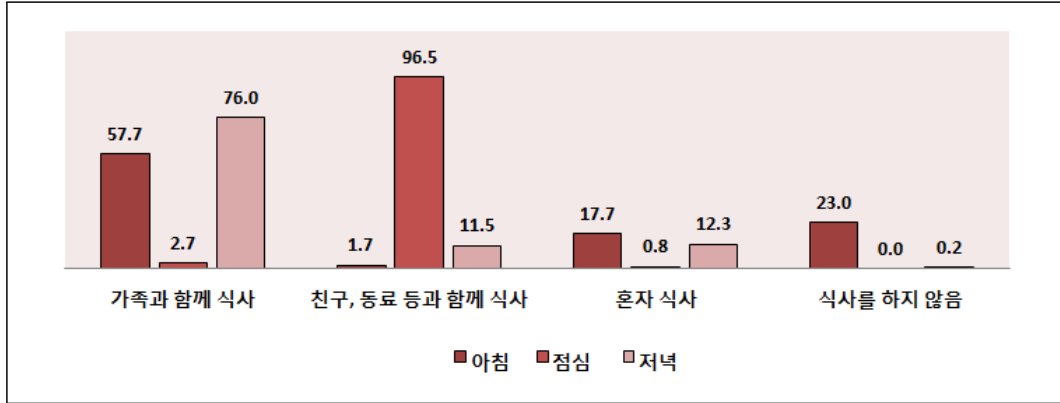
〈그림 3-6〉 성인의 평일 식사 행태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7〉 청소년의 평일 식사 행태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7〉 성인·청소년의 평일 아침식사 행태

단위: %

구분		가족과 함께 식사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식사	혼자 식사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43.1	1.5	20.1	35.3
성별	남성	41.1	2.0	22.5	34.4
	여성	45.1	1.0	17.6	36.2
연령	19~29세	21.5	2.2	22.6	53.8
	30대	30.1	1.6	18.8	49.5
	40대	45.7	1.4	15.7	37.1
	50대	49.3	1.4	23.0	26.3
	60대 이상	65.7	1.0	20.4	12.9
권역	수도권	42.4	1.3	27.7	28.7
	충청권	52.2	3.4	12.4	32.0
	호남권	36.8	2.3	18.1	42.7
	대경권	32.5	0.0	21.4	46.2
	동남권	50.6	0.6	12.6	36.2
가구 소득	강원권	34.8	0.0	30.4	34.8
	300만 원 미만	35.1	3.0	24.3	37.6
	300~500만 원 미만	45.5	2.4	18.1	34.0
	500~700만 원 미만	46.9	0.3	18.4	34.4
	700만 원 이상	38.0	0.0	24.1	38.0
가구원 수	1인	0.0	4.9	39.2	55.9
	2인 이상	50.3	0.9	16.9	31.9
전체(청소년)		57.7	1.7	17.7	23.0
연령	초등학생	71.9	0.5	12.3	15.3
	중학생	57.2	0.0	17.9	24.9
	고등학생	43.4	4.6	23.0	29.1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8〉 성인·청소년의 평일 점심식사 행태

단위: %

구분		가족과 함께 식사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식사	혼자 식사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11.2	48.6	30.1	10.1
성별	남성	4.2	57.9	29.1	8.9
	여성	18.4	39.1	31.2	11.3
연령	19~29세	2.7	45.7	31.7	19.9
	30대	5.9	55.9	27.4	10.8
	40대	11.9	50.0	22.4	15.7
	50대	8.3	49.3	40.6	1.8
	60대 이상	26.4	42.3	27.9	3.5
권역	수도권	14.3	39.8	33.8	12.1
	충청권	10.1	54.5	24.2	11.2
	호남권	5.8	63.2	22.2	8.8
	대경권	12.0	36.8	39.3	12.0
	동남권	13.2	48.9	31.6	6.3
	강원권	4.3	60.9	28.3	6.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4	45.0	35.6	5.0
	300~500만 원 미만	14.2	48.8	28.3	8.7
	500~700만 원 미만	8.1	50.0	29.9	12.0
	700만 원 이상	6.5	50.0	25.9	17.6
가구원 수	1인	0.0	44.8	43.4	11.9
	2인 이상	13.1	49.2	27.9	9.8
전체(청소년)		2.7	96.5	0.8	0.0
연령	초등학생	3.0	97.0	0.0	0.0
	중학생	1.5	98.0	0.5	0.0
	고등학생	3.6	94.4	2.0	0.0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9〉 성인·청소년의 평일 저녁식사 행태

단위: %

구분		가족과 함께 식사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식사	혼자 식사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60.0	19.4	17.8	2.8	
성별	남성	56.5	20.9	19.0	3.6	
	여성	63.6	17.8	16.6	2.0	
연령	19~29세	25.8	39.8	31.2	3.2	
	30대	57.0	21.5	18.3	3.2	
	40대	70.0	14.8	12.4	2.9	
	50대	71.4	14.3	12.0	2.3	
	60대 이상	71.6	9.0	16.9	2.5	
권역	수도권	61.1	19.4	16.2	3.2	
	충청권	62.9	17.4	17.4	2.2	
	호남권	60.2	21.6	17.0	1.2	
	대경권	57.3	22.2	18.8	1.7	
	동남권	56.3	17.2	21.3	5.2	
강원권	강원권	60.9	19.6	17.4	2.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1	20.3	31.7	4.0
		300~500만 원 미만	64.8	16.9	15.7	2.7
		500~700만 원 미만	63.7	19.8	14.0	2.5
		700만 원 이상	63.0	24.1	11.1	1.9
가구원 수	1인	0.0	36.4	58.0	5.6	
	2인 이상	70.0	16.6	11.1	2.3	
전체(청소년)		76.0	11.5	12.3	0.2	
연령	초등학교	94.1	1.0	4.9	0.0	
	중학교	81.6	7.0	11.4	0.0	
	고등학교	51.5	27.0	20.9	0.5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다) 주말 식사 유형과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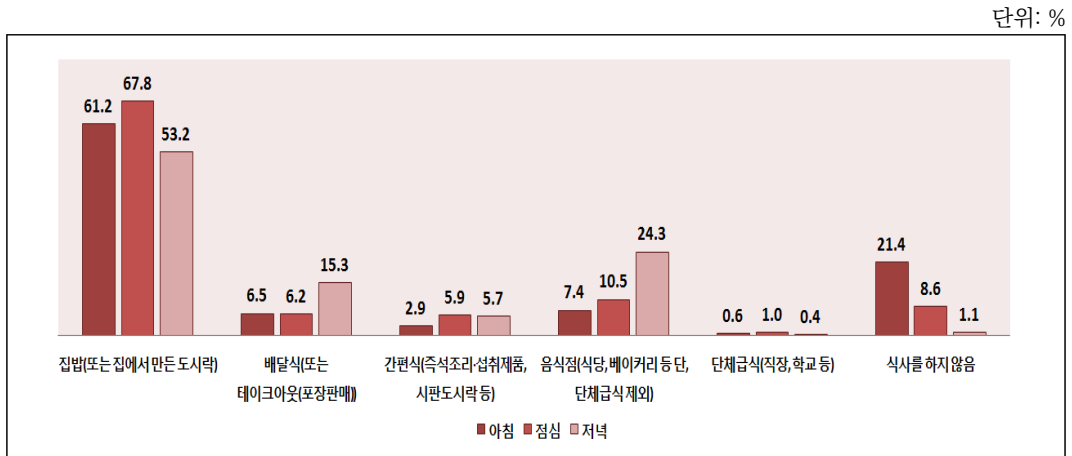
○ 성인은 주말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집밥(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먹는 비중이 각각 61.2%, 67.8%, 53.2%로 컸음. 또한 주말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중이 21.4%로 점심(8.6%)과 저녁(1.1%)에 비해 큰 편이었음.

- 주말 아침에 집밥으로 식사하는 비중은 남성(60.7%)과 여성(61.7%)이 61% 내외로 비슷하였고, 50대(78.8%), 호남권(67.8%),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69.4%), 2인 이상 가구(65.9%)에서 큰 편이었음.
- 주말 점심을 집밥으로 먹는 비중은 여성과 남성이 68% 내외였고, 60대 이상(87.6%), 수도권(81.2%),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71.8%), 2인 이상 가구(72.0%)에서 큰 편이었음.
- 주말 저녁을 집밥으로 먹는 비중은 여성(55.9%), 60대 이상(79.1%), 동남권(63.2%),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62.9%), 2인 이상 가구(54.7%)에서 큰 편이었음.

○ 청소년도 주말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집밥(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먹는 비중이 각각 64.8%, 50.0%, 64.7%로 컸음. 청소년은 주말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중이 26.0%에 달하였음.

- 주말에 집밥을 먹는 비중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모두 공통으로 초등학교에서 큰 편이었음. 주말에 아침을 먹지 않는 비중은 고등학교(32.7%)이 중학교(24.9%)와 초등학교(20.7%)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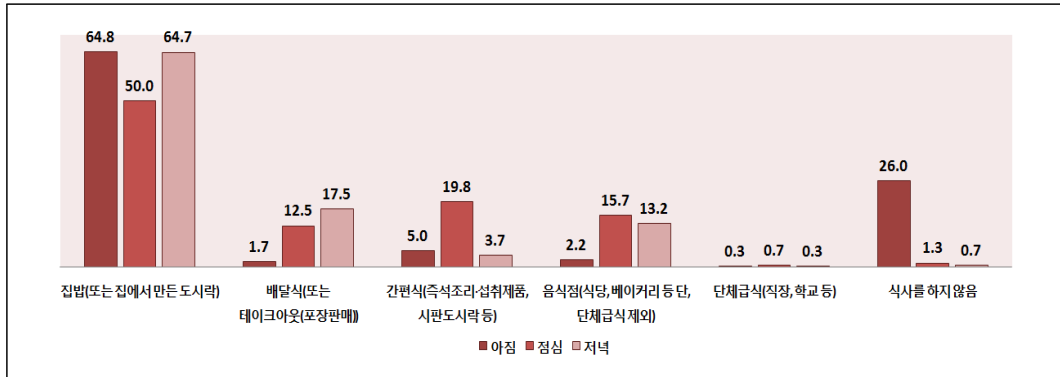
〈그림 3-8〉 성인의 주말 식사 유형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9〉 청소년의 주말 식사 유형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0〉 성인·청소년의 주말 아침식사 유형

단위: %

구분	집밥 (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	배달식 (또는 테이크 아웃 (포장판매))	간편식 (즉석조리·섭취제품, 시판도시락 등)	음식점 (식당, 베이커리 등 단, 단체급식 제외)	단체급식 (직장, 학교 등)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61.2	6.5	2.9	7.4	0.6	21.4	
성별	남성	60.7	6.7	2.8	9.7	0.6	19.6
	여성	61.7	6.3	3.0	5.1	0.6	23.3
연령	19~29세	43.0	10.8	1.6	8.1	0.0	36.6
	30대	52.7	10.2	2.7	5.4	0.0	29.0
	40대	64.3	5.2	3.8	4.3	1.4	21.0
	50대	78.8	3.7	2.3	3.2	0.9	11.1
	60대 이상	63.7	3.5	4.0	16.4	0.5	11.9
권역	수도권	61.5	7.3	1.3	10.8	0.6	18.5
	충청권	60.1	4.5	3.4	8.4	1.1	22.5
	호남권	67.8	3.5	2.3	1.2	0.6	24.6
	대경권	56.4	6.0	3.4	6.0	0.0	28.2
	동남권	60.3	11.5	0.6	9.2	0.0	18.4
강원권	54.3	2.2	21.7	0.0	2.2	19.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3.5	5.9	4.5	8.4	0.5	27.2
	300~500만 원 미만	56.3	6.6	3.9	9.0	0.3	23.8
	500~700만 원 미만	67.6	6.4	1.1	6.4	1.1	17.3
	700만 원 이상	69.4	7.4	2.8	3.7	0.0	16.7
가구원 수	1인	32.9	11.2	2.1	11.9	0.0	42.0
	2인 이상	65.9	5.7	3.0	6.7	0.7	18.0
전체(청소년)	64.8	1.7	5.0	2.2	0.3	26.0	
연령	초등학생	69.5	1.0	5.4	3.4	0.0	20.7
	중학생	67.2	2.5	4.0	1.5	0.0	24.9
	고등학생	57.7	1.5	5.6	1.5	1.0	32.7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11〉 성인·청소년의 주말 점심식사 유형

단위: %

구분		집밥 (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	배달식 (또는 테이크아웃 (포장판매))	간편식 (즉석조리· 섭취제품, 시판도시락 등)	음식점 (식당, 베이커리 등 단, 단체급식 제외)	단체급식 (직장, 학교 등)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67.8	6.2	5.9	10.5	1.0	8.6
성별	남성	67.2	7.1	5.9	10.5	1.0	8.3
	여성	68.4	5.3	5.9	10.5	1.0	8.9
연령	19~29세	54.8	8.6	8.1	12.4	1.1	15.1
	30대	56.5	11.3	5.9	9.7	2.2	14.5
	40대	67.1	5.2	8.1	10.0	0.5	9.0
	50대	71.0	5.5	3.7	15.2	1.4	3.2
	60대 이상	87.6	1.0	4.0	5.0	0.0	2.5
권역	수도권	81.2	4.1	4.5	4.1	0.6	5.4
	충청권	57.3	6.7	12.9	16.3	0.0	6.7
	호남권	60.8	8.8	5.3	11.1	1.8	12.3
	대경권	58.1	5.1	2.6	22.2	0.9	11.1
	동남권	71.8	5.7	4.0	5.2	1.1	12.1
	강원권	52.2	13.0	6.5	19.6	4.3	4.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3.4	6.4	7.4	11.9	3.0	7.9
	300~500만 원 미만	66.3	9.6	7.2	9.0	0.6	7.2
	500~700만 원 미만	71.8	3.1	5.0	10.3	0.3	9.5
	700만 원 이상	67.6	5.6	1.9	13.0	0.9	11.1
가구원 수	1인	42.7	9.8	15.4	11.9	2.8	17.5
	2인 이상	72.0	5.6	4.3	10.3	0.7	7.1
전체(청소년)		50.0	12.5	19.8	15.7	0.7	1.3
연령	초등학생	51.2	15.3	19.7	13.8	0.0	0.0
	중학생	49.3	14.4	20.4	14.4	0.0	1.5
	고등학생	49.5	7.7	19.4	18.9	2.0	2.6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12〉 성인·청소년의 주말 저녁식사 유형

단위: %

구분		집밥 (또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	배달식 (또는 테이크아웃 (포장판매))	간편식 (즉석조리· 섭취제품, 시판도시락 등)	음식점 (식당, 베이커리 등 단, 단체급식 제외)	단체급식 (직장, 학교 등)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53.2	15.3	5.7	24.3	0.4	1.1
성별	남성	50.6	16.8	5.9	25.3	0.4	1.0
	여성	55.9	13.8	5.5	23.3	0.4	1.2
연령	19~29세	43.0	17.7	6.5	31.2	0.0	1.6
	30대	36.0	24.7	10.8	26.3	1.1	1.1
	40대	45.2	18.6	5.7	28.6	0.5	1.4
	50대	60.4	12.0	3.2	23.0	0.5	0.9
	60대 이상	79.1	4.5	3.0	12.9	0.0	0.5
권역	수도권	52.2	17.5	5.4	22.9	0.3	1.6
	충청권	48.9	12.4	6.2	32.6	0.0	0.0
	호남권	50.9	13.5	6.4	28.1	0.6	0.6
	대경권	53.8	12.0	3.4	29.1	0.0	1.7
	동남권	63.2	16.1	6.9	11.5	0.6	1.7
가구 소득	강원권	45.7	23.9	4.3	23.9	2.2	0.0
	300만 원 미만	62.9	12.9	5.9	16.3	1.0	1.0
	300~500만 원 미만	53.6	19.3	4.8	21.1	0.0	1.2
	500~700만 원 미만	48.3	14.5	5.9	29.6	0.3	1.4
	700만 원 이상	50.0	10.2	7.4	31.5	0.9	0.0
가구원 수	1인	44.1	21.7	8.4	23.1	0.7	2.1
	2인 이상	54.7	14.2	5.3	24.5	0.4	0.9
전체(청소년)		64.7	17.5	3.7	13.2	0.3	0.7
연령	초등학교	67.0	13.8	2.5	16.7	0.0	0.0
	중학교	65.2	18.4	3.5	12.9	0.0	0.0
	고등학교	61.7	20.4	5.1	9.7	1.0	2.0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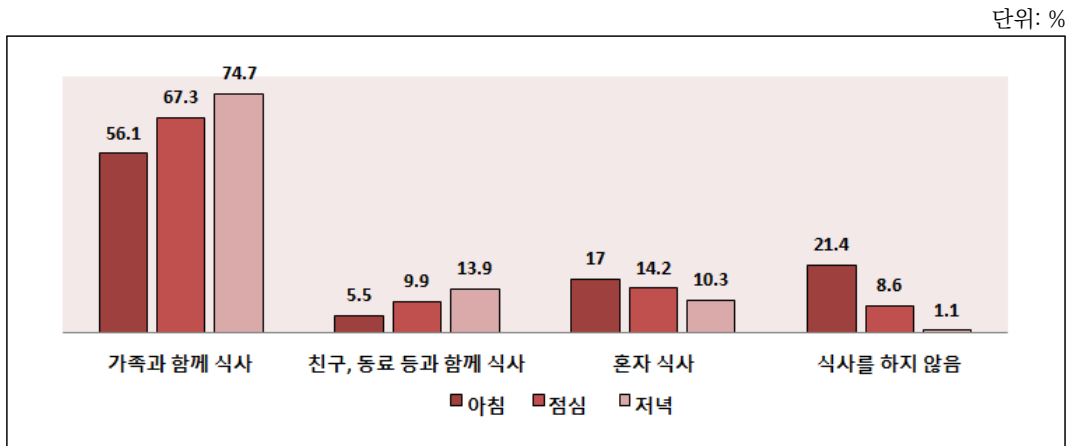
○ 성인은 주말 아침, 점심,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는 비중이 각각 56.1%, 67.3%, 74.7%에 달하였음.

- 주말 아침을 가족과 함께 먹는 비중은 남성(57.1%), 50대(70.5%), 충청권(62.4%),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67.6%), 2인 이상 가구(65.1%)에서 큰 편이었음.
- 주말 점심을 가족과 먹는 비중은 남성(68.2%), 50대(78.3%)와 60대 이상(78.6%), 동남권(73.6%), 가구소득 500만 원~700만 원 미만(74.3%)과 700만 원 이상(74.1%), 2인 이상 가구(77.6%)에서 큰 편이었음.

- 주말 저녁을 가족과 먹는 비중은 여성(78.3%), 60대 이상(87.1%), 동남권(79.9%), 가구소득 500만 원~700만 원 미만(80.7%), 2인 이상 가구(84.9%)에서 큰 편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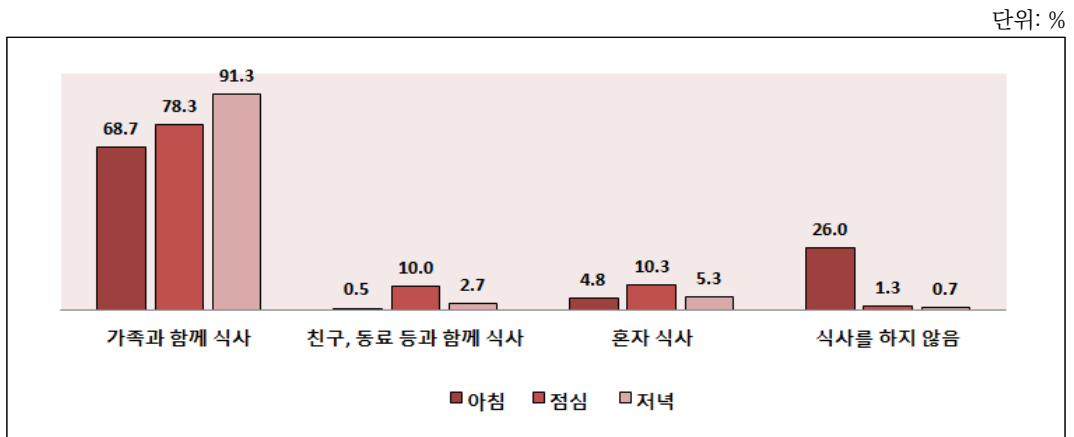
○ 청소년은 주말 아침, 점심, 저녁을 가족과 먹는 비중이 각각 68.7%, 78.3%, 91.3%에 달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초등학생이 가족과 먹는 비중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각각 76.4%, 89.2%, 100.0%로 큰 편이었음.

〈그림 3-10〉 성인의 주말 식사 행태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11〉 청소년의 주말 식사 행태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3〉 성인·청소년의 주말 아침식사 행태

단위: %

구분		가족과 함께 식사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식사	혼자 식사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56.1	5.5	17.0	21.4
성별	남성	57.1	7.1	16.2	19.6
	여성	55.1	3.8	17.8	23.3
연령	19~29세	38.7	5.9	18.8	36.6
	30대	52.7	4.8	13.4	29.0
	40대	64.3	4.3	10.5	21.0
	50대	70.5	3.2	15.2	11.1
	60대 이상	51.2	9.5	27.4	11.9
권역	수도권	54.5	6.7	20.4	18.5
	충청권	62.4	6.7	8.4	22.5
	호남권	56.7	2.3	16.4	24.6
	대경권	48.7	6.0	17.1	28.2
	동남권	55.7	6.3	19.5	18.4
	강원권	60.9	0.0	19.6	19.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5.6	5.9	31.2	27.2
	300~500만 원 미만	54.8	6.3	15.1	23.8
	500~700만 원 미만	65.4	4.7	12.6	17.3
	700만 원 이상	67.6	4.6	11.1	16.7
가구원 수	1인	2.1	13.3	42.7	42.0
	2인 이상	65.1	4.2	12.7	18.0
전체(청소년)		68.7	0.5	4.8	26.0
연령	초등학생	76.4	0.0	3.0	20.7
	중학생	70.1	0.0	5.0	24.9
	고등학생	59.2	1.5	6.6	32.7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14〉 성인·청소년의 주말 점심식사 행태

단위: %

구분		가족과 함께 식사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식사	혼자 식사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67.3	9.9	14.2	8.6
성별	남성	68.2	8.9	14.6	8.3
	여성	66.4	10.9	13.8	8.9
연령	19~29세	45.7	16.1	23.1	15.1
	30대	54.3	11.3	19.9	14.5
	40대	75.7	7.1	8.1	9.0
	50대	78.3	10.6	7.8	3.2
	60대 이상	78.6	5.0	13.9	2.5
권역	수도권	77.1	4.1	13.4	5.4
	충청권	66.3	11.8	15.2	6.7
	호남권	56.1	13.5	18.1	12.3
	대경권	53.8	20.5	14.5	11.1
	동남권	73.6	6.3	8.0	12.1
	강원권	56.5	15.2	23.9	4.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8.0	14.4	29.7	7.9
	300~500만 원 미만	69.3	9.3	14.2	7.2
	500~700만 원 미만	74.3	7.8	8.4	9.5
	700만 원 이상	74.1	10.2	4.6	11.1
가구원 수	1인	5.6	18.9	58.0	17.5
	2인 이상	77.6	8.4	6.9	7.1
전체(청소년)		78.3	10.0	10.3	1.3
연령	초등학생	89.2	6.4	4.4	0.0
	중학생	78.6	8.5	11.4	1.5
	고등학생	66.8	15.3	15.3	2.6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15〉 성인·청소년의 주말 저녁식사 행태

단위: %

구분		가족과 함께 식사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식사	혼자 식사	식사를 하지 않음
전체(성인)		74.7	13.9	10.3	1.1
성별	남성	71.1	16.8	11.1	1.0
	여성	78.3	10.9	9.5	1.2
연령	19~29세	53.8	29.6	15.1	1.6
	30대	62.9	22.0	14.0	1.1
	40대	82.4	8.1	8.1	1.4
	50대	83.9	7.4	7.8	0.9
	60대 이상	87.1	5.0	7.5	0.5
권역	수도권	74.5	17.5	6.4	1.6
	충청권	78.7	13.5	7.9	0.0
	호남권	74.9	11.1	13.5	0.6
	대경권	64.1	19.7	14.5	1.7
	동남권	79.9	8.0	10.3	1.7
가구 소득	강원권	67.4	8.7	23.9	0.0
	300만 원 미만	55.9	13.9	29.2	1.0
	300~500만 원 미만	78.6	10.5	9.6	1.2
	500~700만 원 미만	80.7	15.6	2.2	1.4
	700만 원 이상	77.8	18.5	3.7	0.0
가구원 수	1인	13.3	27.3	57.3	2.1
	2인 이상	84.9	11.7	2.5	0.9
전체(청소년)		91.3	2.7	5.3	0.7
연령	초등학생	100.0	0.0	0.0	0.0
	중학생	94.5	0.5	5.0	0.0
	고등학생	79.1	7.7	11.2	2.0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라)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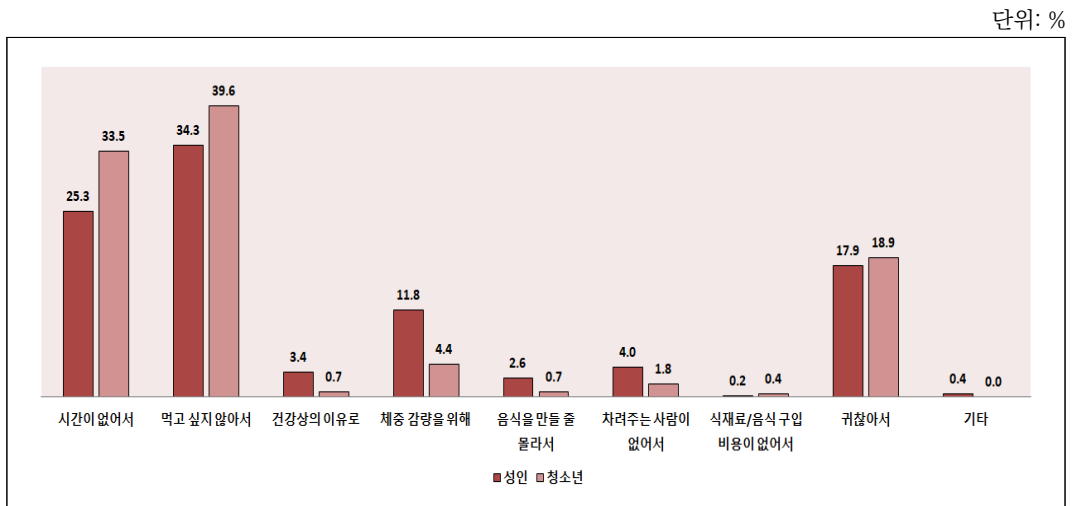
○ 성인은 주로 ‘먹고 싶지 않아서’(34.3%), ‘시간이 없어서’(25.3%), ‘귀찮아서’(17.9%)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과 유사하게 식사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먹고 싶지 않아서’(39.6%), ‘시간이 없어서’(33.5%), ‘귀찮아서’(18.9%) 순이었음.

-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는 비중이 성인은 11.8%로 청소년(4.4%)에 비해 7.4%p 큰 편이었음.

○ 성인의 경우 '먹고 싶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는 비중이 여성(39.8%), 60대 이상(62.5%), 호남권(49.4%), 가구소득 500만 원~700만 원 미만(37.5%), 2인 이상 가구(38.2%)에서 큰 편이었음.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는 비중은 남성(28.3%), 30대(32.8%), 대경권(35.8%),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28.3%)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으며, 체중 감량을 이유로 제시한 비중은 여성(15.7%)이 남성(7.8%)에 비해 2배 정도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의 경우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먹고 싶지 않아서'는 초등학생(53.5%), '시간이 없어서'는 중학생(37.8%)과 고등학생(38.7%)에서 높은 편이었고, '귀찮아서'는 고등학생(24.5%)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이밖에 체중 감량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는 중학생(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그림 3-12〉 성인·청소년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6〉 성인·청소년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시간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줄 몰라서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재료/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귀찮아서	기타
성별	전체(성인)	25.3	34.3	3.4	11.8	2.6	4.0	17.9	0.4
	남성	28.3	28.7	3.3	7.8	4.1	7.0	20.5	0.4
연령	여성	22.4	39.8	3.5	15.7	1.2	1.2	15.4	0.4
	19~29세	25.4	30.8	4.7	13.0	2.4	4.1	18.9	0.0
	30대	32.8	26.9	0.7	12.7	3.7	5.2	17.2	0.7
	40대	25.2	35.9	4.9	10.7	1.9	3.9	17.5	0.0
	50대	19.2	40.4	1.9	9.6	3.8	1.9	21.2	1.9
	60대 이상	7.5	62.5	5.0	10.0	0.0	2.5	12.5	0.0
권역	수도권	22.5	29.0	2.9	16.7	5.8	2.9	20.3	0.0
	충청권	23.1	28.6	9.9	9.9	2.2	4.4	22.0	0.0
	호남권	21.8	49.4	1.1	11.5	1.1	2.3	10.3	2.3
	대경권	35.8	27.2	1.2	7.4	1.2	3.7	23.5	0.0
	동남권	24.7	44.2	1.3	9.1	1.3	6.5	11.7	0.0
	강원권	29.2	25.0	4.2	16.7	0.0	8.3	16.7	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7.7	30.4	7.1	8.9	2.7	5.4	17.0	0.0
	300~500만 원 미만	23.6	33.9	1.8	8.5	4.2	4.8	23.0	0.0
	500~700만 원 미만	24.4	37.5	2.4	18.5	1.8	2.4	12.5	0.6
	700만 원 이상	28.3	34.0	3.8	7.5	0.0	3.8	20.8	1.9
가구원 수	1인	24.6	23.9	3.7	11.2	6.7	8.2	20.9	0.0
	2인 이상	25.5	38.2	3.3	12.1	1.1	2.5	16.8	0.5
연령	전체(청소년)	33.5	39.6	0.7	4.4	0.7	1.8	18.9	0.0
	초등학생	19.7	53.5	1.4	4.2	1.4	1.4	16.9	0.0
	중학생	37.8	38.8	0.0	6.1	1.0	2.0	14.3	0.0
	고등학생	38.7	31.1	0.9	2.8	0.0	1.9	24.5	0.0

주 1) 평일 또는 주말에 아침,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2.1.2. 식생활 지침 실천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는 수칙인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함.
-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성인은 지침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는 경우가 17.4%, 듣거나 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43.4%였음. 청소년은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까지 아는 경우가 15.3%, 듣거나 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41.8%였음.
 -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비중은 성인의 경우 여성(20.0%), 50대(21.7%), 대경권(23.9%),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24.1%), 2인 이상 가구(17.9%)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또한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이 20.4%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2022년에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2022년에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인지하는 성인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2.1%p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8%p 증가함.

〈글상자 1〉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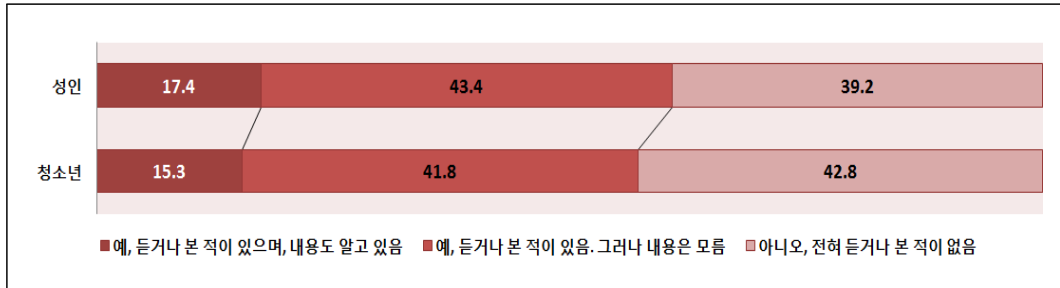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에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발표함.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9개 수칙〉

- ①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
- ② 달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 ③ 물을 충분히 마시자
- ④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 ⑤ 아침식사를 꼭 하자
- ⑥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 ⑦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 ⑧ 술은 절제하자
- ⑨ 우리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그림 3-13〉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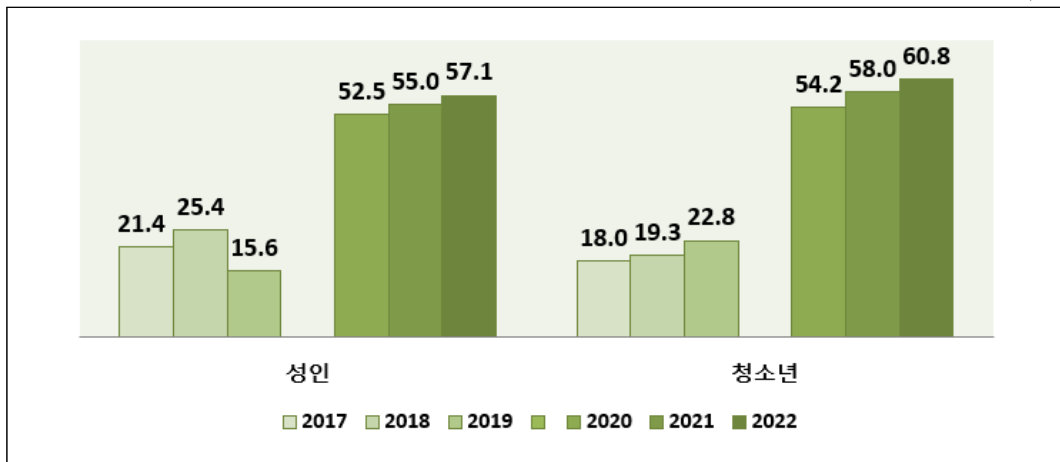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14〉 성인·청소년의 연도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 비교(‘들어본 적이 있음’)

단위: %



주 1) 2017~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2017~2019년은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2020~2022년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를 조사함.

3) 2017~2019년 조사와 2020~2021년 조사는 설문문항의 항목이 동일하지 않아, 상호 비교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17~2019년 조사에서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를 ‘들어본 적이 있음’과 ‘들어본 적이 없음’으로 설문하였음. 2020~2022년 조사는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과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을 합한 결과임.

〈표 3-17〉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전체(성인)		17.4	43.4	39.2
성별	남성	14.8	43.3	41.9
	여성	20.0	43.5	36.4
연령	19~29세	18.3	40.3	41.4
	30대	16.1	50.0	33.9
	40대	11.4	46.2	42.4
	50대	21.7	42.4	35.9
	60대 이상	19.4	38.3	42.3
권역	수도권	15.6	49.4	35.0
	충청권	19.7	42.7	37.6
	호남권	19.9	43.9	36.3
	대경권	23.9	29.9	46.2
	동남권	12.1	39.7	48.3
	강원권	15.2	52.2	32.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6.8	39.6	43.6
	300~500만 원 미만	15.7	41.9	42.5
	500~700만 원 미만	17.3	47.2	35.5
	700만 원 이상	24.1	42.6	33.3
가구원 수	1인	14.7	46.9	38.5
	2인 이상	17.9	42.8	39.3
전체(청소년)		15.3	41.8	42.8
연령	초등학생	11.8	33.0	55.2
	중학생	13.9	46.8	39.3
	고등학생	20.4	45.9	33.7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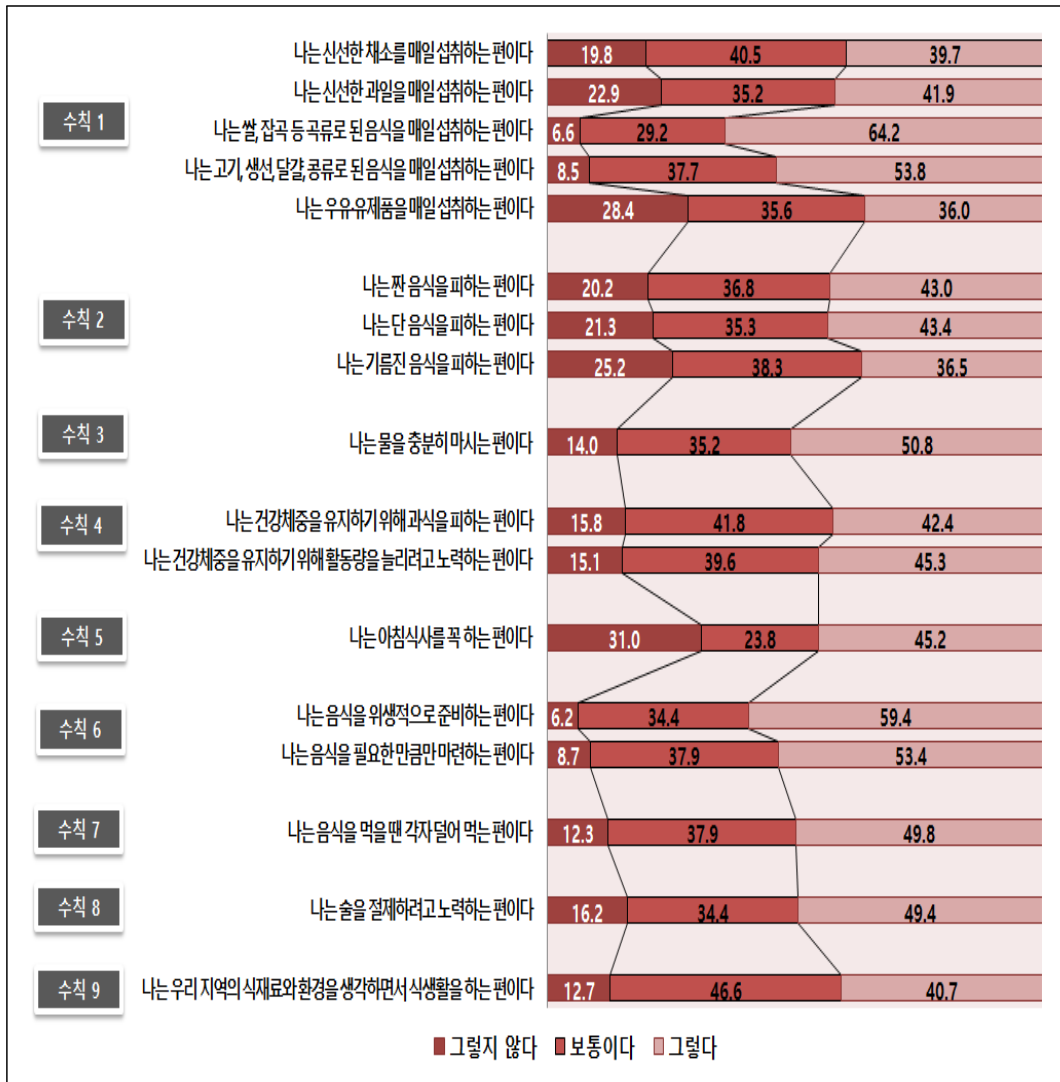
○ 성인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에 대한 실천 수준이 항목별로 30~40%대에서 60%대까지 차이가 있었음. 수칙 1(‘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과 관련하여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64.2%)과 수칙 6(‘음식은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과 관련하여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는 편’인 비중(59.4%)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반면, 수칙 1(‘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의 ‘나는 우유·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36.0%)과 수칙 2(‘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의 ‘나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36.5%)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 수칙 1(‘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에서는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64.2%)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컸으며, ‘우유·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편’(36.0%)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음.
- 수칙 2(‘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와 관련하여 ‘짠 음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과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은 40%대였으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은 36.5%에 불과하였음. 수칙 3(‘물을 충분히 마시자’)과 관련하여 ‘물을 충분히 마시는 편’인 비중이 50.8%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수칙 4(‘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에서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이 42.4%,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편’인 비중이 45.3%로 모두 40%대였음.
- 수칙 5(‘아침식사를 꼭 하자’)에서 ‘아침식사를 꼭 하는 편’인 비중이 45.2%에 불과하였으나, 수칙 6(‘음식은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에서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는 편’인 비중이 59.4%,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는 편’인 비중이 53.4%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수칙 7(‘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에서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는 편’인 비중이 49.8%, 수칙 8(‘술은 절제하자’)의 ‘술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비중이 49.4%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 수칙 9('우리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의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하는 편'인 비중은 40.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그림 3-15〉 성인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 수준

단위: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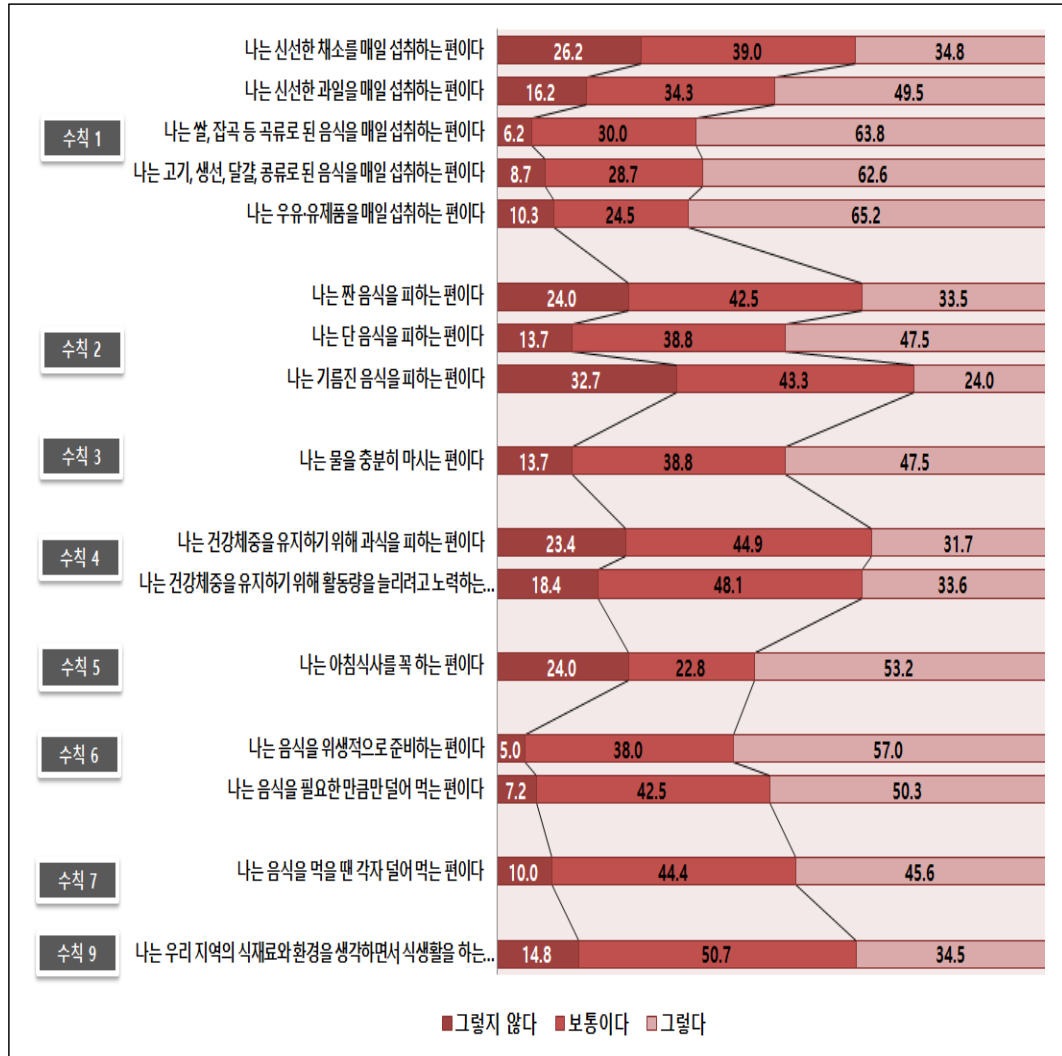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 청소년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에 대한 실천 수준이 20~30%대에서 50~60%대까지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음.

- 수칙 1(‘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의 ‘우유·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편’(65.2%),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63.8%),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62.6%)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0%대로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신선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편’(34.8%)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음.
- 수칙 2(‘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이 24.0%, ‘짠 음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이 33.5%로 작은 데 비해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은 47.5%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또한 수칙 3(‘물을 충분히 마시자’)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편’인 비중이 47.5%였음.
- 수칙 4(‘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의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편’인 비중은 31.7%,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편’인 비중은 33.6%로 30%대에 불과함.
- 수칙 5(‘아침식사를 꼭 하자’)와 관련하여 ‘아침식사를 꼭 하는 편’인 비중이 53.2%였으며, 수칙 6(‘음식은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의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는 편’인 비중은 57.0%,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는 편’인 비중은 50.3%로 모두 50%대인 것으로 조사됨.
- 수칙 7(‘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의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는 편’인 비중이 45.6%였으며, 수칙 9(‘우리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의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하는 편’인 비중은 34.5%에 불과하였음.

〈그림 3-16〉 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 수준

단위: %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주 2)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의 수칙 8(“나는 술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은 청소년의 식생활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수칙으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만 포함하고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제외하여 조사함.
- 주 3)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8〉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신선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9.8	40.5	39.7
성별	남성	23.3	42.1	34.6
	여성	16.2	38.9	44.9
연령	19~29세	28.5	43.0	28.5
	30대	25.3	40.9	33.9
	40대	17.6	40.5	41.9
	50대	20.3	34.6	45.2
	60대 이상	8.5	44.3	47.3
권역	수도권	22.6	38.9	38.5
	충청권	16.3	39.3	44.4
	호남권	21.1	47.4	31.6
	대경권	20.5	46.2	33.3
	동남권	16.1	33.9	50.0
	강원권	21.7	41.3	37.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4.3	44.6	31.2
	300~500만 원 미만	20.2	39.5	40.4
	500~700만 원 미만	17.6	37.7	44.7
	700만 원 이상	17.6	45.4	37.0
가구원 수	1인	35.0	45.5	19.6
	2인 이상	17.3	39.7	43.1
전체(청소년)		26.2	39.0	34.8
연령	초등학생	27.6	40.4	32.0
	중학생	21.9	41.3	36.8
	고등학생	29.1	35.2	35.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9〉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신선한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2.9	35.2	41.9
성별	남성	28.3	37.0	34.8
	여성	17.4	33.4	49.2
연령	19~29세	38.7	29.0	32.3
	30대	25.8	38.7	35.5
	40대	16.7	42.9	40.5
	50대	18.0	33.2	48.8
	60대 이상	17.4	31.8	50.7
권역	수도권	23.2	33.4	43.3
	충청권	18.0	28.7	53.4
	호남권	29.8	43.3	26.9
	대경권	24.8	41.9	33.3
	동남권	15.5	33.3	51.1
	강원권	37.0	32.6	30.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3.7	36.6	29.7
	300~500만 원 미만	23.8	32.5	43.7
	500~700만 원 미만	16.5	36.6	46.9
	700만 원 이상	21.3	36.1	42.6
가구원 수	1인	39.2	35.7	25.2
	2인 이상	20.2	35.1	44.7
전체(청소년)		16.2	34.3	49.5
연령	초등학생	13.3	38.4	48.3
	중학생	13.9	35.3	50.7
	고등학생	21.4	29.1	49.5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0〉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6.6	29.2	64.2
성별	남성	6.7	30.6	62.6
	여성	6.5	27.7	65.8
연령	19~29세	12.4	34.9	52.7
	30대	9.7	32.8	57.5
	40대	2.9	29.5	67.6
	50대	6.0	24.4	69.6
	60대 이상	3.0	25.4	71.6
권역	수도권	6.7	31.2	62.1
	충청권	4.5	31.5	64.0
	호남권	7.0	26.3	66.7
	대경권	12.8	29.9	57.3
	동남권	4.0	28.7	67.2
	강원권	6.5	17.4	76.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4	31.2	60.4
	300~500만 원 미만	6.3	32.8	60.8
	500~700만 원 미만	6.7	26.5	66.8
	700만 원 이상	3.7	23.1	73.1
가구원 수	1인	15.4	39.2	45.5
	2인 이상	5.1	27.5	67.3
전체(청소년)		6.2	30.0	63.8
연령	초등학생	4.4	30.5	65.0
	중학생	10.0	30.3	59.7
	고등학생	4.1	29.1	66.8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1〉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8.5	37.7	53.8
성별	남성	8.9	38.1	53.0
	여성	8.1	37.2	54.7
연령	19~29세	11.3	31.2	57.5
	30대	7.5	38.2	54.3
	40대	4.3	39.5	56.2
	50대	11.1	37.8	51.2
	60대 이상	8.5	41.3	50.2
권역	수도권	11.8	40.1	48.1
	충청권	3.9	31.5	64.6
	호남권	8.2	31.6	60.2
	대경권	13.7	50.4	35.9
	동남권	4.0	40.2	55.7
	강원권	8.7	26.1	65.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9	48.0	41.1
	300~500만 원 미만	9.3	37.0	53.6
	500~700만 원 미만	6.7	34.9	58.4
	700만 원 이상	7.4	29.6	63.0
가구원 수	1인	10.5	47.6	42.0
	2인 이상	8.2	36.1	55.8
전체(청소년)		8.7	28.7	62.6
연령	초등학생	11.8	26.6	61.6
	중학생	9.5	28.5	62.0
	고등학생	4.6	31.1	64.3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2〉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우유·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8.4	35.6	36.0
성별	남성	31.4	36.4	32.2
	여성	25.3	34.8	39.9
연령	19~29세	27.4	32.8	39.8
	30대	21.5	37.1	41.4
	40대	27.6	37.6	34.8
	50대	35.5	35.5	29.0
	60대 이상	28.9	34.8	36.3
권역	수도권	29.0	30.6	40.4
	충청권	21.3	39.3	39.3
	호남권	36.8	32.7	30.4
	대경권	25.6	46.2	28.2
	동남권	27.0	35.1	37.9
	강원권	32.6	41.3	26.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7.6	32.7	29.7
	300~500만 원 미만	27.7	38.0	34.3
	500~700만 원 미만	23.7	35.5	40.8
	700만 원 이상	28.7	34.3	37.0
가구원 수	1인	36.4	35.0	28.7
	2인 이상	27.1	35.7	37.2
전체(청소년)		10.3	24.5	65.2
연령	초등학생	7.9	24.6	67.5
	중학생	8.5	25.4	66.2
	고등학생	14.8	23.5	61.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3〉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짠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0.2	36.8	43.0
성별	남성	24.9	37.5	37.5
	여성	15.4	36.0	48.6
연령	19~29세	30.1	39.2	30.6
	30대	25.3	35.5	39.2
	40대	13.8	39.5	46.7
	50대	19.4	33.6	47.0
	60대 이상	13.9	36.3	49.8
권역	수도권	16.2	32.8	51.0
	충청권	23.6	40.4	36.0
	호남권	26.3	36.8	36.8
	대경권	24.8	51.3	23.9
	동남권	12.1	29.3	58.6
	강원권	30.4	41.3	28.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7.2	40.6	32.2
	300~500만 원 미만	16.9	37.7	45.5
	500~700만 원 미만	17.3	36.0	46.6
	700만 원 이상	26.9	29.6	43.5
가구원 수	1인	26.6	42.7	30.8
	2인 이상	19.1	35.8	45.0
전체(청소년)		24.0	42.5	33.5
연령	초등학생	21.7	45.3	33.0
	중학생	21.4	45.3	33.3
	고등학생	29.1	36.7	34.2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4〉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1.3	35.3	43.4
성별	남성	22.7	35.4	41.9
	여성	19.8	35.2	44.9
연령	19~29세	38.7	31.2	30.1
	30대	31.2	36.6	32.3
	40대	14.8	40.0	45.2
	50대	13.4	35.5	51.2
	60대 이상	11.4	32.8	55.7
권역	수도권	16.9	34.1	49.0
	충청권	25.3	36.0	38.8
	호남권	24.0	35.7	40.4
	대경권	28.2	42.7	29.1
	동남권	17.8	29.9	52.3
	강원권	21.7	41.3	37.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6.2	36.6	37.1
	300~500만 원 미만	18.1	41.9	40.1
	500~700만 원 미만	19.0	31.8	49.2
	700만 원 이상	29.6	24.1	46.3
가구원 수	1인	32.2	38.5	29.4
	2인 이상	19.5	34.8	45.7
전체(청소년)		38.0	39.7	22.3
연령	초등학생	37.9	41.9	20.2
	중학생	35.8	44.8	19.4
	고등학생	40.3	32.1	27.6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5〉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5.2	38.3	36.5
성별	남성	30.0	39.3	30.6
	여성	20.2	37.2	42.5
연령	19~29세	43.0	35.5	21.5
	30대	34.4	38.2	27.4
	40대	22.9	40.0	37.1
	50대	16.1	37.3	46.5
	60대 이상	12.4	40.3	47.3
권역	수도권	22.6	39.8	37.6
	충청권	27.5	41.0	31.5
	호남권	24.6	37.4	38.0
	대경권	31.6	44.4	23.9
	동남권	20.7	31.0	48.3
	강원권	37.0	32.6	30.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7.7	42.1	30.2
	300~500만 원 미만	25.3	42.8	31.9
	500~700만 원 미만	21.2	32.1	46.6
	700만 원 이상	33.3	38.0	28.7
가구원 수	1인	35.0	41.3	23.8
	2인 이상	23.6	37.8	38.6
전체(청소년)		32.7	43.3	24.0
연령	초등학생	31.0	43.3	25.6
	중학생	29.9	48.8	21.4
	고등학생	37.2	37.8	25.0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6〉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4.0	35.2	50.8
성별	남성	12.8	35.6	51.6
	여성	15.2	34.8	50.0
연령	19~29세	14.0	40.9	45.2
	30대	18.3	26.9	54.8
	40대	12.9	38.6	48.6
	50대	12.4	35.9	51.6
	60대 이상	12.9	33.3	53.7
권역	수도권	17.2	34.7	48.1
	충청권	8.4	34.8	56.7
	호남권	17.0	32.2	50.9
	대경권	17.1	44.4	38.5
	동남권	10.3	33.9	55.7
	강원권	8.7	32.6	58.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7.3	43.6	39.1
	300~500만 원 미만	16.9	31.6	51.5
	500~700만 원 미만	9.5	36.0	54.5
	700만 원 이상	13.9	27.8	58.3
가구원 수	1인	20.3	31.5	48.3
	2인 이상	13.0	35.8	51.2
전체(청소년)		13.7	38.8	47.5
연령	초등학생	17.7	39.9	42.4
	중학생	9.0	42.8	48.3
	고등학생	14.3	33.7	52.0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7〉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5.8	41.8	42.4
성별	남성	17.8	44.7	37.5
	여성	13.8	38.9	47.4
연령	19~29세	18.8	44.1	37.1
	30대	22.6	40.9	36.6
	40대	13.3	42.9	43.8
	50대	11.1	41.0	47.9
	60대 이상	14.4	40.3	45.3
권역	수도권	11.1	43.0	45.9
	충청권	21.9	39.9	38.2
	호남권	15.2	46.8	38.0
	대경권	20.5	45.3	34.2
	동남권	11.5	38.5	50.0
	강원권	30.4	26.1	43.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4.3	38.6	37.1
	300~500만 원 미만	14.2	42.8	43.1
	500~700만 원 미만	12.0	43.6	44.4
	700만 원 이상	17.6	38.9	43.5
가구원 수	1인	21.7	39.9	38.5
	2인 이상	14.8	42.1	43.1
전체(청소년)		23.4	44.9	31.7
연령	초등학생	28.6	50.2	21.2
	중학생	19.4	46.8	33.8
	고등학생	22.1	37.4	40.5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8〉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5.1	39.6	45.3
성별	남성	16.0	39.1	44.9
	여성	14.2	40.1	45.7
연령	19~29세	23.1	37.6	39.2
	30대	16.7	38.7	44.6
	40대	12.4	42.9	44.8
	50대	14.3	38.7	47.0
	60대 이상	10.0	39.8	50.2
권역	수도권	12.7	38.2	49.0
	충청권	19.1	36.5	44.4
	호남권	14.6	47.4	38.0
	대경권	21.4	35.0	43.6
	동남권	10.9	41.4	47.7
	강원권	17.4	37.0	45.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0.8	38.6	40.6
	300~500만 원 미만	10.2	42.5	47.3
	500~700만 원 미만	14.8	39.1	46.1
	700만 원 이상	20.4	34.3	45.4
가구원 수	1인	18.9	39.9	41.3
	2인 이상	14.5	39.6	46.0
전체(청소년)		18.4	48.1	33.6
연령	초등학생	24.8	49.0	26.2
	중학생	14.4	55.2	30.3
	고등학생	15.8	39.8	44.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29〉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아침식사를 꼭 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31.0	23.8	45.2
성별	남성	30.2	21.5	48.2
	여성	31.8	26.1	42.1
연령	19~29세	47.8	23.1	29.0
	30대	45.7	21.5	32.8
	40대	29.0	26.7	44.3
	50대	24.4	28.6	47.0
	60대 이상	10.9	18.4	70.6
권역	수도권	27.7	28.3	43.9
	충청권	23.6	22.5	53.9
	호남권	36.3	24.0	39.8
	대경권	43.6	19.7	36.8
	동남권	29.9	20.1	50.0
	강원권	34.8	21.7	43.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5.6	21.3	43.1
	300~500만 원 미만	28.9	24.4	46.7
	500~700만 원 미만	29.1	26.0	45.0
	700만 원 이상	35.2	19.4	45.4
가구원 수	1인	48.3	30.8	21.0
	2인 이상	28.1	22.6	49.2
전체(청소년)		24.0	22.8	53.2
연령	초등학생	28.1	20.3	51.5
	중학생	19.7	21.2	59.1
	고등학생	24.4	26.9	48.8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30〉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6.2	34.4	59.4
성별	남성	7.5	39.3	53.2
	여성	4.9	29.4	65.8
연령	19~29세	5.9	43.0	51.1
	30대	8.6	43.5	47.8
	40대	6.7	31.9	61.4
	50대	5.5	28.6	65.9
	60대 이상	4.5	26.9	68.7
권역	수도권	7.0	30.6	62.4
	충청권	5.1	42.1	52.8
	호남권	7.6	36.3	56.1
	대경권	8.5	35.0	56.4
	동남권	3.4	33.9	62.6
	강원권	4.3	23.9	7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9	31.2	60.9
	300~500만 원 미만	7.5	37.0	55.4
	500~700만 원 미만	4.7	36.3	58.9
	700만 원 이상	3.7	25.9	70.4
가구원 수	1인	9.1	37.1	53.8
	2인 이상	5.7	34.0	60.3
전체(청소년)		5.0	38.0	57.0
연령	초등학생	3.9	44.3	51.7
	중학생	6.0	40.3	53.7
	고등학생	5.1	29.1	65.8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31〉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8.7	37.9	53.4
성별	남성	9.5	43.9	46.6
	여성	7.9	31.8	60.3
연령	19~29세	12.4	35.5	52.2
	30대	9.1	40.3	50.5
	40대	7.1	37.6	55.2
	50대	7.4	35.9	56.7
	60대 이상	8.0	40.3	51.7
권역	수도권	5.4	38.2	56.4
	충청권	7.3	37.1	55.6
	호남권	14.0	44.4	41.5
	대경권	12.8	44.4	42.7
	동남권	5.2	31.6	63.2
	강원권	19.6	21.7	58.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4	38.6	47.0
	300~500만 원 미만	9.0	37.7	53.3
	500~700만 원 미만	5.3	38.5	56.1
	700만 원 이상	8.3	35.2	56.5
가구원 수	1인	11.9	35.7	52.4
	2인 이상	8.2	38.3	53.6
전체(청소년)		7.2	42.5	50.3
연령	초등학생	5.9	44.8	49.3
	중학생	9.5	44.8	45.8
	고등학생	6.1	37.8	56.1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32〉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2.3	37.9	49.8
성별	남성	13.2	39.9	46.8
	여성	11.3	35.8	52.8
연령	19~29세	11.3	39.2	49.5
	30대	10.8	41.9	47.3
	40대	9.0	40.5	50.5
	50대	11.5	33.6	54.8
	60대 이상	18.9	34.8	46.3
권역	수도권	13.1	37.3	49.7
	충청권	7.9	38.8	53.4
	호남권	20.5	42.1	37.4
	대경권	16.2	43.6	40.2
	동남권	5.7	33.3	60.9
	강원권	8.7	26.1	65.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9.3	37.1	43.6
	300~500만 원 미만	12.7	39.2	48.2
	500~700만 원 미만	9.2	38.0	52.8
	700만 원 이상	8.3	35.2	56.5
가구원 수	1인	9.8	35.7	54.5
	2인 이상	12.7	38.3	49.0
전체(청소년)		10.0	44.4	45.6
연령	초등학생	8.4	48.0	43.6
	중학생	8.5	44.3	47.3
	고등학생	13.3	40.8	45.9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33〉 성인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술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6.2	34.4	49.4
성별	남성	21.1	37.9	40.9
	여성	11.1	30.8	58.1
연령	19~29세	18.3	40.3	41.4
	30대	18.3	39.8	41.9
	40대	14.3	38.1	47.6
	50대	12.9	30.0	57.1
	60대 이상	17.9	24.9	57.2
권역	수도권	19.7	30.6	49.7
	충청권	20.2	35.4	44.4
	호남권	12.3	35.7	52.0
	대경권	12.0	43.6	44.4
	동남권	10.3	35.1	54.6
	강원권	23.9	26.1	5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8	27.2	54.0
	300~500만 원 미만	16.9	38.6	44.6
	500~700만 원 미만	14.0	36.0	50.0
	700만 원 이상	16.7	29.6	53.7
가구원 수	1인	20.3	38.5	41.3
	2인 이상	15.5	33.7	50.8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청소년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지침으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만 포함함.

3)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34〉 성인·청소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관련 항목 실천율(‘나는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2.7	46.6	40.7
성별	남성	14.4	49.8	35.8
	여성	10.9	43.3	45.7
연령	19~29세	22.0	44.6	33.3
	30대	16.1	52.7	31.2
	40대	9.5	46.7	43.8
	50대	8.8	44.2	47.0
	60대 이상	8.5	45.3	46.3
권역	수도권	15.0	48.4	36.6
	충청권	8.4	41.6	50.0
	호남권	15.8	48.5	35.7
	대경권	12.8	53.0	34.2
	동남권	4.6	45.4	50.0
	강원권	32.6	34.8	32.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9.3	46.5	34.2
	300~500만 원 미만	10.8	50.6	38.6
	500~700만 원 미만	10.9	43.0	46.1
	700만 원 이상	12.0	46.3	41.7
가구원 수	1인	21.7	43.4	35.0
	2인 이상	11.2	47.1	41.7
전체(청소년)		14.8	50.7	34.5
연령	초등학생	14.8	57.1	28.1
	중학생	13.4	46.3	40.3
	고등학생	16.3	48.5	35.2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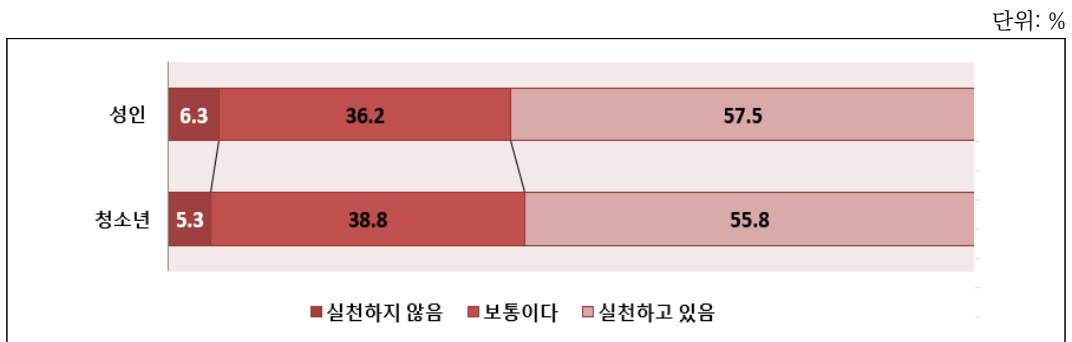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2.1.3. 한국형 식생활 실천 현황

- 평소 밥과 여러 종류의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는 성인의 비중은 57.5%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청소년도 55.8%로 높은 편임.
 - 성인의 경우 한국형 식생활 실천 수준은 여성(61.1%), 60대 이상(67.7%), 호남권(63.7%),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66.7%)에서 큰 편임.
 - 청소년의 경우 한국형 식생활 실천 수준은 초등학생(59.1%)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성인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0.6%p)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은 전년 대비 5.4p가 감소함.
 - 성인은 한국형 식생활 실천 비중이 연도별로 50~60%대 수준이며, 청소년은 대체로 40~50%대 수준임.

〈그림 3-17〉 성인·청소년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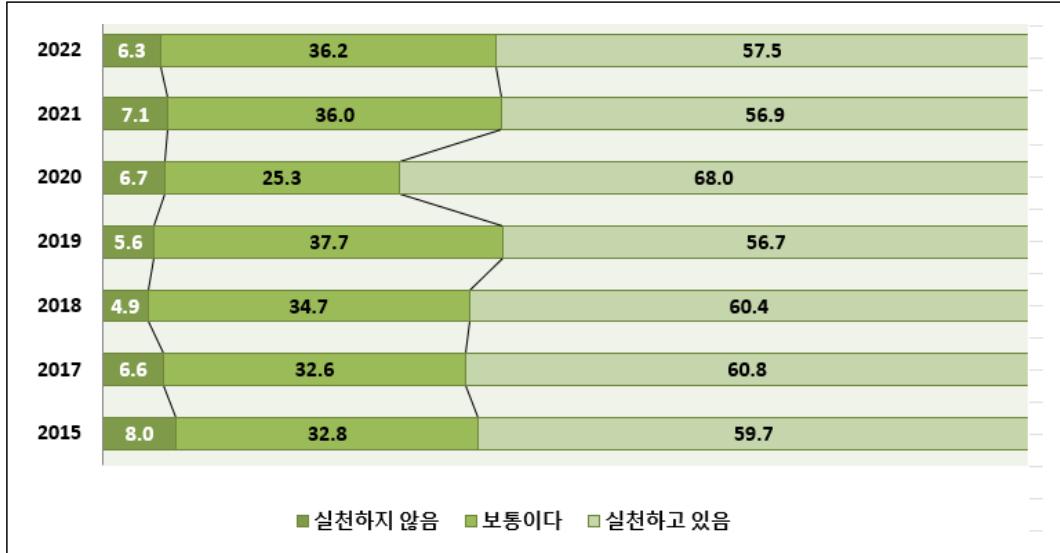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하고 있음'과 '5=매우 실천하고 있음'을 포함함.

〈그림 3-18〉 성인의 연도별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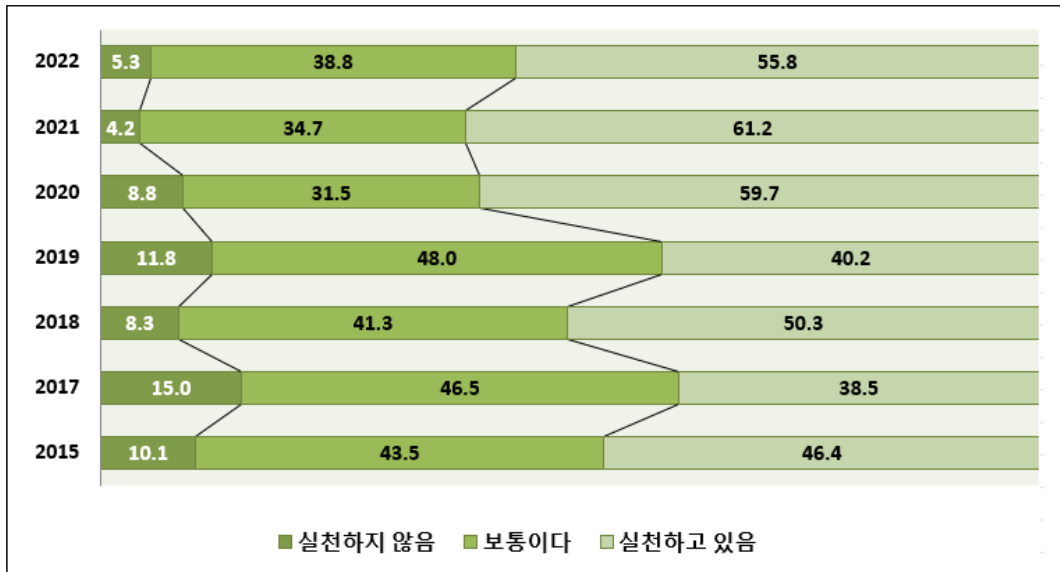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하고 있음'과 '5=매우 실천하고 있음'을 포함함.

〈그림 3-19〉 청소년의 연도별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비교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하고 있음'과 '5=매우 실천하고 있음'을 포함함.

〈표 3-35〉 성인·청소년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도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6.3	36.2	57.5
성별	남성	6.1	39.9	54.0
	여성	6.5	32.4	61.1
연령	19~29세	11.3	45.7	43.0
	30대	8.6	47.8	43.5
	40대	3.8	31.9	64.3
	50대	4.1	30.0	65.9
	60대 이상	4.5	27.9	67.7
권역	수도권	10.2	32.2	57.6
	충청권	3.9	36.5	59.6
	호남권	5.8	30.4	63.7
	대경권	4.3	52.1	43.6
	동남권	2.9	39.1	58.0
가구 소득	강원권	8.7	32.6	58.7
	300만 원 미만	7.9	45.5	46.5
	300~500만 원 미만	8.1	38.9	53.0
	500~700만 원 미만	4.5	30.4	65.1
가구원 수	700만 원 이상	3.7	29.6	66.7
	1인	11.9	55.2	32.9
	2인 이상	5.4	33.0	61.6
전체(청소년)		5.3	38.8	55.8
연령	초등학생	4.4	36.5	59.1
	중학생	5.0	39.8	55.2
	고등학생	6.6	40.3	53.1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2.2. 식생활 교육 및 정책

2.2.1. 식생활 교육 및 체험 경험

○ 성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중이 15.4%였으며,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59.7%였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경험한 성인의 비중은 전년 대비 5.3%p가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경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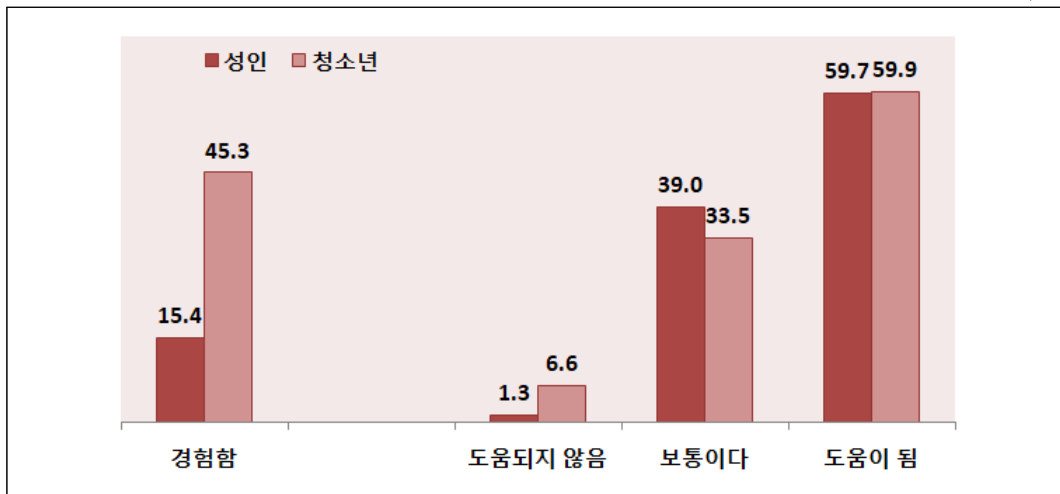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여성(17.8%), 30~40대(18%대), 호남권(26.3%),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19.3%)에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성인 비중은 여성(70.5%), 19~29세(67.9%), 호남권(80.0%),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약 71~73%)에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의 경우 최근 3년간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중이 45.3%로 성인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성인과 유사한 59.9% 수준이었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중이 전년 대비 8.1%p가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경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년 대비 7.4%p 감소함.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청소년 비중은 초등학생(47.8%)과 중학생(50.2%)이 고등학생(37.8%)에 비해 큰 편임. 그러나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고등학생이 63.5%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그림 3-20〉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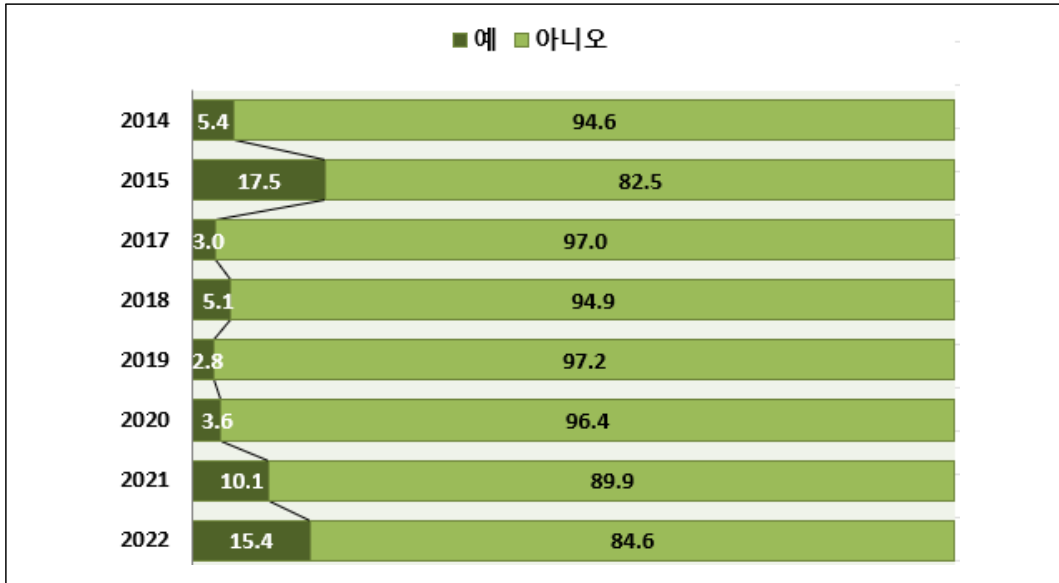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 2)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는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도움되지 않음'은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도움이 됨'은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그림 3-21〉 성인의 연도별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경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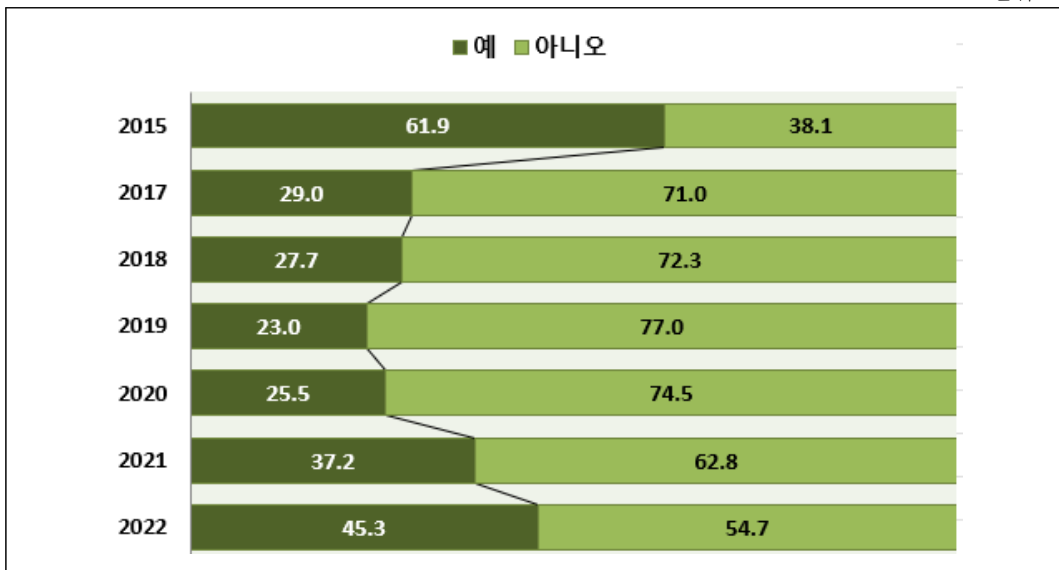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2014~2019년은 설문조사 시점까지의 경험, 2020년은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그림 3-22〉 청소년의 연도별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경험 비교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2015~2019년은 설문조사 시점까지의 경험, 2020년은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표 3-36〉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성인)		15.4	84.6
성별	남성	13.0	87.0
	여성	17.8	82.2
연령	19~29세	15.1	84.9
	30대	18.8	81.2
	40대	18.1	81.9
	50대	8.8	91.2
	60대 이상	16.9	83.1
권역	수도권	19.1	80.9
	충청권	12.9	87.1
	호남권	26.3	73.7
	대경권	7.7	92.3
	동남권	5.2	94.8
	강원권	17.4	82.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4	88.6
	300~500만 원 미만	13.6	86.4
	500~700만 원 미만	19.3	80.7
	700만 원 이상	15.7	84.3
가구원 수	1인	7.7	92.3
	2인 이상	16.7	83.3
전체(청소년)		45.3	54.7
연령	초등학생	47.8	52.2
	중학생	50.2	49.8
	고등학생	37.8	62.2

주 1)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2)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37〉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3	39.0	59.7
성별	남성	1.5	53.0	45.5
	여성	1.1	28.4	70.5
연령	19~29세	3.6	28.6	67.9
	30대	0.0	37.1	62.9
	40대	2.6	44.7	52.6
	50대	0.0	36.8	63.2
	60대 이상	0.0	44.1	55.9
권역	수도권	0.0	46.7	53.3
	충청권	4.3	52.2	43.5
	호남권	0.0	20.0	80.0
	대경권	0.0	33.3	66.7
	동남권	0.0	44.4	55.6
	강원권	12.5	50.0	37.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56.5	43.5
	300~500만 원 미만	2.2	53.3	44.4
	500~700만 원 미만	1.4	26.1	72.5
	700만 원 이상	0.0	29.4	70.6
가구원 수	1인	9.1	27.3	63.6
	2인 이상	0.7	39.9	59.4
전체(청소년)		6.6	33.5	59.9
연령	초등학생	9.3	35.1	55.7
	중학생	6.9	31.7	61.4
	고등학생	2.7	33.8	63.5

주 1)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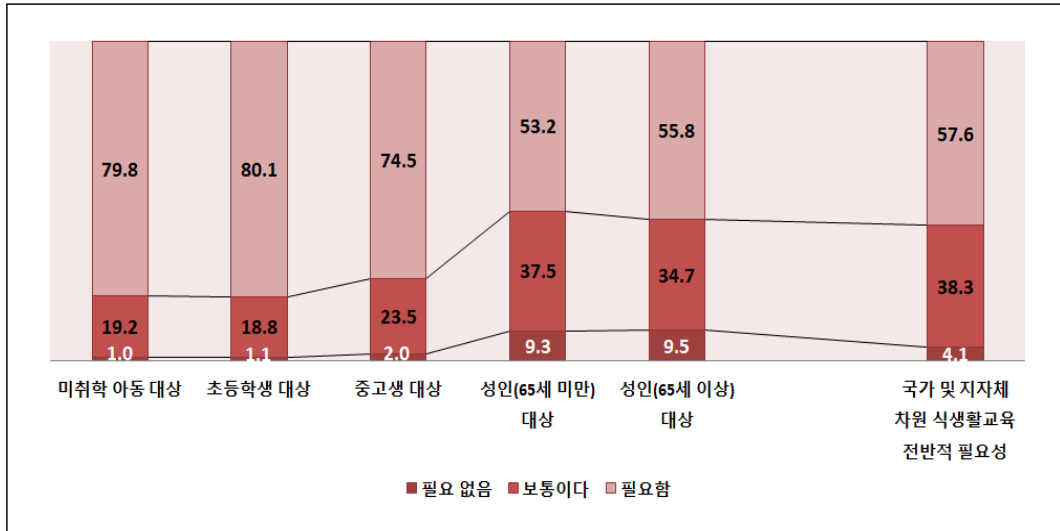
2.2.2.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식과 평가

가)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과 충분성

- 성인의 57.6%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식생활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46.4%로 조사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전년 대비 3.9%p가 감소하였으며, 충분성에 관한 인식은 전년 대비 8.1%p가 증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59.9%로 남성에 비해 4.6%p가 높았으며, 이밖에 40대 이상(60~61%대), 대경권과 동남권(65% 내외),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60.6%), 2인 이상 가구(59.0%)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의 충분성은 여성(47.6%), 40대(51.0%), 동남권(56.9%),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52.2%), 2인 이상 가구(4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성인의 경우 대상별로 미취학 아동(79.8%), 초등학생(80.1%), 중고생(74.5%) 대상 식생활교육이 약 75~80%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성인 대상 식생활교육의 경우 65세 미만(53.2%), 65세 이상(55.8%)은 50%대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
- 성인의 경우 대상별로 미취학 아동(42.3%), 초등학생(42.2%), 중고생(33.4%) 대상 식생활교육의 충분성은 30~40%대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대상 식생활교육의 충분성은 65세 미만(21.9%)과 65세 이상(24.0%)은 2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 3-23〉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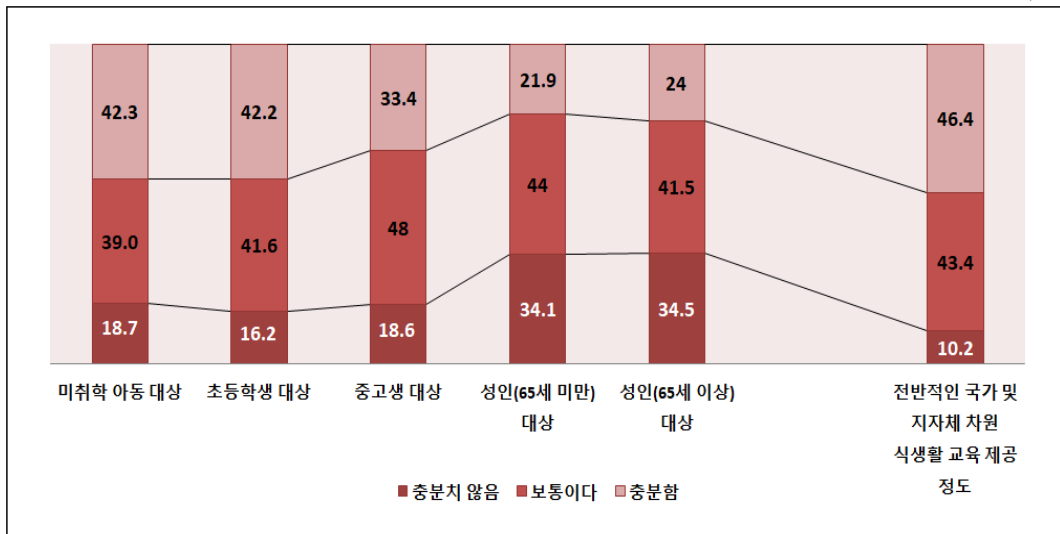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그림 3-24〉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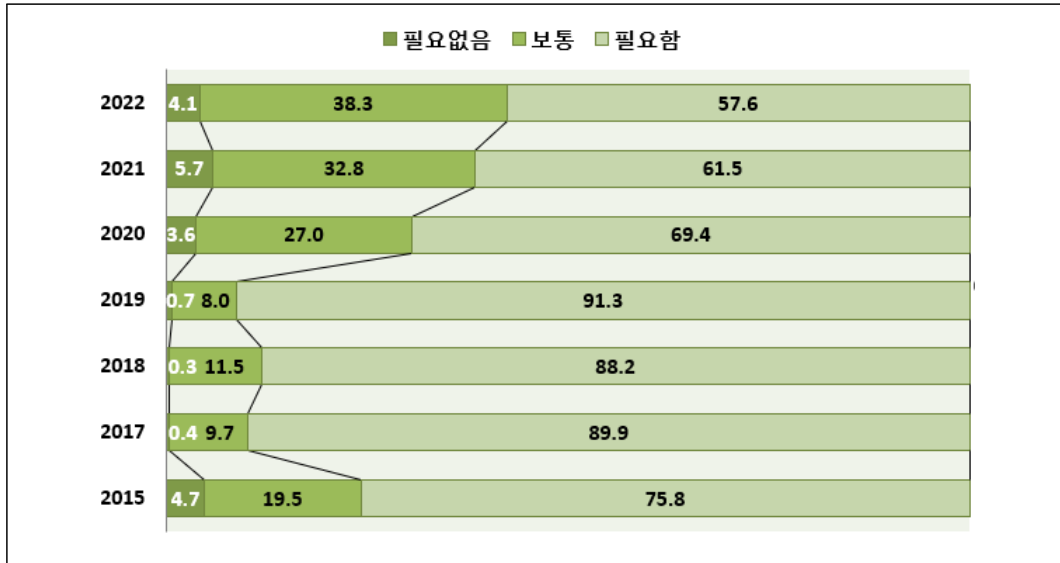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그림 3-25〉 성인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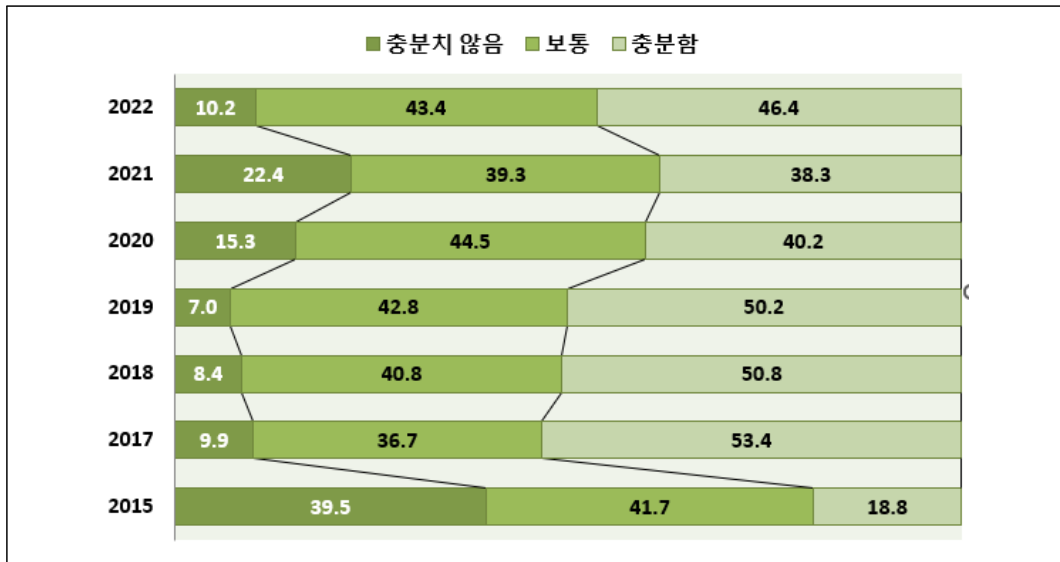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없음'은 '1=전혀 필요없음'과 '2=필요없음', '보통'은 '3=보통',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그림 3-26〉 성인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비교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은 '3=보통',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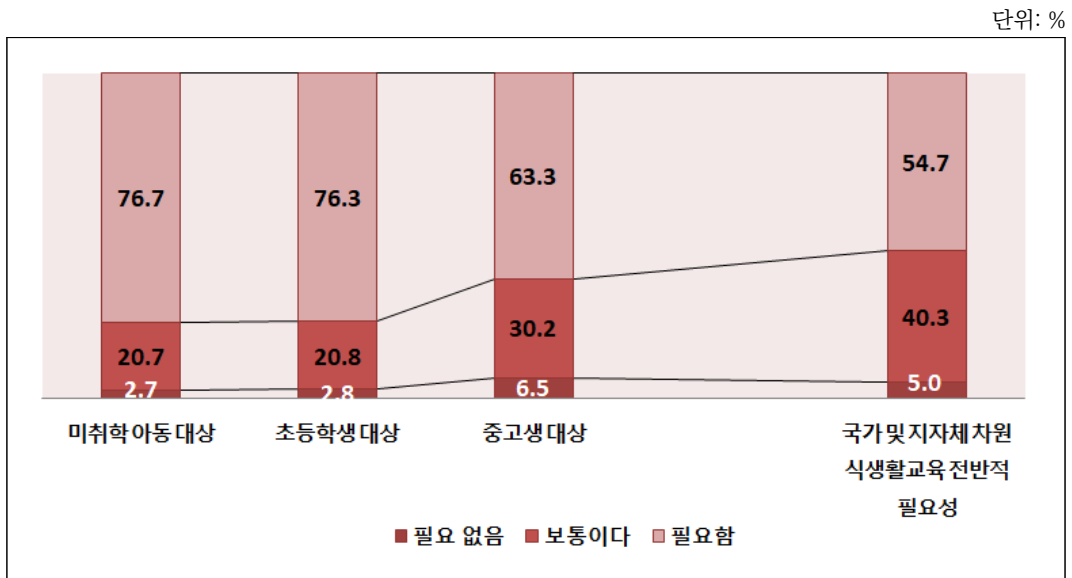
○ 청소년의 54.7%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식생활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47.0%로 상대적으로 작았음.

- 학교급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은 고등학생이 59.7%, 충분성은 중학생이 51.2%로 높게 평가함.

- 청소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생활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년 대비 5.1%p가 감소하였으며, 충분성은 7.5%p가 증가함.

○ 청소년의 경우 미취학 아동(76.7%), 초등학생(76.3%), 중고생(63.3%) 순으로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큰 대상으로 평가함. 또한 대상별 식생활교육의 충분성은 미취학 아동(45.3%), 초등학생(43.2%), 중고생(34.3%) 순으로 크다고 평가함.

〈그림 3-27〉 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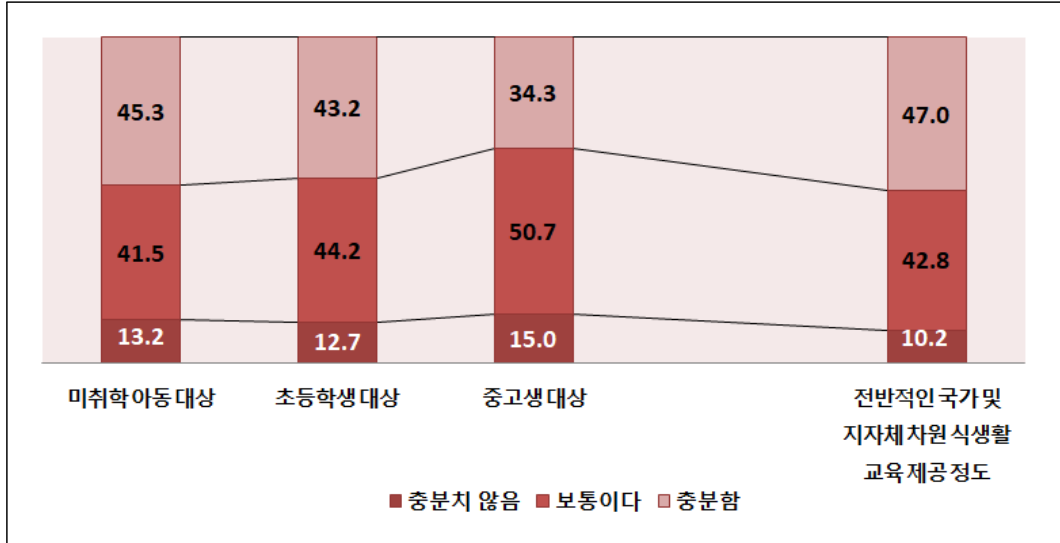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그림 3-28〉 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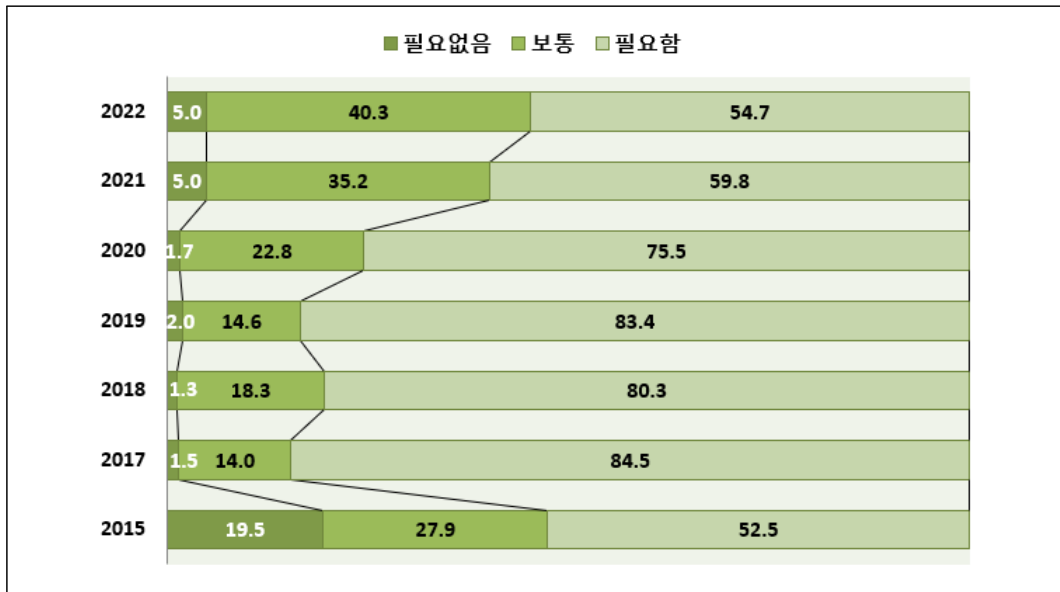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그림 3-29〉 청소년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필요성 평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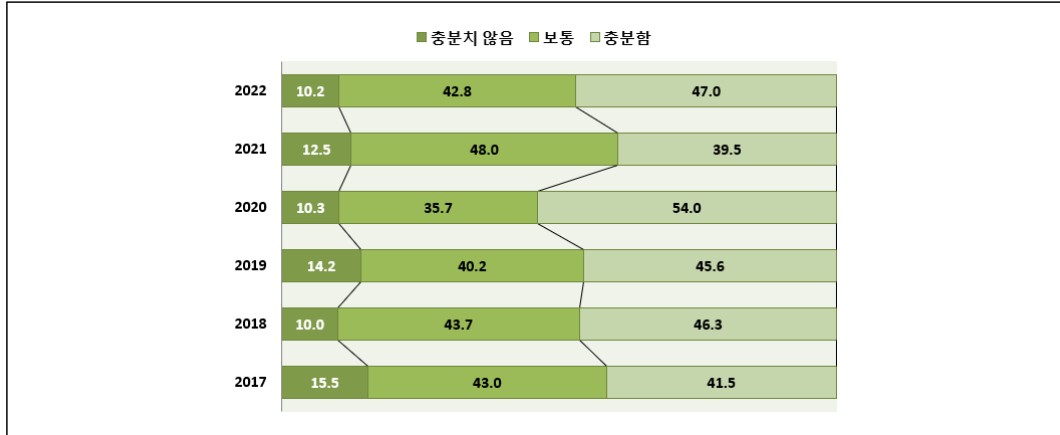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없음'은 '1=전혀 필요없음'과 '2=필요없음', '보통'은 '3=보통',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그림 3-30〉 청소년의 연도별 국가 및 지자체 식생활교육 충분성 평가 비교

단위: %



주 1) 2017~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은 '3=보통',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표 3-38〉 성인·청소년의 국가 및 지자체 차원 식생활교육의 전반적 필요성

단위: %

구분		필요 없음	보통이다	필요함
전체(성인)		4.1	38.3	57.6
성별	남성	4.3	40.3	55.3
	여성	3.8	36.2	59.9
연령	19~29세	3.8	41.9	54.3
	30대	4.3	44.6	51.1
	40대	2.9	37.1	60.0
	50대	5.5	33.2	61.3
	60대 이상	4.0	35.8	60.2
권역	수도권	3.2	41.7	55.1
	충청권	4.5	39.9	55.6
	호남권	7.0	40.9	52.0
	대경권	0.9	35.0	64.1
	동남권	2.9	31.6	65.5
가구 소득	강원권	10.9	32.6	56.5
	300만 원 미만	7.9	39.6	52.5
	300~500만 원 미만	3.9	39.2	56.9
	500~700만 원 미만	3.1	36.3	60.6
가구원 수	700만 원 이상	0.9	39.8	59.3
	1인	7.0	44.1	49.0
	2인 이상	3.6	37.3	59.0
전체(청소년)		5.0	40.3	54.7
연령	초등학생	4.4	48.3	47.3
	중학생	3.5	39.3	57.2
	고등학생	7.1	33.2	59.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표 3-39〉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미취학 아동 대상)

단위: %

구분		필요 없음	보통이다	필요함
전체(성인)		1.0	19.2	79.8
성별	남성	1.6	19.0	79.4
	여성	0.4	19.4	80.2
연령	19~29세	2.2	21.0	76.9
	30대	0.5	21.0	78.5
	40대	0.5	16.7	82.9
	50대	0.9	18.0	81.1
	60대 이상	1.0	19.9	79.1
권역	수도권	0.6	12.1	87.3
	충청권	0.6	15.7	83.7
	호남권	1.2	21.6	77.2
	대경권	1.7	32.5	65.8
	동남권	1.1	25.3	73.6
	강원권	2.2	15.2	82.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5	30.7	68.8
	300~500만 원 미만	1.8	15.7	82.5
	500~700만 원 미만	0.6	18.7	80.7
	700만 원 이상	0.9	10.2	88.9
가구원 수	1인	1.4	32.2	66.4
	2인 이상	0.9	17.0	82.0
전체(청소년)		2.7	20.7	76.7
연령	초등학생	3.0	20.7	76.4
	중학생	1.5	20.9	77.6
	고등학생	3.6	20.4	76.0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표 3-40〉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초등학생 대상)

단위: %

구분		필요 없음	보통이다	필요함
전체(성인)		1.1	18.8	80.1
성별	남성	1.4	19.4	79.2
	여성	0.8	18.2	81.0
연령	19~29세	2.7	18.3	79.0
	30대	0.5	19.9	79.6
	40대	1.0	15.2	83.8
	50대	0.9	19.4	79.7
	60대 이상	0.5	21.4	78.1
권역	수도권	0.3	13.1	86.6
	충청권	1.7	16.9	81.5
	호남권	2.3	18.1	79.5
	대경권	0.9	30.8	68.4
	동남권	0.6	27.0	72.4
	강원권	2.2	6.5	91.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0	23.8	74.3
	300~500만 원 미만	1.2	17.8	81.0
	500~700만 원 미만	0.6	18.4	81.0
	700만 원 이상	0.9	13.9	85.2
가구원 수	1인	1.4	28.0	70.6
	2인 이상	1.1	17.3	81.7
전체(청소년)		2.8	20.8	76.3
연령	초등학생	3.0	25.1	71.9
	중학생	2.0	21.9	76.1
	고등학생	3.6	15.3	81.1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표 3-41〉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중고생 대상)

단위: %

구분		필요 없음	보통이다	필요함
전체(성인)		2.0	23.5	74.5
성별	남성	1.8	24.1	74.1
	여성	2.2	22.9	74.9
연령	19~29세	2.7	28.5	68.8
	30대	2.7	26.9	70.4
	40대	1.9	14.8	83.3
	50대	1.8	20.3	77.9
	60대 이상	1.0	28.4	70.6
권역	수도권	1.6	15.9	82.5
	충청권	2.2	30.3	67.4
	호남권	2.9	25.1	71.9
	대경권	2.6	26.5	70.9
	동남권	1.7	27.6	70.7
	강원권	0.0	19.6	80.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5	31.2	66.3
	300~500만 원 미만	2.1	22.6	75.3
	500~700만 원 미만	2.2	22.3	75.4
	700만 원 이상	0.0	15.7	84.3
가구원 수	1인	4.9	31.5	63.6
	2인 이상	1.5	22.2	76.3
전체(청소년)		6.5	30.2	63.3
연령	초등학생	5.9	31.0	63.1
	중학생	4.0	34.3	61.7
	고등학생	9.7	25.0	65.3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표 3-42〉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성인 65세 미만 대상)

단위: %

구분		필요 없음	보통이다	필요함
전체(성인)		9.3	37.5	53.2
성별	남성	12.3	37.9	49.8
	여성	6.3	37.0	56.7
연령	19~29세	10.8	41.9	47.3
	30대	11.3	39.8	48.9
	40대	10.0	37.1	52.9
	50대	6.0	34.1	59.9
	60대 이상	9.0	35.3	55.7
권역	수도권	8.9	40.4	50.6
	충청권	16.9	44.9	38.2
	호남권	4.7	31.0	64.3
	대경권	5.1	38.5	56.4
	동남권	9.8	31.0	59.2
	강원권	8.7	34.8	56.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9	36.6	54.5
	300~500만 원 미만	11.1	34.9	53.9
	500~700만 원 미만	8.9	38.8	52.2
	700만 원 이상	5.6	42.6	51.9
가구원 수	1인	11.9	41.3	46.9
	2인 이상	8.9	36.9	54.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표 3-43〉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필요성(성인 65세 이상 대상)

단위: %

구분		필요 없음	보통이다	필요함
전체(성인)		9.5	34.7	55.8
성별	남성	12.8	33.4	53.8
	여성	6.1	36.0	57.9
연령	19~29세	10.2	39.2	50.5
	30대	12.9	34.9	52.2
	40대	9.0	31.0	60.0
	50대	7.4	34.1	58.5
	60대 이상	8.5	34.8	56.7
권역	수도권	10.8	36.0	53.2
	충청권	14.6	40.4	44.9
	호남권	5.8	30.4	63.7
	대경권	4.3	31.6	64.1
	동남권	9.8	35.1	55.2
	강원권	6.5	26.1	6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4	37.1	55.4
	300~500만 원 미만	9.0	33.4	57.5
	500~700만 원 미만	10.9	35.2	53.9
	700만 원 이상	10.2	32.4	57.4
가구원 수	1인	11.2	38.5	50.3
	2인 이상	9.2	34.1	56.7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필요 없음'은 '1=전혀 필요 없음'과 '2=필요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필요함'은 '4=필요함'과 '5=매우 필요함'을 포함함.

〈표 3-44〉 성인·청소년의 국가 및 지자체 차원 식생활교육의 전반적 충분성

단위: %

구분		충분치 않음	보통이다	충분함
전체(성인)		10.2	43.4	46.4
성별	남성	10.1	44.7	45.3
	여성	10.3	42.1	47.6
연령	19~29세	9.7	48.4	41.9
	30대	10.8	45.7	43.5
	40대	10.0	39.0	51.0
	50대	11.5	40.1	48.4
	60대 이상	9.0	44.8	46.3
권역	수도권	8.3	50.3	41.4
	충청권	10.1	40.4	49.4
	호남권	15.8	40.9	43.3
	대경권	7.7	45.3	47.0
	동남권	7.5	35.6	56.9
	강원권	19.6	41.3	39.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2.4	49.5	38.1
	300~500만 원 미만	10.8	41.3	47.9
	500~700만 원 미만	8.9	38.8	52.2
	700만 원 이상	8.3	53.7	38.0
가구원 수	1인	11.9	51.7	36.4
	2인 이상	9.9	42.0	48.1
전체(청소년)		10.2	42.8	47.0
연령	초등학생	7.9	48.3	43.8
	중학생	9.5	39.3	51.2
	고등학생	13.3	40.8	45.9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표 3-45〉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미취학 아동 대상)

단위: %

구분		충분치 않음	보통이다	충분함
전체(성인)		18.7	39.0	42.3
성별	남성	20.0	37.5	42.5
	여성	17.4	40.5	42.1
연령	19~29세	18.8	41.9	39.2
	30대	22.0	37.6	40.3
	40대	18.6	37.6	43.8
	50대	20.3	35.0	44.7
	60대 이상	13.9	43.3	42.8
권역	수도권	16.2	36.3	47.5
	충청권	14.6	39.3	46.1
	호남권	20.5	38.6	40.9
	대경권	13.7	49.6	36.8
	동남권	24.7	33.3	42.0
	강원권	34.8	52.2	13.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8	46.5	34.7
	300~500만 원 미만	20.8	36.4	42.8
	500~700만 원 미만	16.5	35.5	48.0
	700만 원 이상	19.4	44.4	36.1
가구원 수	1인	19.6	52.4	28.0
	2인 이상	18.6	36.8	44.7
전체(청소년)		13.2	41.5	45.3
연령	초등학생	11.8	44.3	43.8
	중학생	12.9	41.8	45.3
	고등학생	14.8	38.3	46.9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표 3-46〉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초등학생 대상)

단위: %

구분		충분치 않음	보통이다	충분함
전체(성인)		16.2	41.6	42.2
성별	남성	17.0	39.1	43.9
	여성	15.4	44.1	40.5
연령	19~29세	16.7	39.8	43.5
	30대	16.1	41.4	42.5
	40대	18.6	40.5	41.0
	50대	16.6	40.1	43.3
	60대 이상	12.9	46.3	40.8
권역	수도권	12.7	36.6	50.6
	충청권	15.2	45.5	39.3
	호남권	17.0	40.4	42.7
	대경권	14.5	49.6	35.9
	동남권	20.1	39.1	40.8
	강원권	30.4	54.3	15.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6.3	47.5	36.1
	300~500만 원 미만	19.0	40.1	41.0
	500~700만 원 미만	13.4	39.7	46.9
	700만 원 이상	16.7	41.7	41.7
가구원 수	1인	15.4	49.7	35.0
	2인 이상	16.3	40.3	43.4
전체(청소년)		12.7	44.2	43.2
연령	초등학생	13.8	44.3	41.9
	중학생	11.9	46.8	41.3
	고등학생	12.2	41.3	46.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표 3-47〉 성인·청소년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중고생 대상)

단위: %

구분		충분치 않음	보통이다	충분함
전체(성인)		18.6	48.0	33.4
성별	남성	18.8	47.6	33.6
	여성	18.4	48.4	33.2
연령	19~29세	22.0	48.9	29.0
	30대	21.0	50.0	29.0
	40대	18.6	49.5	31.9
	50대	18.9	41.5	39.6
	60대 이상	12.9	50.7	36.3
권역	수도권	19.1	49.4	31.5
	충청권	13.5	54.5	32.0
	호남권	21.1	39.8	39.2
	대경권	17.1	43.6	39.3
	동남권	19.0	48.3	32.8
	강원권	28.3	54.3	1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9.3	54.0	26.7
	300~500만 원 미만	18.4	48.8	32.8
	500~700만 원 미만	17.3	43.3	39.4
	700만 원 이상	22.2	50.0	27.8
가구원 수	1인	23.1	51.7	25.2
	2인 이상	17.9	47.4	34.8
전체(청소년)		15.0	50.7	34.3
연령	초등학생	15.8	52.2	32.0
	중학생	10.4	54.2	35.3
	고등학생	18.9	45.4	35.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표 3-48〉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성인 65세 미만 대상)

단위: %

구분		충분치 않음	보통이다	충분함
전체(성인)		34.1	44.0	21.9
성별	남성	37.2	42.1	20.8
	여성	31.0	46.0	23.1
연령	19~29세	37.1	47.3	15.6
	30대	37.6	38.2	24.2
	40대	34.8	43.3	21.9
	50대	32.7	43.8	23.5
	60대 이상	28.9	47.3	23.9
권역	수도권	44.9	40.4	14.6
	충청권	19.7	46.6	33.7
	호남권	35.1	45.0	19.9
	대경권	31.6	48.7	19.7
	동남권	27.0	44.3	28.7
	강원권	45.7	41.3	13.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2.7	50.5	16.8
	300~500만 원 미만	34.6	44.6	20.8
	500~700만 원 미만	29.3	42.7	27.9
	700만 원 이상	50.9	34.3	14.8
가구원 수	1인	36.4	45.5	18.2
	2인 이상	33.7	43.8	22.5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표 3-49〉 성인의 대상별 식생활교육 충분성(성인 65세 이상 대상)

단위: %

구분		충분치 않음	보통이다	충분함
전체(성인)		34.5	41.5	24.0
성별	남성	36.6	41.5	21.9
	여성	32.4	41.5	26.1
연령	19~29세	36.0	44.6	19.4
	30대	33.9	39.8	26.3
	40대	38.1	40.0	21.9
	50대	34.6	40.1	25.3
	60대 이상	29.9	43.3	26.9
권역	수도권	44.6	42.4	13.1
	충청권	20.2	41.0	38.8
	호남권	37.4	37.4	25.1
	대경권	30.8	46.2	23.1
	동남권	26.4	42.5	31.0
	강원권	50.0	37.0	13.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2.2	47.0	20.8
	300~500만 원 미만	35.5	41.6	22.9
	500~700만 원 미만	30.7	39.7	29.6
	700만 원 이상	48.1	37.0	14.8
가구원 수	1인	35.7	43.4	21.0
	2인 이상	34.3	41.2	24.5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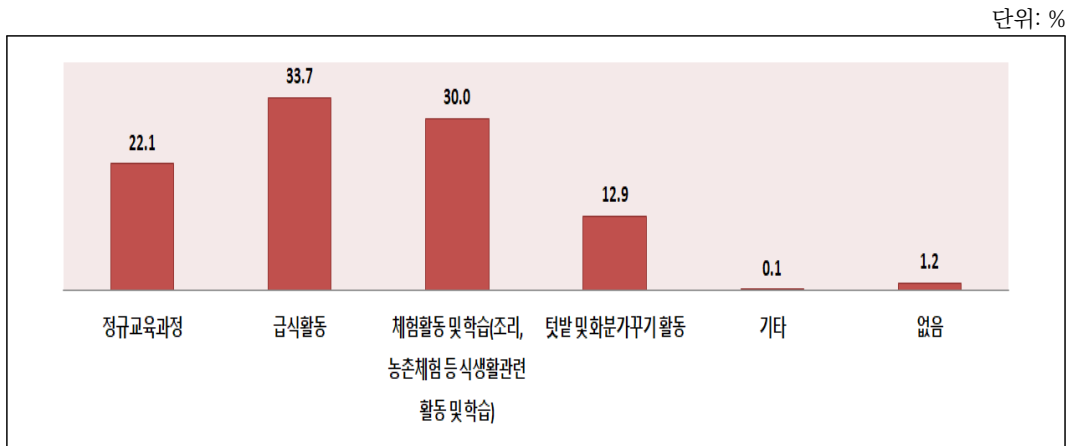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충분치 않음'은 '1=전혀 충분치 않음'과 '2=충분치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충분함'은 '4=충분함'과 '5=매우 충분함'을 포함함.

나)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연계

○ 성인은 어린이집·유치원의 다양한 과정 중에서 급식활동(33.7%)이 식생활교육과 연계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음. 다음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30.0%), 정규교육과정(22.1%) 순으로 효과가 크다고 평가함. 텃밭 및 화분 가꾸기 활동(12.9%)은 상대적으로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효과를 낮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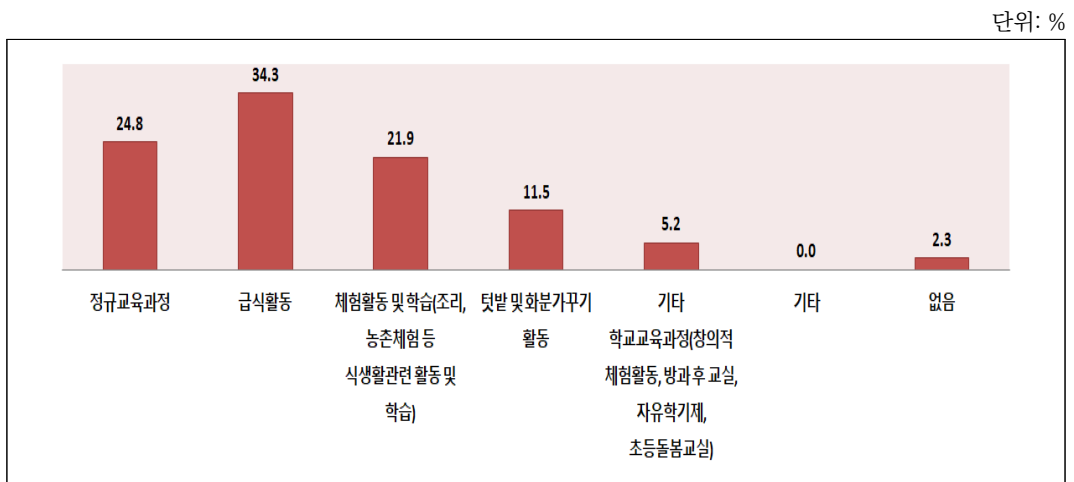
○ 성인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급식활동(34.3%)을 식생활교육과 연계하면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음. 다음으로 정규교육과정(24.8%), 체험활동 및 학습(21.9%) 순으로 연계 효과가 크다고 평가함. 텃밭 및 화분 가꾸기 활동(11.5%)과 기타 학교교육 과정(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초등돌봄교실 등)(5.2%)은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 3-31〉 성인의 어린이집·유치원 식생활교육 연계 과정 효과 평가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32〉 성인의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연계 과정 효과 평가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50〉 성인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식생활교육과 연계하면 효과적인 과정

단위: %

구분		정규교육 과정	급식활동	체험활동 및 학습(조리, 농촌체험 등 식생활관련 활동 및 학습)	텃밭 및 화분가꾸기 활동	기타	없음
전체(성인)		22.1	33.7	30.0	12.9	0.1	1.2
성별	남성	23.7	33.3	30.1	11.9	0.1	0.8
	여성	20.5	34.0	29.9	13.9	0.0	1.6
연령	19~29세	22.2	34.4	30.1	13.0	0.4	0.0
	30대	23.1	33.0	30.1	12.7	0.0	1.1
	40대	24.3	31.9	29.3	13.5	0.0	1.0
	50대	18.9	36.4	30.5	11.9	0.0	2.3
	60대 이상	22.5	32.5	30.0	13.6	0.0	1.4
권역	수도권	17.2	35.6	35.0	12.2	0.0	0.0
	충청권	28.6	25.1	26.8	12.7	0.0	6.9
	호남권	28.3	38.4	25.3	8.0	0.0	0.0
	대경권	16.6	44.7	24.6	13.5	0.6	0.0
	동남권	20.9	25.3	34.0	19.9	0.0	0.0
	강원권	27.5	39.0	24.4	9.0	0.0	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2.6	33.3	29.5	13.6	0.4	0.7
	300~500만 원 미만	22.3	34.2	29.7	12.2	0.0	1.7
	500~700만 원 미만	23.0	34.1	28.6	13.0	0.0	1.4
	700만 원 이상	18.2	31.4	36.7	13.8	0.0	0.0
가구원 수	1인	25.0	32.2	30.0	11.7	0.5	0.5
	2인 이상	21.7	33.9	30.0	13.1	0.0	1.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7:3)를 적용한 결과임.

〈표 3-51〉 성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식생활교육과 연계하면 효과적인 과정

단위: %

구분	정규교육 과정	급식활동	체험활동 및 학습 (조리, 농촌 체험 등 식생활관련 활동 및 학습)	텃밭 및 화분가꾸기 활동	기타 학교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초등돌봄 교실)	기타	없음	
전체(성인)	24.8	34.3	21.9	11.5	5.2	0.0	2.3	
성별	남성	25.8	32.6	22.9	11.6	5.0	0.1	2.1
	여성	23.8	36.0	20.8	11.4	5.4	0.0	2.5
연령	19~29세	20.4	34.1	26.1	11.9	6.8	0.0	0.7
	30대	24.8	35.5	21.2	11.2	4.7	0.2	2.4
	40대	25.9	35.0	20.3	11.4	4.8	0.0	2.7
	50대	27.7	31.1	21.1	11.2	5.6	0.0	3.3
	60대 이상	24.9	36.0	21.1	11.9	4.0	0.0	2.1
권역	수도권	27.7	44.9	17.5	6.5	3.2	0.1	0.1
	충청권	23.5	26.5	19.0	12.3	6.3	0.0	12.5
	호남권	25.3	29.7	26.1	13.4	5.5	0.0	0.0
	대경권	19.1	44.6	21.7	9.0	4.8	0.0	0.9
	동남권	25.8	19.9	27.1	19.4	7.6	0.0	0.2
강원권	19.5	35.9	27.3	12.4	4.9	0.0	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2.7	35.4	21.8	12.6	5.8	0.2	1.6
	300~500만 원 미만	23.9	34.0	22.2	10.7	6.3	0.0	2.9
	500~700만 원 미만	25.6	33.0	21.5	13.1	4.0	0.0	2.8
	700만 원 이상	29.1	37.3	22.2	7.0	4.1	0.0	0.3
가구원 수	1인	20.9	33.2	25.0	11.9	6.5	0.2	2.2
	2인 이상	25.5	34.5	21.4	11.4	4.9	0.0	2.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7:3)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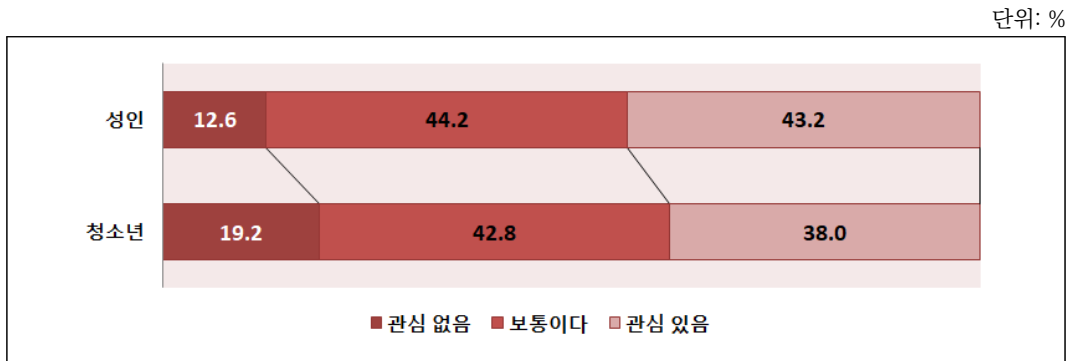
2.2.3.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의향

○ 성인의 43.2%가 식생활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은 이보다 5.2%p가 작은 38.0%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식생활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중은 전년 대비 4.6p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은 전년 대비 6.5%p 증가함.

- 성인의 경우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성(48.6%)이 남성(37.9%)에 비해 10.7%p 컸으며, 60대 이상(53.2%), 충청권(49.4%), 가구소득 300~700만 원 미만(45% 내외), 2인 이상 가구(45.3%)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39.9%)이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으며, 중학생(37.3%)과 고등학생(36.7%)은 37% 내외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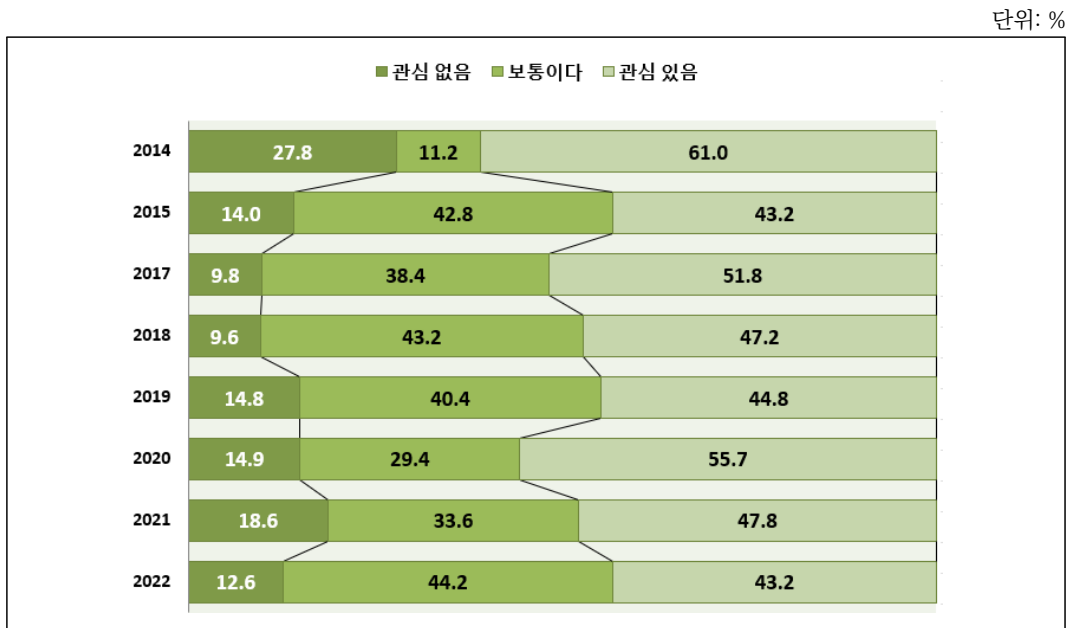
〈그림 3-33〉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관심도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그림 3-34〉 성인의 연도별 식생활교육 관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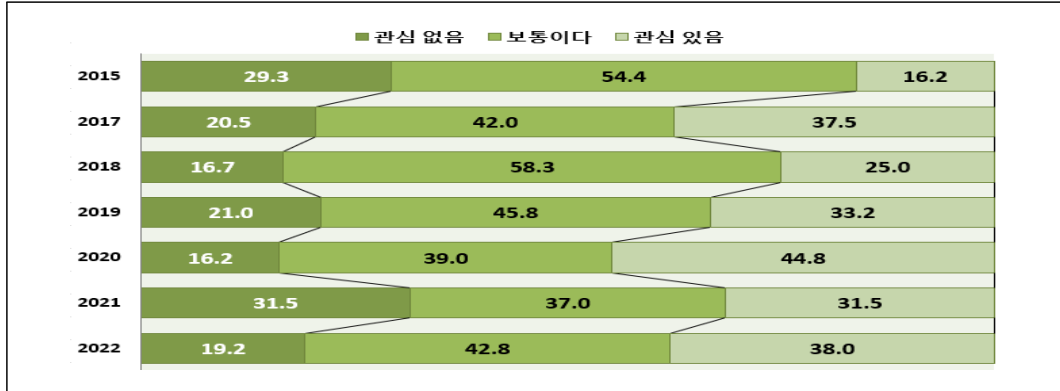


주 1) 2014~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그림 3-35〉 청소년의 연도별 식생활교육 관심도 비교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표 3-52〉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관심도

단위: %

구분		관심 없음	보통이다	관심 있음
전체(성인)		12.6	44.2	43.2
성별	남성	16.4	45.7	37.9
	여성	8.7	42.7	48.6
연령	19~29세	22.6	54.3	23.1
	30대	15.1	43.5	41.4
	40대	10.5	43.3	46.2
	50대	7.8	42.4	49.8
	60대 이상	8.5	38.3	53.2
권역	수도권	11.5	42.7	45.9
	충청권	10.7	39.9	49.4
	호남권	14.0	42.7	43.3
	대경권	9.4	60.7	29.9
	동남권	18.4	44.8	36.8
가구 소득	강원권	8.7	32.6	58.7
	300만 원 미만	12.9	50.0	37.1
	300~500만 원 미만	13.6	41.9	44.6
	500~700만 원 미만	12.0	42.2	45.8
가구원 수	700만 원 이상	11.1	47.2	41.7
	1인	20.3	49.0	30.8
	2인 이상	11.3	43.4	45.3
전체(청소년)		19.2	42.8	38.0
연령	초등학생	19.2	40.9	39.9
	중학생	13.9	48.8	37.3
	고등학생	24.5	38.8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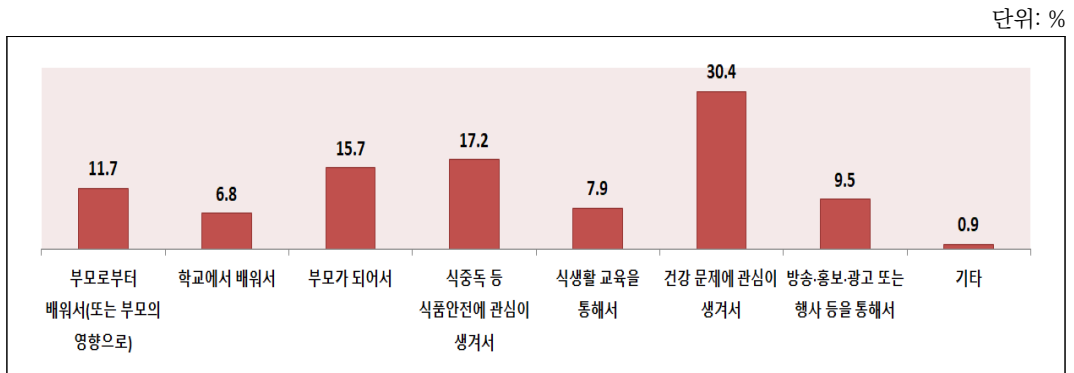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 성인은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주요 계기가 건강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30.4%)였으며, 이밖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관심이 생겨서(17.2%), 부모가 되어서(15.7%), 부모로부터 배워서(11.7%)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배워서(33.4%) 또는 부모로부터 배워서(부모의 영향으로)(24.7%) 식생활교육을 통해서(15.9%) 등의 이유로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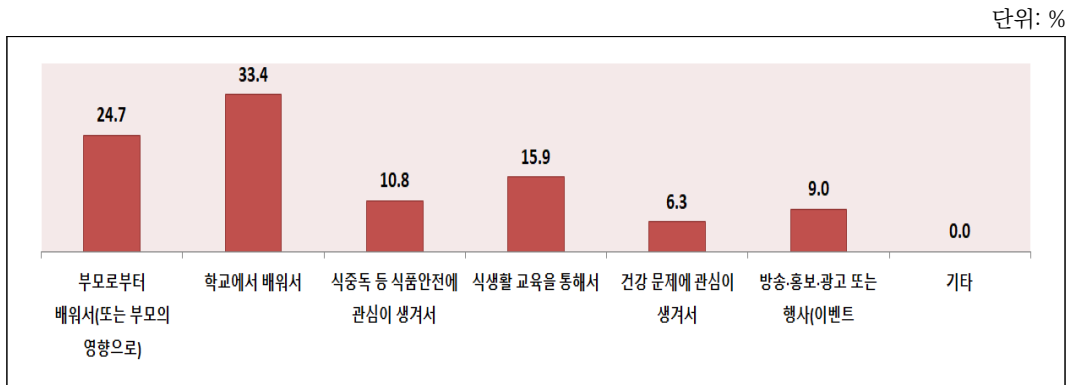
- 성인의 경우 건강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전년 대비 5.5%p 감소함.

〈그림 3-36〉 성인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37〉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53〉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단위: %

구분	부모로부터 배워서(또는 부모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배워서	부모가 되어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관심이 생겨서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건강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방송·홍보· 광고 또는 행사 등을 통해서	기타
성별	전체(성인)	11.7	6.8	15.7	17.2	7.9	30.4	9.5
	남성	12.3	7.0	15.4	16.8	7.5	30.7	9.6
연령	여성	11.1	6.5	15.9	17.5	8.3	30.2	9.4
	19~29세	23.6	12.5	1.4	16.8	5.8	26.0	12.0
	30대	14.5	9.0	18.8	16.1	8.2	22.4	9.8
	40대	10.4	5.8	24.5	16.3	8.6	27.6	6.4
	50대	7.1	5.2	14.5	19.4	7.4	36.7	8.6
지역	60대 이상	7.2	3.4	14.4	16.8	8.9	36.8	11.7
	수도권	12.7	3.3	16.8	21.8	7.5	27.2	10.6
	충청권	11.7	15.4	17.3	14.0	7.9	27.6	6.1
	호남권	14.2	13.8	17.5	18.8	6.3	26.7	2.9
	대경권	15.8	3.2	11.1	13.7	10.5	31.1	8.4
	동남권	4.7	2.4	12.3	12.8	8.1	39.8	19.9
	강원권	6.0	3.0	19.4	11.9	9.0	44.8	6.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8	7.4	12.2	11.8	9.2	36.5	8.5
	300~500만 원 미만	9.3	6.0	18.0	16.9	8.9	27.5	12.4
	500~700만 원 미만	12.9	7.4	15.1	20.5	6.6	30.4	7.0
	700만 원 이상	15.1	6.2	16.4	16.4	6.8	28.8	10.3
가구원 수	1인	13.7	8.2	5.5	15.8	9.8	29.5	13.7
	2인 이상	11.4	6.6	17.2	17.4	7.6	30.5	8.8
연령	전체(청소년)	24.7	33.4		10.8	15.9	6.3	9.0
	초등학교생	22.7	38.4		7.8	18.8	5.1	7.1
	중학생	28.0	33.3		11.5	13.4	6.1	7.7
	고등학생	22.9	27.5		13.3	15.6	7.8	12.8

주 1) 식생활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 성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는 식생활 교육 장소로 지역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등)(14.9%), 식생활교육전문기관(12.9%), 로컬푸드 직매장(12.5%), 농수축협마트(12.2%) 등을 선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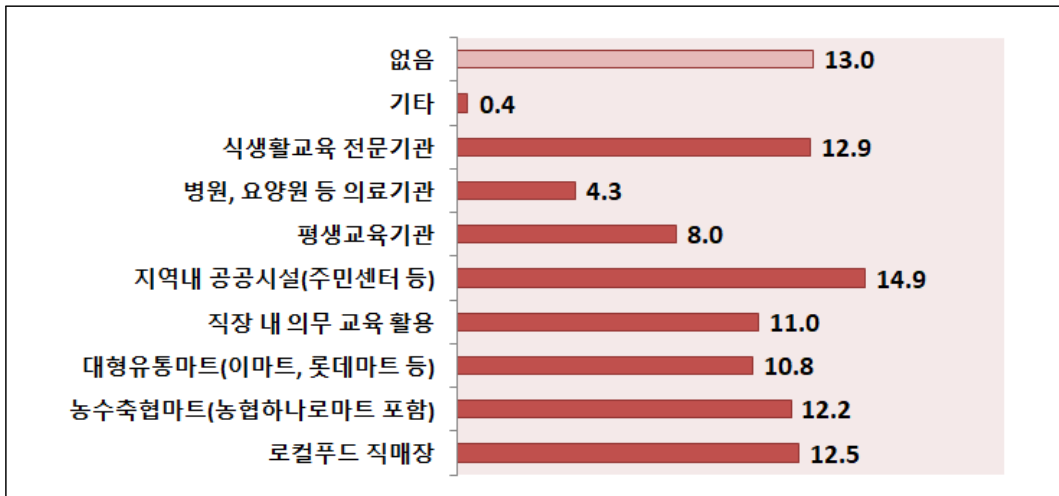
- 식생활교육 장소로 지역 내 공공시설을 선호하는 비중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14.9%로 동일하였고, 60대 이상(17.7%), 강원권(22.0%),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18.3%), 1인 가구(17.4%)에서 큰 편이었음.

- 식생활교육전문기관을 선호하는 비중은 여성(14.6%), 강원권(19.5%), 2인 이상 가구(13.3%)에서 큰 편이었음.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11.8%)을 제외하고는 가구소득별로 식생활교육전문기관의 식생활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대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실시하는 식생활교육 참여 의사는 호남권(18.6%),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14.2%), 농수축협마트는 남성(13.3%), 50대(16.4%), 호남권(19.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그림 3-38〉 성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식생활교육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54〉 성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식생활교육

단위: %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동수축협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포함)	대형유통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직장 내 의무 교육 활용	지역내 공공시설 (주민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식생활교육 전문기관	기타	없음
성별	전체(성인)	12.5	12.2	10.8	11.0	8.0	4.3	12.9	0.4	13.0
	남성	12.2	13.3	10.3	12.2	7.0	4.1	11.2	0.4	14.5
연령	여성	12.9	11.2	11.3	9.8	9.0	4.5	14.6	0.4	11.5
	19~29세	10.1	9.7	10.8	16.6	6.9	3.2	11.2	0.7	17.3
	30대	13.4	10.3	8.9	14.1	8.9	5.8	13.4	0.7	11.7
	40대	12.2	9.7	12.2	11.6	16.9	8.8	4.1	14.1	0.3
	50대	13.8	16.4	11.0	9.0	13.3	6.8	3.1	12.1	0.3
권역	60대 이상	12.8	14.3	10.7	4.9	8.5	5.2	13.4	0.0	12.5
	수도권	14.6	6.6	9.6	11.4	11.2	5.0	7.7	0.0	26.9
	충청권	8.1	11.6	17.3	12.3	14.1	11.6	3.5	0.0	8.1
	호남권	18.6	19.2	11.0	8.5	14.5	8.2	2.2	0.6	3.2
	대경권	14.6	14.1	6.6	15.5	20.7	5.6	2.3	1.9	5.6
가구 소득	동남권	8.3	14.1	9.0	6.1	15.5	10.1	2.2	0.0	16.2
	강원권	2.4	6.1	11.0	18.3	22.0	9.8	8.5	0.0	2.4
	300만 원 미만	10.1	11.7	8.8	11.4	18.3	10.7	5.7	0.3	9.5
	300~500만 원 미만	14.2	11.7	10.4	11.5	15.8	7.8	3.8	0.5	12.4
	500~700만 원 미만	12.1	13.0	12.4	8.7	13.5	7.1	3.4	0.4	16.0
가구원 수	700만 원 이상	13.1	12.6	10.4	15.8	6.6	6.0	13.1	0.0	12.0
	1인	12.1	11.6	8.9	15.6	17.4	8.0	4.5	0.9	10.3
	2인 이상	12.6	12.3	11.1	10.2	8.0	4.3	13.3	0.3	13.5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2.2.4.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및 관련 인식

○ 성인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농식품에 관한 정보를 지상파 TV 방송(27.6%),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14.8%), 유튜브 동영상(14.4%)을 통해 주로 획득하고 있었음. 선호하는 정보 수집 경로도 유사하게 주로 지상파 TV 방송(24.9%),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15.0%), 유튜브 동영상(15.0%)이었음.

- 농식품에 관한 정보를 지상파 TV 방송을 통해 수집하는 비중은 여성 28.3%, 60대 이상(37.6%), 호남권과 대경권(약 31%),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29.9%), 가구원수 2인 이상(28.2%)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인터넷은 남성(16.0%), 30대(18.6%), 수도권(20.1%)과 강원권(22.2%),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17.9%)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이밖에 유튜브 동영상은 19~29세(23.0%), 동남권(23.0%),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21.4%), 1인 가구(16.3%)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정보 수집 경로로 지상파 TV 방송을 선호하는 비중은 여성(25.9%), 60대 이상(33.9%), 호남권과 대경권(30~31%),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26.6%), 2인 이상 가구(25.4%), 인터넷은 남성(16.6%), 20~30대(19%대), 수도권(20.5%),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17.5%), 1인 가구(16.0%)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유튜브 동영상은 남성(16.3%), 19~29세(21.7%), 동남권(21.7%),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20.1%), 1인 가구(16.4%)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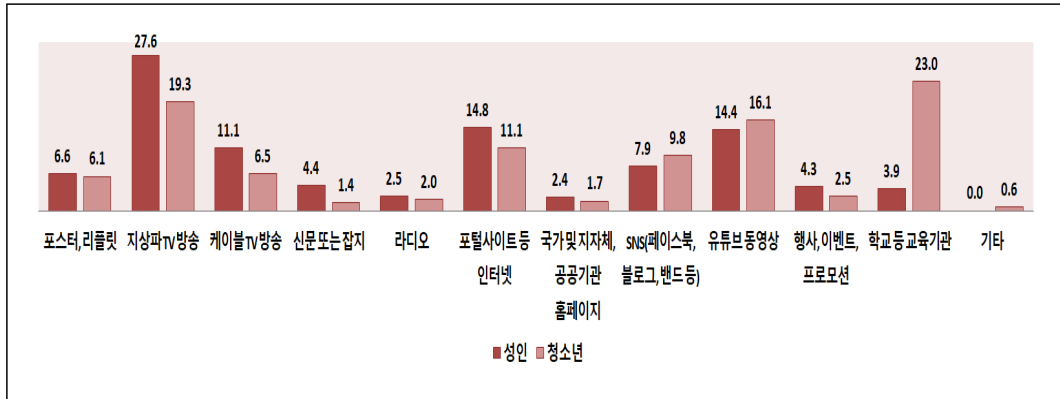
○ 청소년의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23.0%) 또는 지상파 TV 방송(19.3%), 유튜브 동영상(16.1%)을 통해 주로 농식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었음. 선호하는 정보 수집 경로도 학교 등 교육기관(21.4%), 지상파 TV 방송(17.2%), 유튜브 동영상(17.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청소년은 정보를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하는 비중은 초등학생(25.8%)이 가장 높았으며, 지상파 TV 방송은 초등학생(21.7%), 유튜브 동영상은 중학생(17.2%)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선호하는 경로는 학교 등 교육기관은 초등학생(24.5%), 지상파 TV 방송도 초등학생(20.0%), 유튜브 동영상은 중학생(18.7%)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그림 3-39〉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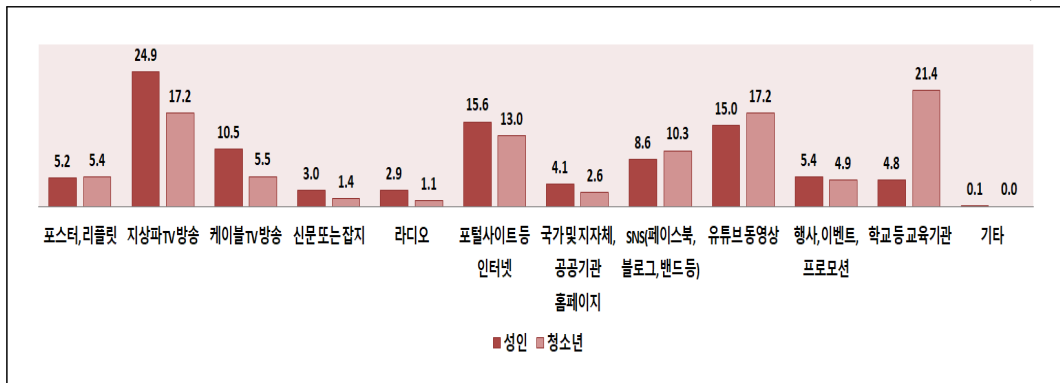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40〉 성인·청소년의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55〉 성인·청소년의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구분	포스터, 리플릿	지상파 TV 방송	케이블 TV 방송	신문도 잡지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등)	유튜브 동영상	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학교 등 교육기관	기타
성별	전체(성인)	6.6	27.6	11.1	4.4	2.5	14.8	7.9	14.4	4.3	3.9	0.0
	남성	6.6	26.9	10.8	5.1	2.0	16.0	8.2	14.8	3.9	3.5	0.0
연령	여성	6.5	28.3	11.4	3.8	3.0	13.6	7.6	14.0	4.8	4.4	0.1
	19~29세	7.5	18.4	6.0	2.9	0.3	17.2	13.2	23.0	2.9	5.7	0.0
	30대	8.2	22.4	8.9	3.6	1.5	18.6	12.8	16.3	4.1	1.8	0.3
	40대	6.4	26.0	9.1	3.6	0.9	16.9	8.2	13.7	5.7	6.6	0.0
권역	50대	5.7	31.6	14.1	4.8	3.4	14.5	3.6	11.8	4.5	3.2	0.0
	60대 이상	5.5	37.6	16.3	7.0	6.0	7.2	3.1	8.9	4.1	2.4	0.0
	수도권	10.4	26.1	7.4	3.6	1.5	20.1	6.9	14.5	3.9	2.7	0.0
	충청권	6.3	28.2	14.8	5.8	3.4	11.6	9.2	8.4	5.5	5.5	0.0
	호남권	7.3	31.1	8.2	8.2	1.5	11.6	7.6	9.5	7.0	3.7	0.3
	대경권	4.6	31.0	7.9	2.3	7.9	10.6	9.3	18.1	2.3	2.3	0.0
	동남권	1.4	25.1	19.2	1.9	1.4	12.2	6.8	23.0	2.2	5.7	0.0
	강원권	2.5	24.7	7.4	6.2	1.2	22.2	12.3	12.3	6.2	3.7	0.0
	300만 원 미만	7.0	29.9	12.2	6.8	3.9	7.8	7.5	13.8	3.9	4.7	0.0
	300~500만 원 미만	6.3	26.3	11.9	4.1	2.7	15.9	8.7	13.5	5.4	2.8	0.0
가구 소득	500~700만 원 미만	7.3	29.4	10.6	3.3	2.1	16.4	7.2	13.4	4.1	3.7	0.1
	700만 원 이상	4.5	21.9	8.0	4.9	0.9	17.9	8.5	21.4	2.2	6.7	0.0
가구원 수	1인	7.4	23.7	7.0	4.4	3.3	14.1	12.2	16.3	3.7	4.1	0.0
	2인 이상	6.5	28.2	11.7	4.4	2.4	14.9	7.2	14.1	4.4	3.9	0.1
연령	전체(청소년)	6.1	19.3	6.5	1.4	2.0	11.1	9.8	16.1	2.5	23.0	0.6
	초등학교	4.5	21.7	6.9	1.9	2.1	10.4	8.0	15.1	1.7	25.8	0.5
	중학교	5.7	19.8	6.1	0.9	2.1	11.3	12.3	17.2	2.6	20.0	0.2
고등학교	8.0	16.3	6.6	1.4	1.7	11.6	9.0	16.0	3.3	23.1	0.9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표 3-56〉 성인·청소년의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구분	포스터, 리플릿	지상파 TV 방송	케이블 TV 방송	신문 또는 잡지	라디오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등)	유튜브 동영상	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학교 등 교육기관	기타
성별	전체(성인)	5.2	24.9	10.5	3.0	2.9	4.1	8.6	15.0	5.4	4.8	0.1
	남성	5.2	23.9	10.5	3.3	3.3	16.6	4.3	16.3	4.2	3.9	0.2
연령	여성	5.1	25.9	10.6	2.7	2.5	14.6	3.9	13.6	6.6	5.8	0.1
	19~29세	3.8	18.4	7.7	1.8	0.8	19.7	2.6	21.7	5.1	4.9	0.3
	30대	5.6	20.3	8.9	2.3	2.1	19.3	3.7	18.4	4.0	2.8	0.0
	40대	4.4	24.2	8.2	2.1	2.1	16.8	5.3	14.5	6.7	6.9	0.0
지역	50대	6.5	26.9	12.0	2.4	3.7	14.5	5.9	11.4	6.3	5.3	0.4
	60대 이상	5.3	33.9	15.5	6.3	5.6	8.1	2.6	10.0	4.4	3.9	0.0
	수도권	8.9	23.2	6.2	2.1	2.2	20.5	3.6	16.1	5.9	4.0	0.0
	총정권	4.0	21.8	15.9	3.2	3.2	11.3	3.8	11.6	7.0	7.3	0.5
가구 소득	호남권	5.5	30.4	7.1	5.2	2.5	12.6	5.8	9.8	8.0	4.0	0.0
	대경권	3.3	31.1	9.4	3.7	7.8	9.0	5.3	13.9	1.6	4.9	0.4
	동남권	0.3	24.0	18.4	1.8	1.3	16.3	2.8	21.7	1.8	5.1	0.0
	강원권	3.7	20.6	7.5	4.7	2.8	16.8	5.6	12.1	9.3	3.7	0.0
가구원수	300만 원 미만	4.2	26.2	11.7	5.5	4.5	9.0	5.0	15.2	5.7	4.2	0.0
	300~500만 원 미만	4.4	23.4	10.5	2.0	4.1	16.4	3.8	14.5	5.9	4.1	0.3
	500~700만 원 미만	6.5	26.6	10.5	2.3	1.6	17.5	4.2	13.6	5.1	4.7	0.0
	700만 원 이상	4.8	21.9	8.6	3.7	1.1	17.5	3.3	20.1	4.1	8.2	0.4
연령	1인	3.4	21.5	8.2	2.7	4.1	16.0	5.5	16.4	6.1	2.7	0.0
	2인 이상	5.5	25.4	10.9	3.0	2.7	15.5	3.9	14.8	5.2	5.1	0.2
	전체(청소년)	5.4	17.2	5.5	1.4	1.1	13.0	2.6	17.2	4.9	21.4	0.0
	초등학생	5.6	20.0	5.4	1.6	1.2	11.9	2.8	15.6	4.2	24.5	0.0
연령	중학생	4.2	18.4	6.0	0.4	1.6	14.4	1.6	18.7	4.9	19.6	0.0
	고등학생	6.2	13.6	5.2	2.0	0.6	12.8	3.4	17.2	5.6	2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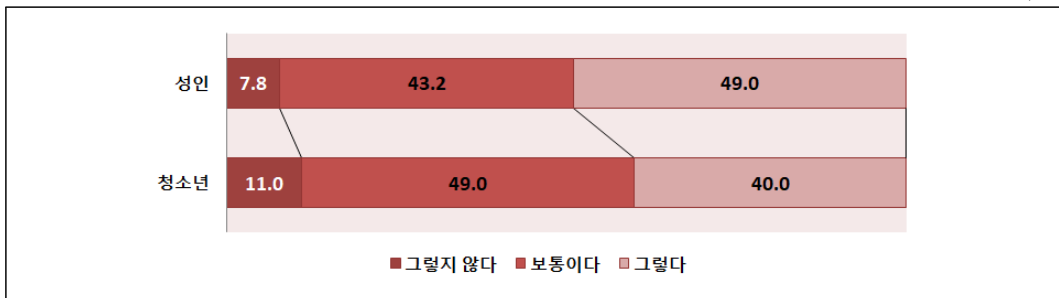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 성인의 49.0%가 평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9.0%p가 낮은 40.0%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 제공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여성(50.4%), 50대(52.5%)와 60대 이상(51.2%), 충청권(57.9%), 가구소득 500~ 700만 원 미만(54.2%), 2인 이상 가구(51.0%)에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은 초등학생(41.2%)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중학생(35.5%)과 고등학생(36.8%)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3-41〉 성인·청소년의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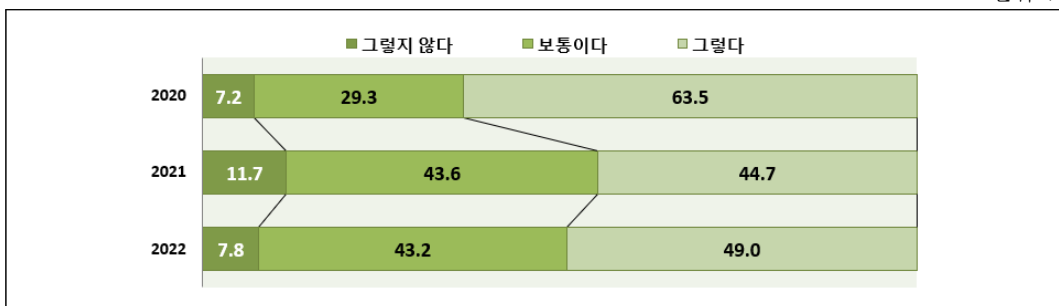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은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그림 3-42〉 성인의 연도별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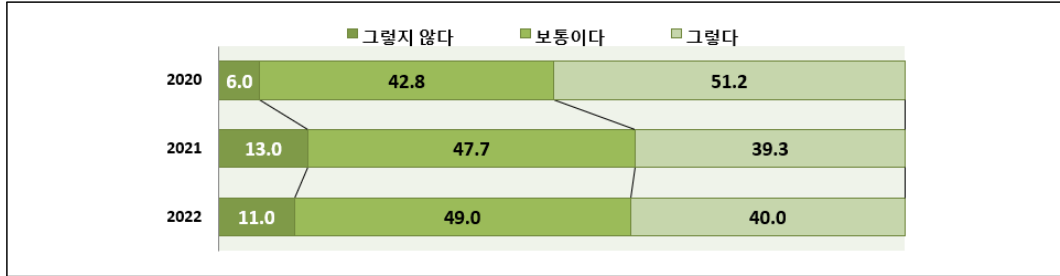


주 1) 2020~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은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그림 3-43〉 청소년의 연도별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비교

단위: %



주 1) 2020~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57〉 성인·청소년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식생활 개선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7.8	43.2	49.0
성별	남성	9.5	42.9	47.6
	여성	6.1	43.5	50.4
연령	19~29세	11.8	44.1	44.1
	30대	9.7	40.3	50.0
	40대	5.7	47.6	46.7
	50대	5.5	41.9	52.5
	60대 이상	7.0	41.8	51.2
권역	수도권	10.2	43.6	46.2
	충청권	7.9	34.3	57.9
	호남권	8.8	40.4	50.9
	대경권	6.8	56.4	36.8
	동남권	1.7	47.7	50.6
가구 소득	강원권	13.0	34.8	52.2
	300만 원 미만	7.9	53.5	38.6
	300~500만 원 미만	10.5	38.9	50.6
	500~700만 원 미만	5.6	40.2	54.2
가구원 수	700만 원 이상	6.5	47.2	46.3
	1인	14.0	49.0	37.1
2인 이상		6.8	42.2	51.0
전체(청소년)		11.0	49.0	40.0
연령	초등학생	10.2	48.6	41.2
	중학생	11.3	53.2	35.5
	고등학생	11.9	51.2	36.8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2.3. 농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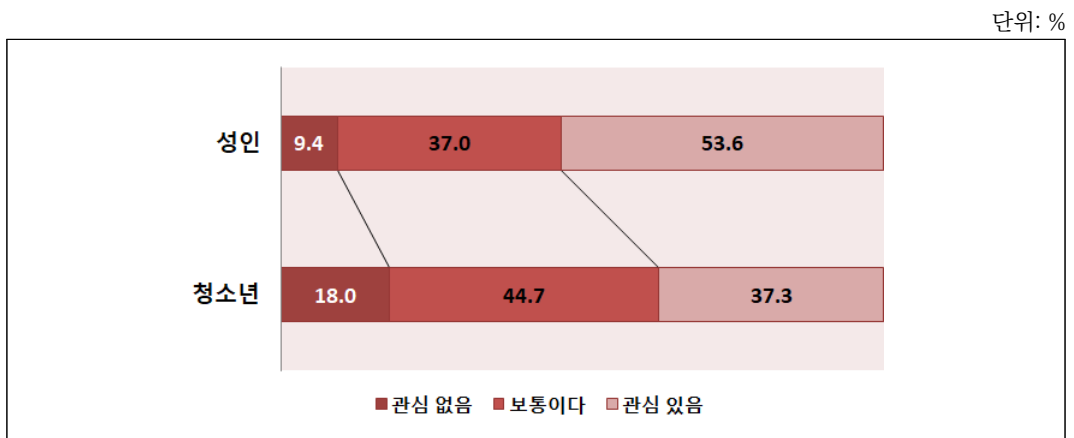
2.3.1. 먹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과 역할 평가

○ 성인은 53.6%가 평소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16.3%p가 작은 37.3%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성인의 먹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59.3%로 남성에 비해 11.3%p 크며, 50대(61.3%), 강원권(67.4%),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57.0%), 2인 이상 가구(55.3%)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생(42.3%)이 중학생(36.3%), 초등학생(33.5%)에 비해 큰 편이었음.

○ 성인의 먹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은 전년에 비해 2.4%p 감소하였으며, 청소년도 1.7%p 감소함.

〈그림 3-44〉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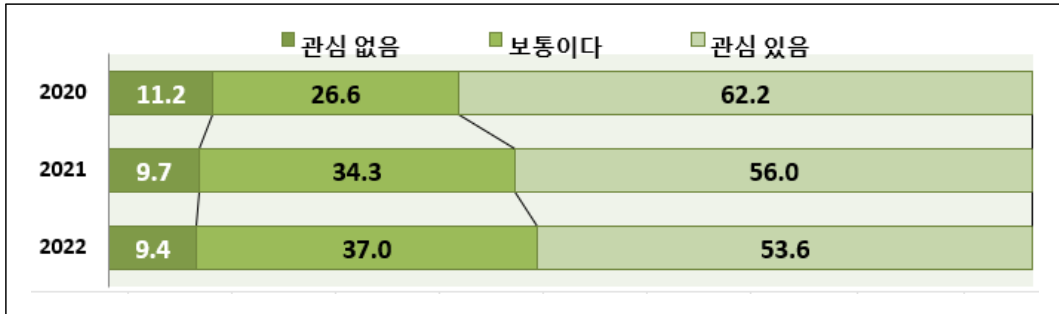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그림 3-45〉 성인의 연도별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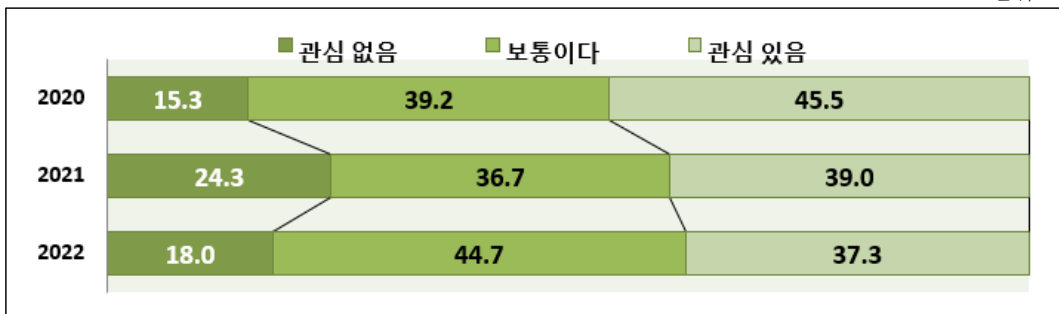


주 1) 2020~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그림 3-46〉 청소년의 연도별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비교

단위: %



주 1) 2020~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표 3-58〉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관심도

단위: %

구분		관심 없음	보통이다	관심 있음
전체(성인)		9.4	37.0	53.6
성별	남성	9.7	42.3	48.0
	여성	9.1	31.6	59.3
연령	19~29세	18.8	42.5	38.7
	30대	9.1	41.4	49.5
	40대	5.2	36.7	58.1
	50대	6.9	31.8	61.3
	60대 이상	8.0	33.8	58.2
권역	수도권	8.6	40.4	51.0
	충청권	16.9	24.2	59.0
	호남권	5.3	35.1	59.6
	대경권	9.4	45.3	45.3
	동남권	8.6	42.5	48.9
	강원권	4.3	28.3	6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9	41.1	48.0
	300~500만 원 미만	8.7	37.0	54.2
	500~700만 원 미만	8.4	34.6	57.0
	700만 원 이상	12.0	37.0	50.9
가구원 수	1인	14.0	42.7	43.4
	2인 이상	8.6	36.1	55.3
전체(청소년)		18.0	44.7	37.3
연령	초등학생	20.7	45.8	33.5
	중학생	17.4	46.3	36.3
	고등학생	15.8	41.8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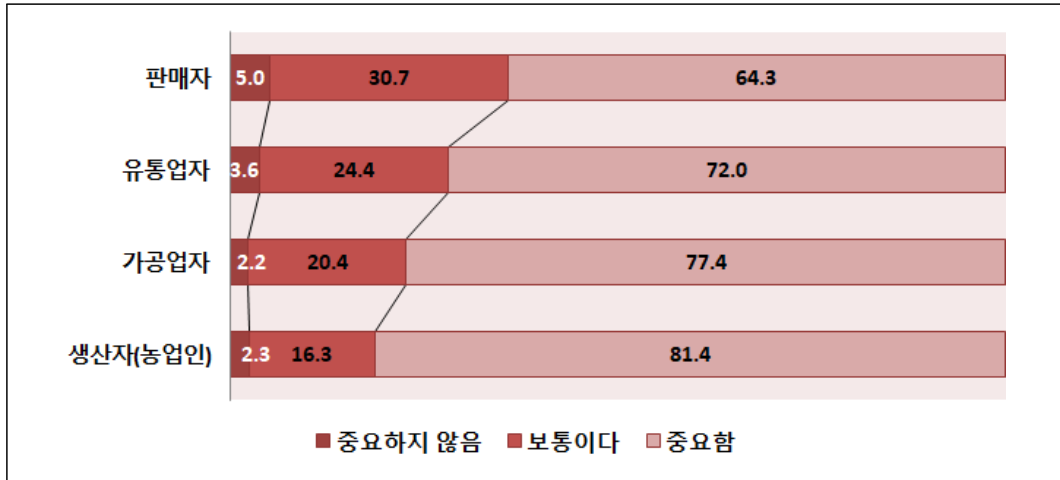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관심 없음'은 '1=전혀 관심 없음'과 '2=관심 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관심 있음'은 '4=관심 있음'과 '5=매우 관심 있음'을 포함함.

○ 성인은 먹거리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참여자 중에서 생산자(농업인)(81.4%)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공업자(77.4%), 유통업자(72.0%), 판매자(64.3%)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청소년도 생산자(농업인)(79.0%)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유통업자(74.0%), 가공업자(68.5%), 판매자(59.3%)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그림 3-47〉 성인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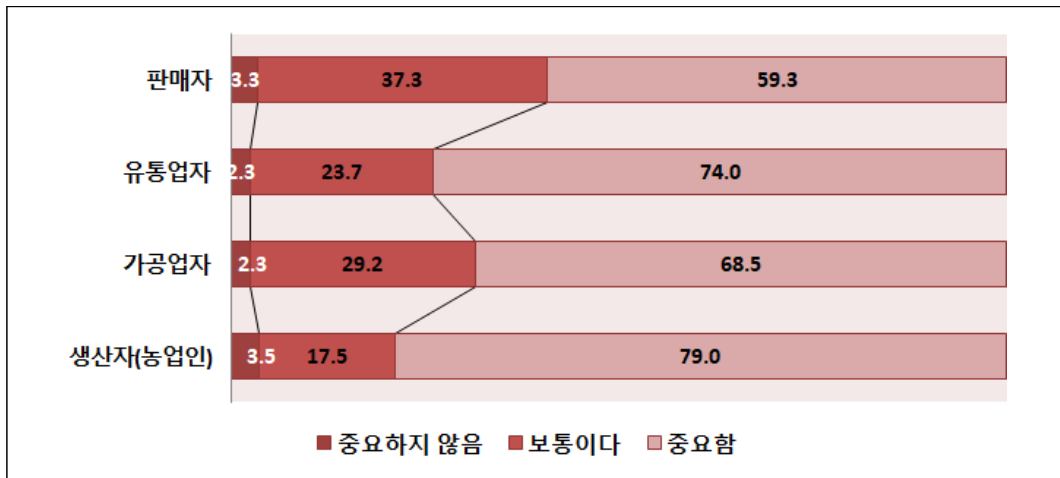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1=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2=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중요함'은 '4=중요함'과 '5=매우 중요함'을 포함함.

〈그림 3-48〉 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

단위: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1=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2=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중요함'은 '4=중요함'과 '5=매우 중요함'을 포함함.

〈표 3-59〉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생산자(농업인))

단위: %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전체(성인)		2.3	16.3	81.4
성별	남성	2.6	16.8	80.6
	여성	2.0	15.8	82.2
연령	19~29세	2.7	16.7	80.6
	30대	2.2	23.7	74.2
	40대	1.9	18.6	79.5
	50대	2.8	11.1	86.2
	60대 이상	2.0	12.4	85.6
권역	수도권	0.3	14.3	85.4
	충청권	9.0	25.8	65.2
	호남권	1.8	14.6	83.6
	대경권	0.0	22.2	77.8
	동남권	1.7	9.2	89.1
	강원권	0.0	10.9	89.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5	22.3	77.2
	300~500만 원 미만	1.2	16.6	82.2
	500~700만 원 미만	3.4	14.8	81.8
	700만 원 이상	5.6	9.3	85.2
가구원 수	1인	0.7	26.6	72.7
	2인 이상	2.6	14.6	82.8
전체(청소년)		3.5	17.5	79.0
연령	초등학생	3.0	18.7	78.3
	중학생	2.0	21.9	76.1
	고등학생	5.6	11.7	82.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1=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2=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중요함'은 '4=중요함'과 '5=매우 중요함'을 포함함.

〈표 3-60〉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가공업자)

단위: %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전체(성인)		2.2	20.4	77.4
성별	남성	2.6	21.1	76.3
	여성	1.8	19.6	78.5
연령	19~29세	2.2	24.7	73.1
	30대	3.8	24.7	71.5
	40대	1.4	22.4	76.2
	50대	2.3	17.1	80.6
	60대 이상	1.5	13.9	84.6
권역	수도권	0.6	19.1	80.3
	충청권	5.6	28.1	66.3
	호남권	3.5	24.0	72.5
	대경권	2.6	26.5	70.9
	동남권	0.0	10.3	89.7
	강원권	2.2	8.7	89.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	23.3	75.2
	300~500만 원 미만	2.7	20.8	76.5
	500~700만 원 미만	1.7	19.8	78.5
	700만 원 이상	3.7	15.7	80.6
가구원 수	1인	4.2	32.2	63.6
	2인 이상	1.9	18.4	79.7
전체(청소년)		2.3	29.2	68.5
연령	초등학생	2.0	26.6	71.4
	중학생	1.5	32.8	65.7
	고등학생	3.6	28.1	68.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1=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2=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중요함'은 '4=중요함'과 '5=매우 중요함'을 포함함.

〈표 3-61〉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유통업자)

단위: %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전체(성인)		3.6	24.4	72.0
성별	남성	4.3	27.1	68.6
	여성	2.8	21.7	75.5
연령	19~29세	5.4	25.3	69.4
	30대	3.2	29.6	67.2
	40대	4.8	21.0	74.3
	50대	3.2	24.0	72.8
	60대 이상	1.5	22.9	75.6
권역	수도권	1.0	20.7	78.3
	충청권	8.4	31.5	60.1
	호남권	5.8	29.8	64.3
	대경권	3.4	34.2	62.4
	동남권	1.1	12.1	86.8
	강원권	4.3	23.9	7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28.7	65.8
	300~500만 원 미만	3.6	23.5	72.9
	500~700만 원 미만	2.5	23.5	74.0
	700만 원 이상	3.7	22.2	74.1
가구원 수	1인	6.3	29.4	64.3
	2인 이상	3.2	23.6	73.3
전체(청소년)		2.3	23.7	74.0
연령	초등학생	2.5	28.1	69.5
	중학생	2.5	25.9	71.6
	고등학생	2.0	16.8	81.1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1=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2=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중요함'은 '4=중요함'과 '5=매우 중요함'을 포함함.

〈표 3-62〉 성인·청소년의 먹거리 생산과정 참여 역할 중요도 평가(판매자)

단위: %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전체(성인)		5.0	30.7	64.3
성별	남성	5.7	32.4	61.9
	여성	4.3	28.9	66.8
연령	19~29세	7.5	32.3	60.2
	30대	6.5	34.9	58.6
	40대	5.2	31.4	63.3
	50대	5.1	30.0	65.0
	60대 이상	1.0	25.4	73.6
권역	수도권	4.8	36.3	58.9
	충청권	11.2	38.8	50.0
	호남권	3.5	31.0	65.5
	대경권	4.3	27.4	68.4
	동남권	0.6	15.5	83.9
	강원권	6.5	26.1	6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0	35.1	59.9
	300~500만 원 미만	3.9	32.5	63.6
	500~700만 원 미만	5.3	26.0	68.7
	700만 원 이상	7.4	32.4	60.2
가구원 수	1인	7.7	40.6	51.7
	2인 이상	4.6	29.1	66.4
전체(청소년)		3.3	37.3	59.3
연령	초등학생	4.4	37.9	57.6
	중학생	3.5	40.3	56.2
	고등학생	2.0	33.7	64.3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음'은 '1=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2=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중요함'은 '4=중요함'과 '5=매우 중요함'을 포함함.

2.3.2. 농림어업 체험 여부와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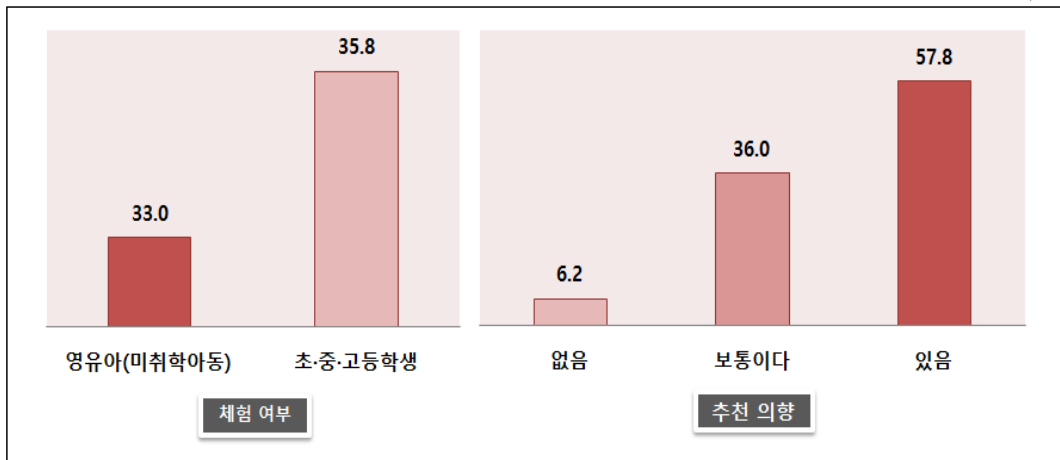
가) 자녀의 농림어업 체험 여부와 향후 참여 의향

○ 영유아(미취학) 자녀가 있는 성인은 자녀의 33.0%가 최근 3년간 가정, 학교 등에서 농촌, 산촌, 어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농림어업 체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음.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35.8%가 체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음. 최근 자녀가 농림어업 체험에 참가한 경험은 30%대로 높지 않았으나, 향후 자녀의 농림어업 체험을 장려(권유)할 의향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높은 편이었음. 자녀가 있는 성인의 57.8%가 향후 자녀의 체험을 장려(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유아(미취학아동) 자녀가 최근 3년간 농촌, 산촌, 어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농림어업 체험에 참가한 경험은 2021년 대비하여 3.9%p 증가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농림어업 체험 참가 경험은 2021년(36.0%)과 유사한 수준임.
- 영유아(미취학아동) 자녀의 농림어업 체험 비중은 지역별로 호남권(47.1%),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40.0%),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농림어업 체험 비중은 호남권(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58.3%)에서 큰 편이었음.

〈그림 3-49〉 성인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여부와 추천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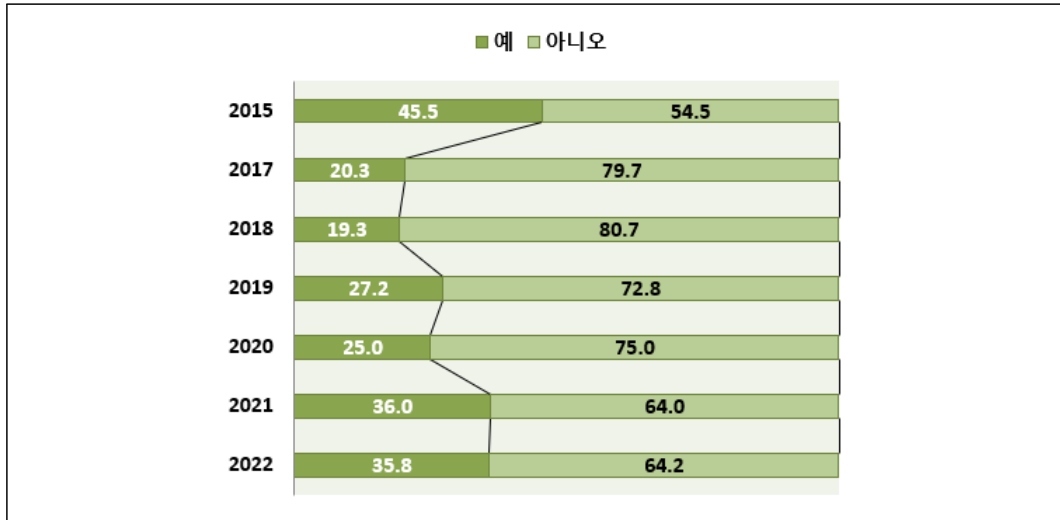


주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2) 추천 의향은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없음'은 '1=전혀 없음'과 '2=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있음'은 '4=있음'과 '5=매우 있음'을 포함함.

〈그림 3-50〉 성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체험 여부 비교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2015~2019년은 설문조사 시점까지, 2020~2022년은 최근 3년간의 참가 경험에 대해 설문함.

〈표 3-63〉 성인의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체험 여부(영유아(미취학아동))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성인)		33.0	67.0
성별	남성	29.2	70.8
	여성	37.0	63.0
연령	19~29세	33.3	66.7
	30대	36.5	63.5
	40대	25.0	75.0
	50대	50.0	50.0
	60대 이상	100.0	0.0
권역	수도권	34.6	65.4
	충청권	30.8	69.2
	호남권	47.1	52.9
	대경권	33.3	66.7
	동남권	18.8	81.3
가구 소득	강원권	33.3	66.7
	300만 원 미만	33.3	66.7
	300~500만 원 미만	37.5	62.5
	500~700만 원 미만	25.7	74.3
	700만 원 이상	40.0	60.0
가구원 수	1인	-	-
	2인 이상	33.0	67.0

주 1) 영유아(미취학) 자녀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표 3-64〉 성인의 자녀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체험 여부(초·중·고등학생)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성인)		35.8	64.2
성별	남성	31.6	68.4
	여성	40.0	60.0
연령	19~29세	-	-
	30대	50.0	50.0
	40대	38.7	61.3
	50대	16.7	83.3
	60대 이상	20.0	80.0
권역	수도권	25.0	75.0
	충청권	25.6	74.4
	호남권	72.7	27.3
	대경권	33.3	66.7
	동남권	18.8	81.3
	강원권	72.7	27.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3	41.7
	300~500만 원 미만	35.6	64.4
	500~700만 원 미만	33.3	66.7
	700만 원 이상	33.3	66.7
가구원 수	1인	-	-
	2인 이상	35.8	64.2

주 1)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표 3-65〉 성인의 자녀 농산어촌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추천 의향

단위: %

구분		없음	보통이다	있음
전체(성인)		6.2	36.0	57.8
성별	남성	5.3	40.4	54.3
	여성	7.2	31.2	61.6
연령	19~29세	0.0	25.0	75.0
	30대	4.1	36.5	59.5
	40대	6.3	32.3	61.4
	50대	10.9	52.2	37.0
	60대 이상	0.0	14.3	85.7
권역	수도권	5.7	46.0	48.3
	충청권	3.2	45.2	51.6
	호남권	5.7	32.1	62.3
	대경권	12.5	20.8	66.7
	동남권	10.9	30.4	58.7
	강원권	0.0	0.0	10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8	35.3	52.9
	300~500만 원 미만	3.4	35.3	61.3
	500~700만 원 미만	7.9	40.2	52.0
	700만 원 이상	7.7	19.2	73.1
가구원 수	1인	-	-	-
	2인 이상	6.2	36.0	57.8

주 1) 영유아(미취학) 또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없음'은 '1=전혀 없음'과 '2=없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있음'은 '4=있음'과 '5=매우 있음'을 포함함.

나) 농림어업 체험 여부와 중요성 인식

○ 성인의 경우 최근 3년간 먹거리 생산 현장인 농촌, 산촌, 어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농림어업 체험을 경험한 비중이 17.0%로 전년 대비 2.6%p가 증가함. 농림어업 체험을 한 경우 전년 대비 1.3%p가 감소한 76.5%가 농림어업 체험이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의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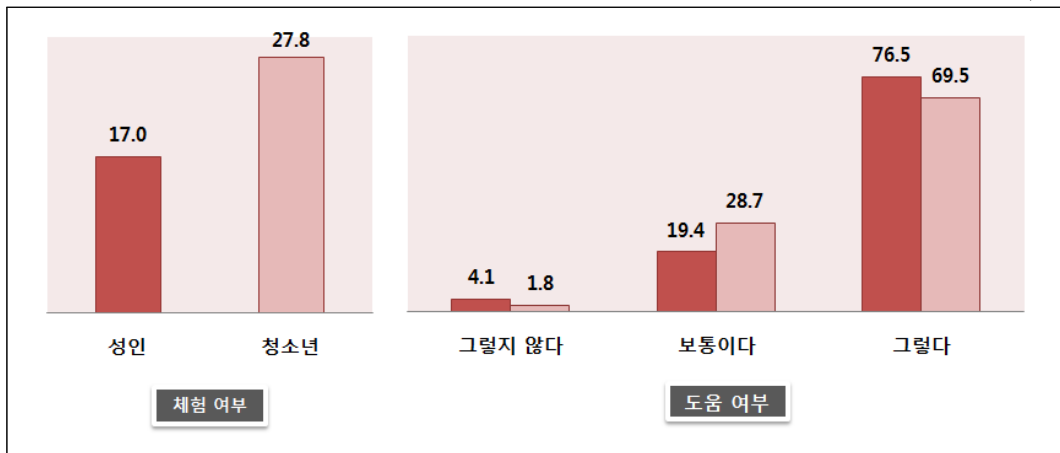
- 농림어업 체험 경험 비중은 여성(18.4%), 40대(20.0%), 호남권(33.3%),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21.8%), 2인 이상 가구(17.4%)에서 컸으며,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의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중은 여성(82.4%), 30~40대(80%대), 호남권(89.5%),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80.4%)과 700만 원 이상(81.3%)에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10.8%p가 많은 27.8%가 농림어업 체험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9.5%가 농림어업 체험이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청소년의 농림어업 체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1.6%p가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체험이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중은 전년 대비 5.7%p가 감소함.
- 농림어업 체험 비중은 초등학생이 35.5%로 상대적으로 컸으며, 농림어업 체험이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중은 고등학생(74.3%)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그림 3-51〉 성인·청소년의 농산어촌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여부와 중요성 인식 도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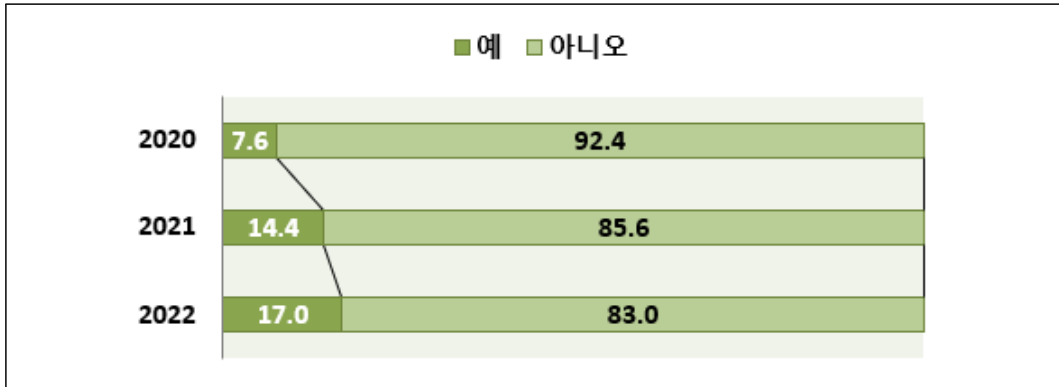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도움 정도는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그림 3-52〉 성인의 연도별 농림어업 체험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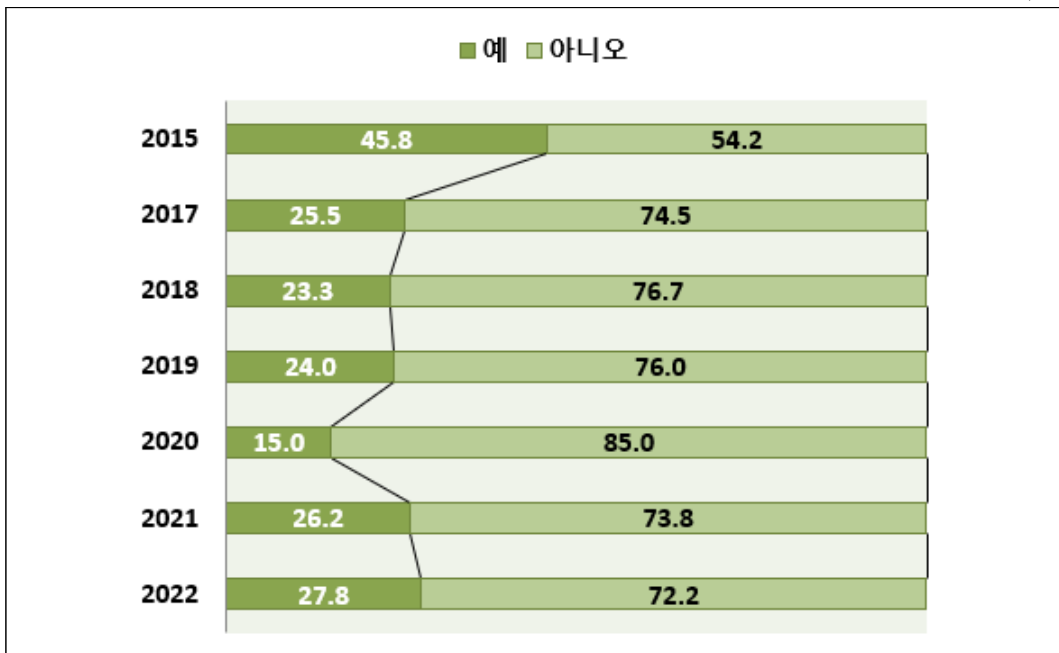
단위: %



주: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53〉 청소년의 연도별 농림어업 체험 여부 비교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2015~2019년은 설문조사 시점, 2020~2022년은 최근 3년 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표 3-66〉 성인·청소년의 농산어촌현장 방문 및 농림어업 체험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성인)		17.0	83.0
성별	남성	15.6	84.4
	여성	18.4	81.6
연령	19~29세	12.9	87.1
	30대	18.3	81.7
	40대	20.0	80.0
	50대	14.3	85.7
	60대 이상	19.4	80.6
권역	수도권	16.6	83.4
	충청권	14.6	85.4
	호남권	33.3	66.7
	대경권	10.3	89.7
	동남권	5.2	94.8
	강원권	30.4	69.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1.8	78.2
	300~500만 원 미만	19.3	80.7
	500~700만 원 미만	12.8	87.2
	700만 원 이상	14.8	85.2
가구원 수	1인	14.7	85.3
	2인 이상	17.4	82.6
전체(청소년)		27.8	72.2
연령	초등학생	35.5	64.5
	중학생	29.9	70.1
	고등학생	17.9	82.1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표 3-67〉 성인·청소년의 농림어업 체험의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 중요성 인식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4.1	19.4	76.5
성별	남성	6.3	24.1	69.6
	여성	2.2	15.4	82.4
연령	19~29세	12.5	25.0	62.5
	30대	0.0	14.7	85.3
	40대	4.8	14.3	81.0
	50대	3.2	19.4	77.4
	60대 이상	2.6	25.6	71.8
권역	수도권	9.6	28.8	61.5
	충청권	0.0	19.2	80.8
	호남권	0.0	10.5	89.5
	대경권	8.3	33.3	58.3
	동남권	11.1	22.2	66.7
	강원권	0.0	7.1	92.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5	18.2	77.3
	300~500만 원 미만	4.7	23.4	71.9
	500~700만 원 미만	4.3	15.2	80.4
	700만 원 이상	0.0	18.8	81.3
가구원 수	1인	9.5	19.0	71.4
	2인 이상	3.4	19.5	77.2
전체(청소년)		1.8	28.7	69.5
연령	초등학생	4.2	25.0	70.8
	중학생	0.0	35.0	65.0
	고등학생	0.0	25.7	74.3

주 1) 농림어업 체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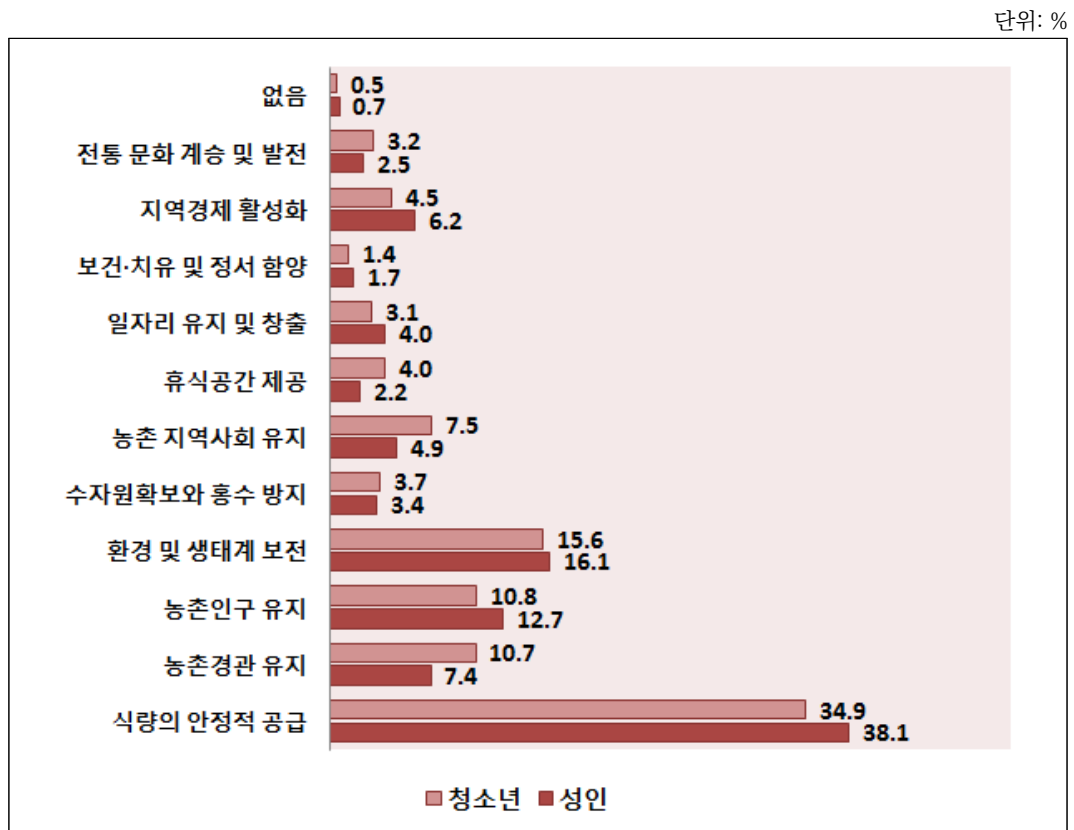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2.3.3. 농업·농촌의 역할과 공익적 가치

○ 성인의 경우 농업, 농촌의 주요 역할(기능)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34.1%)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밖에 환경 및 생태계 보전(15.9%), 농촌 인구 유지(11.0%), 농촌경관 유지(9.0%), 농촌 지역사회 유지(8.1%) 등이 주요 역할(기능)이라고 응답함.

○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하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32.8%)이 농업, 농촌의 가장 중요한 역할(기능)이라고 보았으며, 이밖에 환경 및 생태계 보전(16.2%), 농촌경관 유지(12.7%), 농촌인구 유지(10.4%) 순으로 응답 비중이 컸음.

〈그림 3-54〉 성인·청소년의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 인식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68〉 성인·청소년의 농업·농촌의 역할 및 기능 인식

단위: %

구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경관 유지	농촌인구 유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농촌 지역 사회 유지	휴식 공간 제공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보건·치유 및 정서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문화 계승 및 발전	없음	
성별	전체(성인)	34.1	9.0	11.0	15.9	5.2	8.1	2.9	3.9	1.5	5.6	2.5	0.3
	남성	34.0	8.7	11.8	15.8	5.7	8.6	3.0	3.4	1.4	5.3	1.8	0.4
연령	여성	34.3	9.2	10.3	16.0	4.6	7.5	2.8	4.4	1.6	5.8	3.3	0.1
	19~29세	34.8	6.9	12.3	15.4	3.9	8.3	2.8	4.5	1.7	6.5	2.8	0.3
	30대	33.7	9.7	11.3	13.7	6.1	7.6	3.4	5.3	1.3	4.6	2.1	1.1
	40대	34.2	10.4	10.6	15.3	6.0	8.8	2.8	3.0	1.5	5.3	2.4	0.0
	50대	32.3	9.0	10.7	17.1	4.7	8.4	3.0	3.0	1.5	7.0	3.2	0.0
	60대 이상	35.8	8.7	10.6	17.8	5.2	7.1	2.5	4.0	1.6	4.5	2.2	0.0
권역	수도권	40.8	8.0	12.3	15.0	5.1	6.4	2.0	1.8	0.8	4.3	3.3	0.2
	충청권	27.5	10.5	10.9	15.5	5.0	9.7	4.4	5.6	2.2	6.1	2.3	0.3
	호남권	33.6	8.0	8.4	17.4	6.6	8.9	2.4	5.3	0.7	5.7	2.4	0.6
	대경권	37.0	9.6	9.3	14.4	4.5	7.7	1.7	3.8	1.3	5.5	4.7	0.4
	동남권	27.6	11.8	13.3	17.5	5.1	7.5	4.2	4.3	2.8	5.6	0.3	0.0
	강원권	34.0	0.8	8.3	16.2	2.6	13.6	2.6	5.7	2.3	11.7	2.3	0.0
	300만 원 미만	34.5	6.9	10.4	15.6	5.1	9.1	3.9	5.9	1.5	5.3	1.7	0.3
	300~500만 원 미만	33.0	9.6	10.3	15.5	4.9	8.7	3.6	2.8	2.1	6.4	2.8	0.3
가구 소득	500~700만 원 미만	34.9	9.7	12.1	16.7	5.9	7.2	2.3	3.9	0.9	3.9	2.3	0.3
	700만 원 이상	34.5	8.7	10.9	15.3	4.1	6.9	0.9	3.6	1.9	9.0	4.3	0.0
가구원 수	1인	34.1	7.0	12.0	14.9	5.9	9.5	3.6	3.8	1.7	5.9	1.6	0.0
	2인 이상	34.1	9.3	10.9	16.1	5.1	7.8	2.8	3.9	1.5	5.5	2.7	0.3
연령	전체(청소년)	32.8	12.7	10.4	16.2	3.9	7.3	3.7	2.7	1.7	4.5	3.5	0.5
	초등학교	33.9	15.2	10.2	15.9	3.9	7.2	2.7	2.0	1.7	3.8	2.9	0.5
	중학생	33.8	12.4	10.3	17.4	3.3	7.6	4.1	2.7	1.5	3.5	3.0	0.3
	고등학교	30.7	10.2	10.7	15.3	4.7	7.2	4.4	3.3	2.0	6.2	4.5	0.8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주 2)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에 가중치(3:2:1)를 적용한 결과임.

○ 성인 중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가치)’이라는 용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중이 55.2%로 전년 대비(60.5%) 5.3%p가 감소하였음. 성인의 9.3%만이 해당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도(9.4%)와 유사한 수준임. 이밖에 35.5%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가치)’의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성인의 비중이 남성(9.7%), 60대 이상(13.4%), 호남권(15.2%),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10.9%)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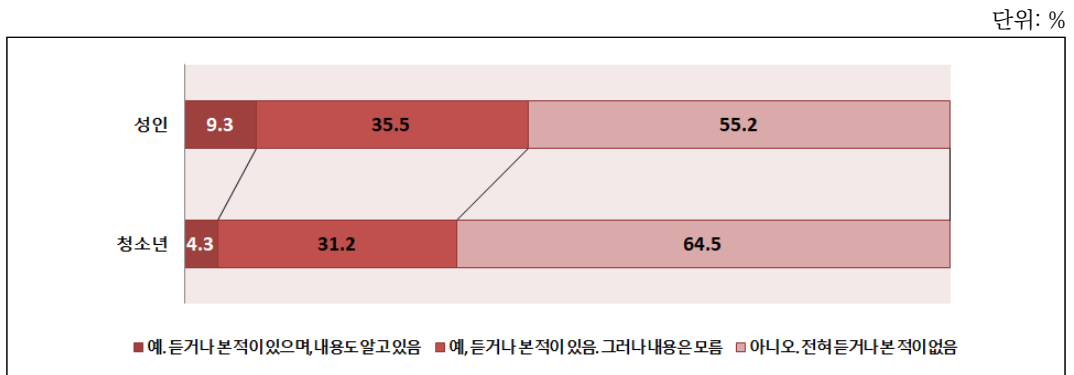
○ 청소년은 전년(59.2%)보다 5.3%p 증가한 64.5%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가치)’이라는 용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 청소년의 31.2%는 내용은 모르지만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년 대비 7.7%p가 감소한 4.3%에 불과하였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가치)’의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고등학생(6.6%)이 가장 컸으며,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의 절반 수준인 3.0%에 불과하였음.

〈글상자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가치)

-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 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국민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과 이러한 기능의 가치

〈그림 3-55〉 성인·청소년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용어 인식 여부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69〉 성인·청소년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용어 인식 여부

단위: %

구분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전체(성인)		9.3	35.5	55.2
성별	남성	9.7	35.8	54.5
	여성	8.9	35.2	55.9
연령	19~29세	6.5	33.3	60.2
	30대	7.0	39.8	53.2
	40대	7.6	38.6	53.8
	50대	11.5	35.5	53.0
	60대 이상	13.4	30.3	56.2
권역	수도권	8.6	34.4	57.0
	충청권	10.7	36.5	52.8
	호남권	15.2	41.5	43.3
	대경권	11.1	36.8	52.1
	동남권	2.3	25.9	71.8
	강원권	8.7	50.0	41.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9	30.7	58.4
	300~500만 원 미만	8.4	37.3	54.2
	500~700만 원 미만	9.5	36.0	54.5
	700만 원 이상	8.3	37.0	54.6
가구원 수	1인	9.1	29.4	61.5
	2인	9.3	36.5	54.1
전체(청소년)		4.3	31.2	64.5
연령	초등학생	3.0	20.2	76.8
	중학생	3.5	34.3	62.2
	고등학생	6.6	39.3	54.1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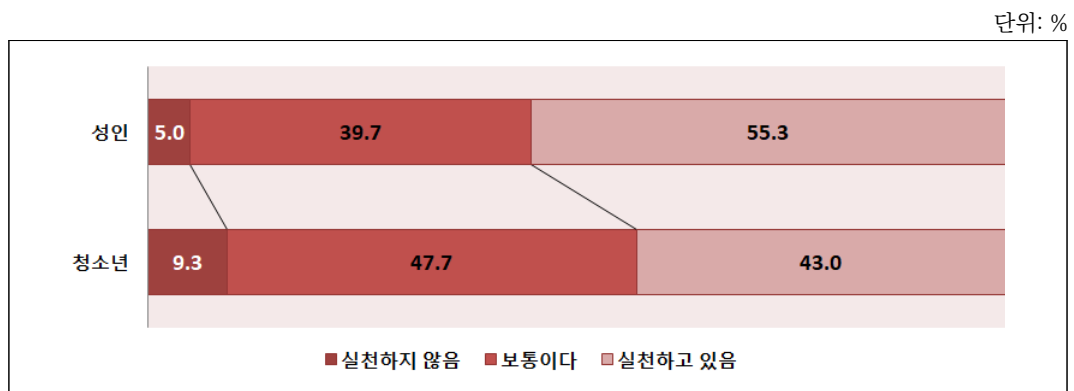
2.3.4.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

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

○ 성인은 55.3%가 평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의 선택·소비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은 43.0%가 실천한다고 응답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의 선택·소비를 실천하는 성인의 비중은 전년도(54.7%)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청소년의 비중은 전년대비 2.0%p가 증가함.

- 성인 중에서 평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을 선택·소비하는 비중은 여성(59.9%), 50대(61.8%), 강원권(67.4%),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58.7%)과 700만 원 이상(57.4%), 2인 이상 가구(57.2%)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은 고등학생의 실천 수준이 46.4%로 초등학생(39.9%), 중학생(42.8%)에 비해 큰 편이었음.

〈그림 3-56〉 성인·청소년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소비 실천 수준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주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0〉 성인·청소년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소비 실천 수준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5.0	39.7	55.3
성별	남성	6.3	42.9	50.8
	여성	3.6	36.4	59.9
연령	19~29세	10.2	44.6	45.2
	30대	5.4	41.4	53.2
	40대	4.3	38.1	57.6
	50대	2.3	35.9	61.8
	60대 이상	3.5	39.3	57.2
권역	수도권	6.1	40.4	53.5
	충청권	5.1	37.1	57.9
	호남권	4.1	33.3	62.6
	대경권	5.1	55.6	39.3
	동남권	3.4	40.2	56.3
가구 소득	강원권	6.5	26.1	67.4
	300만 원 미만	5.4	46.0	48.5
	300~500만 원 미만	6.9	38.0	55.1
	500~700만 원 미만	2.8	38.5	58.7
	700만 원 이상	5.6	37.0	57.4
가구원 수	1인	8.4	47.6	44.1
	2인 이상	4.4	38.4	57.2
전체(청소년)		9.3	47.7	43.0
연령	초등학생	8.9	51.2	39.9
	중학생	9.5	47.8	42.8
	고등학생	9.7	43.9	46.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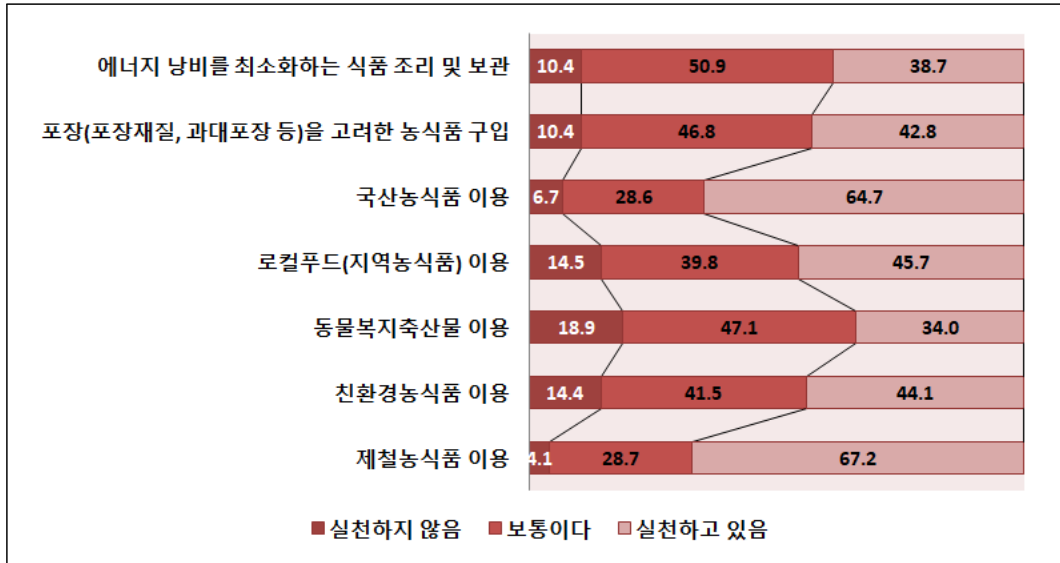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 세부항목별로 성인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의 실천 수준이 높은 편이었음. 구체적으로 제철농식품 이용(67.2%)와 국산농식품 이용(64.7%)의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실천 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식품 조리 및 보관(38.7%)이었음.

- 2015년을 제외하고 국산농식품 이용 실천 수준은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이며, 친환경농식품 이용 실천 수준은 2015~2021년에는 30~40%대였으며, 2022년도 44.1%로 비슷한 수준임.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이용 실천 수준은 2020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40~50%대 수준이며 2022년에는 45.7%로 전년 대비 7.6%p가 증가함.

〈그림 3-57〉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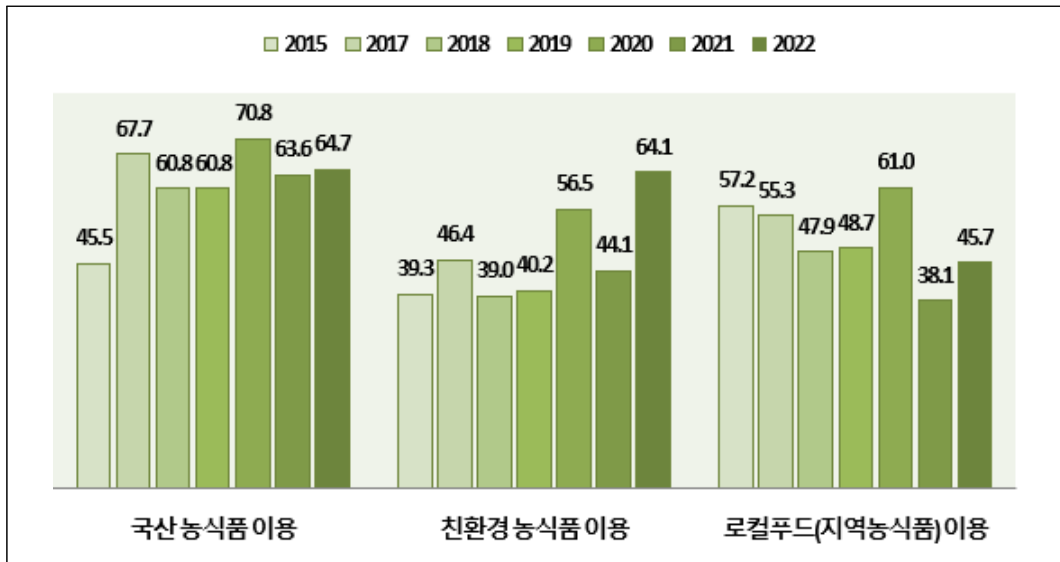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그림 3-58〉 성인의 농산물 유형별 이용 실천 비중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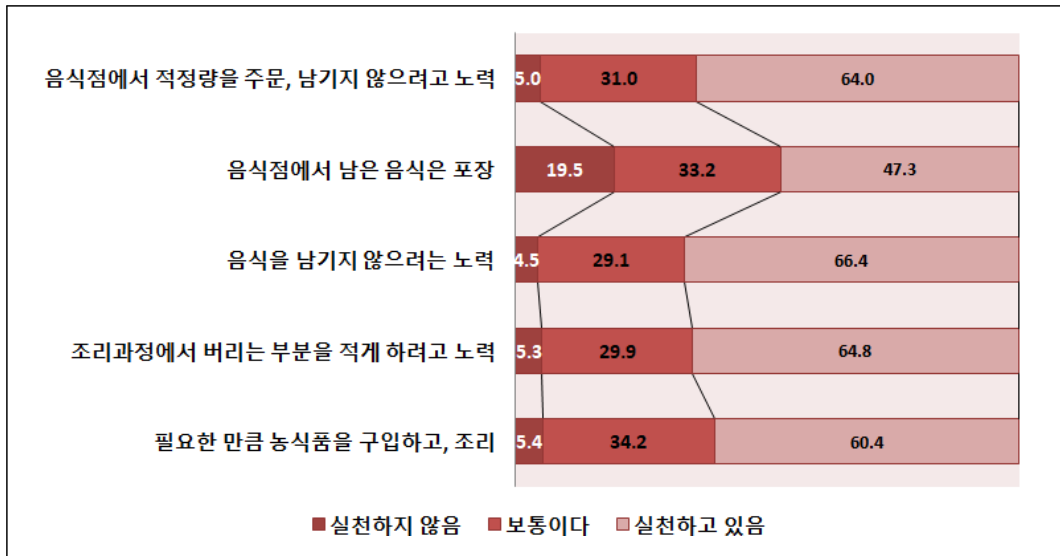


주: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성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들의 실천 수준이 높은 편이었음. 구체적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비중(66.4%)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도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비중(47.3%)을 제외하고는 항목별로 실천 비중이 60%대로 비교적 높았음.

〈그림 3-59〉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

단위: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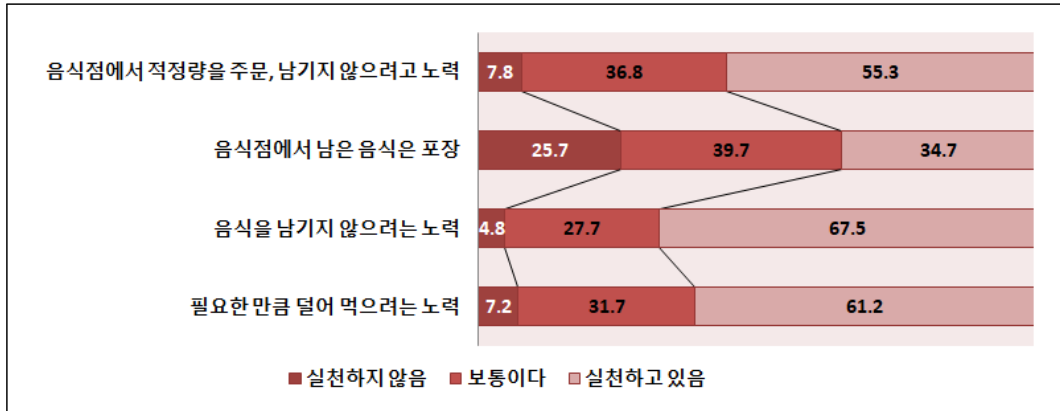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 청소년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의 실천 수준이 50~60%대로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이 중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비중은 34.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관련 항목 중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67.5%)의 실천 수준이 가장 높았음.

〈그림 3-60〉 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

단위: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1〉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제철농식품 이용)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4.1	28.7	67.2
성별	남성	5.7	31.0	63.2
	여성	2.4	26.3	71.3
연령	19~29세	11.8	30.6	57.5
	30대	4.8	32.3	62.9
	40대	2.4	29.0	68.6
	50대	1.4	24.9	73.7
	60대 이상	1.0	27.4	71.6
권역	수도권	5.1	23.9	71.0
	충청권	2.8	21.9	75.3
	호남권	4.1	32.7	63.2
	대경권	4.3	33.3	62.4
	동남권	4.0	35.1	60.9
가구 소득	강원권	2.2	37.0	60.9
	300만 원 미만	5.4	36.1	58.4
	300~500만 원 미만	3.9	31.0	65.1
	500~700만 원 미만	3.6	23.7	72.6
	700만 원 이상	3.7	24.1	72.2
가구원 수	1인	9.1	42.0	49.0
	2인 이상	3.3	26.5	70.2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2〉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친환경농식품 이용)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4.4	41.5	44.1
성별	남성	18.4	41.9	39.7
	여성	10.3	41.1	48.6
연령	19~29세	21.5	44.6	33.9
	30대	16.1	41.9	41.9
	40대	10.0	41.4	48.6
	50대	10.6	41.5	47.9
	60대 이상	14.9	38.3	46.8
권역	수도권	12.1	43.6	44.3
	충청권	12.9	26.4	60.7
	호남권	8.8	46.2	45.0
	대경권	14.5	44.4	41.0
	동남권	24.7	46.6	28.7
	강원권	17.4	41.3	41.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0.8	47.0	32.2
	300~500만 원 미만	18.4	38.0	43.7
	500~700만 원 미만	8.4	43.3	48.3
	700만 원 이상	10.2	36.1	53.7
가구원 수	1인	24.5	44.8	30.8
	2인 이상	12.7	41.0	46.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3〉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동물복지축산물 이용)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8.9	47.1	34.0
성별	남성	24.1	46.8	29.1
	여성	13.6	47.4	39.1
연령	19~29세	28.0	48.9	23.1
	30대	18.8	50.5	30.6
	40대	17.1	39.0	43.8
	50대	17.1	47.0	35.9
	60대 이상	14.4	50.7	34.8
권역	수도권	18.2	52.9	29.0
	충청권	10.7	47.2	42.1
	호남권	22.8	42.1	35.1
	대경권	17.9	47.0	35.0
	동남권	24.1	40.2	35.6
	강원권	23.9	52.2	23.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3.3	54.0	22.8
	300~500만 원 미만	20.2	42.2	37.7
	500~700만 원 미만	16.5	45.8	37.7
	700만 원 이상	14.8	53.7	31.5
가구원 수	1인	27.3	50.3	22.4
	2인 이상	17.5	46.6	35.9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4〉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로컬푸드(지역농식품) 이용)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4.5	39.8	45.7
성별	남성	15.8	41.3	42.9
	여성	13.2	38.3	48.6
연령	19~29세	24.7	40.9	34.4
	30대	14.5	45.2	40.3
	40대	11.9	41.0	47.1
	50대	11.5	35.9	52.5
	60대 이상	10.9	36.8	52.2
권역	수도권	16.9	41.4	41.7
	충청권	15.2	47.2	37.6
	호남권	11.7	39.8	48.5
	대경권	9.4	29.1	61.5
	동남권	17.8	36.8	45.4
	강원권	6.5	39.1	54.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8	42.1	42.1
	300~500만 원 미만	16.0	42.2	41.9
	500~700만 원 미만	14.5	37.2	48.3
	700만 원 이상	7.4	37.0	55.6
가구원 수	1인	20.3	43.4	36.4
	2인 이상	13.5	39.2	47.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5〉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국산농식품 이용)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6.7	28.6	64.7
성별	남성	7.9	29.2	62.8
	여성	5.5	27.9	66.6
연령	19~29세	8.1	30.6	61.3
	30대	9.7	32.8	57.5
	40대	7.1	28.1	64.8
	50대	5.1	25.3	69.6
	60대 이상	4.0	26.9	69.2
권역	수도권	7.0	25.5	67.5
	충청권	12.4	26.4	61.2
	호남권	5.3	31.6	63.2
	대경권	3.4	29.9	66.7
	동남권	4.0	34.5	61.5
	강원권	6.5	21.7	7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4	31.7	58.9
	300~500만 원 미만	7.8	29.2	63.0
	500~700만 원 미만	5.0	28.2	66.8
	700만 원 이상	3.7	22.2	74.1
가구원 수	1인	11.2	33.6	55.2
	2인 이상	6.0	27.8	66.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6〉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포장(포장재질, 과대포장 등)을 고려한 식품 구입)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0.4	46.8	42.8
성별	남성	13.0	49.4	37.5
	여성	7.7	44.1	48.2
연령	19~29세	18.3	44.1	37.6
	30대	11.3	49.5	39.2
	40대	8.1	41.0	51.0
	50대	6.9	45.2	47.9
	60대 이상	8.5	54.7	36.8
권역	수도권	9.6	47.8	42.7
	충청권	9.0	46.1	44.9
	호남권	8.8	48.5	42.7
	대경권	19.7	56.4	23.9
	동남권	6.9	39.7	53.4
	강원권	17.4	39.1	43.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3	52.0	32.7
	300~500만 원 미만	11.1	46.7	42.2
	500~700만 원 미만	8.9	44.1	46.9
	700만 원 이상	3.7	46.3	50.0
가구원 수	1인	18.2	48.3	33.6
	2인 이상	9.1	46.6	44.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7〉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식품 조리 및 보관)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0.4	50.9	38.7
성별	남성	13.0	52.8	34.2
	여성	7.7	49.0	43.3
연령	19~29세	16.1	60.2	23.7
	30대	12.4	50.5	37.1
	40대	8.1	48.1	43.8
	50대	6.9	44.7	48.4
	60대 이상	9.5	52.2	38.3
권역	수도권	10.2	51.3	38.5
	충청권	7.9	49.4	42.7
	호남권	11.1	50.9	38.0
	대경권	14.5	59.8	25.6
	동남권	8.0	49.4	42.5
	강원권	17.4	37.0	45.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9	55.9	29.2
	300~500만 원 미만	10.2	47.6	42.2
	500~700만 원 미만	8.7	50.8	40.5
	700만 원 이상	8.3	51.9	39.8
가구원 수	1인	15.4	58.0	26.6
	2인 이상	9.6	49.7	40.7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8〉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필요한 만큼 농식품을 구입하고, 조리)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5.4	34.2	60.4
성별	남성	6.5	37.0	56.5
	여성	4.3	31.4	64.4
연령	19~29세	10.8	41.9	47.3
	30대	4.3	36.6	59.1
	40대	3.3	35.2	61.4
	50대	3.2	33.6	63.1
	60대 이상	6.0	24.4	69.7
권역	수도권	5.4	27.4	67.2
	충청권	3.9	37.1	59.0
	호남권	6.4	36.8	56.7
	대경권	4.3	48.7	47.0
	동남권	5.2	34.5	60.3
	강원권	10.9	21.7	6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9	37.6	53.5
	300~500만 원 미만	5.7	33.4	60.8
	500~700만 원 미만	3.9	33.8	62.3
	700만 원 이상	2.8	31.5	65.7
가구원 수	1인	14.0	35.0	51.0
	2인 이상	4.0	34.1	62.0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79〉 성인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조리과정에서 버리는 부분을 적게 하려고 노력)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5.3	29.9	64.8
성별	남성	6.5	29.6	63.8
	여성	4.0	30.2	65.8
연령	19~29세	7.0	34.9	58.1
	30대	4.8	36.6	58.6
	40대	1.9	32.4	65.7
	50대	6.0	25.3	68.7
	60대 이상	7.0	21.4	71.6
권역	수도권	5.4	23.6	71.0
	충청권	3.4	30.3	66.3
	호남권	4.7	36.3	59.1
	대경권	5.1	41.9	53.0
	동남권	7.5	32.2	60.3
	강원권	6.5	8.7	84.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9	31.2	62.9
	300~500만 원 미만	5.7	29.5	64.8
	500~700만 원 미만	5.3	31.6	63.1
	700만 원 이상	2.8	23.1	74.1
가구원 수	1인	7.0	34.3	58.7
	2인 이상	5.0	29.2	65.8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80〉 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필요한 만큼 덜어 먹으려는 노력)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청소년)		7.2	31.7	61.2
연령	초등학생	4.4	32.0	63.5
	중학생	8.0	32.8	59.2
	고등학생	9.2	30.1	60.7

주 1)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81〉 성인·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4.5	29.1	66.4
성별	남성	5.9	28.5	65.6
	여성	3.0	29.8	67.2
연령	19~29세	8.1	31.2	60.8
	30대	7.0	29.6	63.4
	40대	1.4	29.5	69.0
	50대	2.8	29.0	68.2
	60대 이상	4.0	26.4	69.7
권역	수도권	4.5	22.6	72.9
	충청권	4.5	36.0	59.6
	호남권	3.5	29.2	67.3
	대경권	1.7	41.0	57.3
	동남권	8.0	32.2	59.8
가구 소득	강원권	2.2	4.3	93.5
	300만 원 미만	6.9	29.7	63.4
	300~500만 원 미만	3.9	29.2	66.9
	500~700만 원 미만	4.5	30.2	65.4
	700만 원 이상	1.9	24.1	74.1
가구원 수	1인	11.2	28.7	60.1
	2인 이상	3.4	29.2	67.4
전체(청소년)		4.8	27.7	67.5
연령	초등학생	4.4	27.6	68.0
	중학생	6.5	27.4	66.2
	고등학생	3.6	28.1	68.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82〉 성인·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은 포장)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9.5	33.2	47.3
성별	남성	22.1	34.8	43.1
	여성	16.8	31.6	51.6
연령	19~29세	31.7	35.5	32.8
	30대	22.0	34.9	43.0
	40대	15.2	31.4	53.3
	50대	14.3	32.3	53.5
	60대 이상	15.9	32.3	51.7
권역	수도권	22.0	34.4	43.6
	충청권	21.3	34.3	44.4
	호남권	10.5	34.5	55.0
	대경권	28.2	34.2	37.6
	동남권	17.8	32.2	50.0
	강원권	13.0	17.4	69.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7.3	34.7	48.0
	300~500만 원 미만	20.2	35.8	44.0
	500~700만 원 미만	19.8	31.0	49.2
	700만 원 이상	20.4	29.6	50.0
가구원 수	1인	23.8	32.2	44.1
	2인 이상	18.8	33.4	47.8
전체(청소년)		25.7	39.7	34.7
연령	초등학생	26.6	38.4	35.0
	중학생	18.9	46.8	34.3
	고등학생	31.6	33.7	34.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83〉 성인·청소년의 식품 소비·선택 시 항목별 실천 수준(음식점에서 적정량을 주문,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5.0	31.0	64.0
성별	남성	7.5	31.8	60.7
	여성	2.4	30.2	67.4
연령	19~29세	7.5	34.9	57.5
	30대	7.0	36.6	56.5
	40대	3.3	28.6	68.1
	50대	1.8	30.0	68.2
	60대 이상	6.0	25.9	68.2
권역	수도권	4.8	29.9	65.3
	충청권	3.4	36.0	60.7
	호남권	5.8	28.7	65.5
	대경권	5.1	37.6	57.3
	동남권 강원권	6.3 4.3	29.9 15.2	63.8 80.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9	32.2	60.9
	300~500만 원 미만	7.2	31.6	61.1
	500~700만 원 미만	2.5	29.3	68.2
	700만 원 이상	2.8	32.4	64.8
가구원 수	1인	8.4	36.4	55.2
	2인 이상	4.4	30.1	65.5
전체(청소년)		7.8	36.8	55.3
연령	초등학생	9.4	41.4	49.3
	중학생	7.5	33.8	58.7
	고등학생	6.6	35.2	58.2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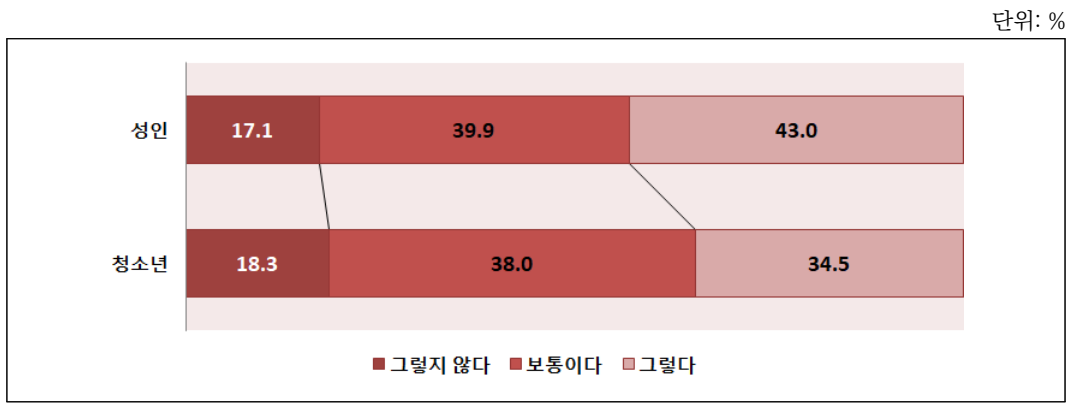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소비

○ 성인의 43.0%가 평소 농식품을 구입할 때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우선 선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p가 감소한 결과임. 성인은 주로 신선하거나, 품질/맛이 더 좋을 것 같아서(33.2%), 지역농업/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6.1%) 지역농식품을 소비하고 있었음. 청소년은 평소 농식품을 구입할 때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우선 선택하는 비중이 34.5%로 전년도(34.3%)와 유사하였음.

-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우선 선택하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이 47.4%로 남성에 비해 8.7%p가 크며, 50대(50.7%), 호남권(55.6%),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47.2%), 2인 이상 가구(44.5%)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청소년은 고등학생(36.7%)과 중학생(35.8%)이 초등학생(3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우선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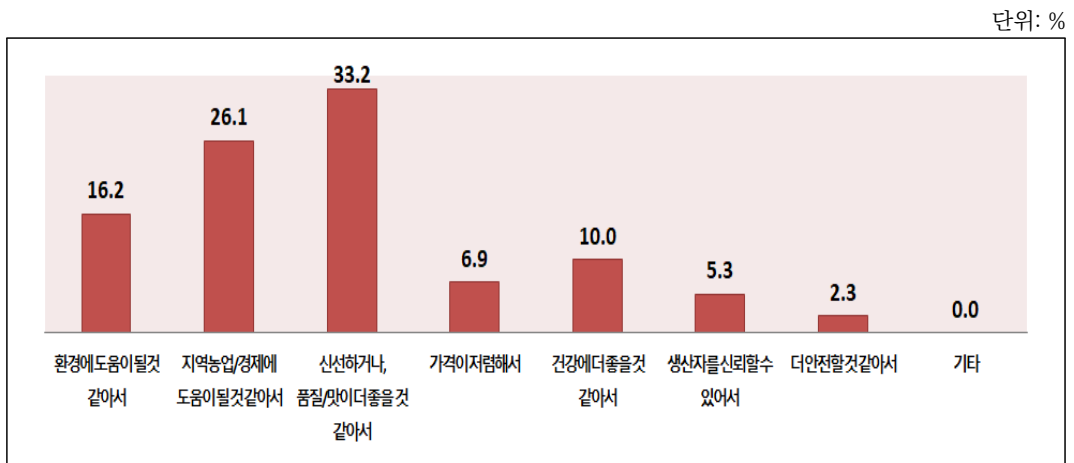
〈그림 3-61〉 성인·청소년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선택 정도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함'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그림 3-62〉 성인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소비 이유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84〉 성인·청소년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선택 정도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7.1	39.9	43.0
성별	남성	18.0	43.3	38.7
	여성	16.2	36.4	47.4
연령	19~29세	30.6	38.2	31.2
	30대	18.8	40.9	40.3
	40대	14.3	41.0	44.8
	50대	9.2	40.1	50.7
	60대 이상	14.4	39.3	46.3
권역	수도권	22.3	45.5	32.2
	충청권	12.4	44.4	43.3
	호남권	17.0	27.5	55.6
	대경권	13.7	38.5	47.9
	동남권	14.9	39.7	45.4
	강원권	17.4	34.8	47.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9.3	43.1	37.6
	300~500만 원 미만	14.8	42.2	43.1
	500~700만 원 미만	18.2	37.2	44.7
	700만 원 이상	16.7	36.1	47.2
가구원 수	1인	20.3	45.5	34.3
	2인 이상	16.6	39.0	44.5
전체(청소년)		18.3	47.2	34.5
연령	초등학생	21.7	47.3	31.0
	중학생	16.9	47.3	35.8
	고등학생	16.3	46.9	36.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85〉 성인의 로컬푸드(지역농식품) 우선 소비 이유

단위: %

구분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역 농업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선 하거나, 품질/맛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가격이 저렴해서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생산자를 신뢰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기타
전체(성인)		16.2	26.1	33.2	6.9	10.0	5.3	2.3	0.0
성별	남성	16.9	28.2	31.7	7.2	9.1	5.0	1.9	0.0
	여성	15.5	24.0	34.6	6.6	10.9	5.6	2.7	0.0
연령	19~29세	21.2	26.5	27.9	8.3	10.4	3.7	2.0	0.0
	30대	15.3	31.1	31.2	7.2	7.4	4.7	3.1	0.0
	40대	19.3	25.4	31.4	7.5	10.0	4.1	2.1	0.0
	50대	12.5	24.8	35.8	6.8	10.7	7.3	2.1	0.0
	60대 이상	14.3	23.8	37.6	5.1	11.1	6.0	2.1	0.0
권역	수도권	18.8	20.1	39.4	4.6	9.9	5.8	1.4	0.0
	충청권	18.6	31.4	21.6	9.1	11.3	5.4	2.5	0.0
	호남권	21.4	31.6	29.1	7.5	5.4	3.5	1.6	0.0
	대경권	9.0	27.8	39.0	5.6	8.2	7.2	3.1	0.0
	동남권	11.7	23.8	33.9	9.6	13.2	4.6	3.2	0.0
	강원권	7.4	27.9	36.4	4.1	14.5	6.0	3.6	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6	22.9	32.8	6.2	10.6	9.2	2.7	0.0
	300~500만 원 미만	15.9	26.7	35.4	6.6	8.5	4.2	2.7	0.0
	500~700만 원 미만	16.6	26.9	30.5	7.8	11.5	4.6	2.0	0.0
	700만 원 이상	17.1	27.7	35.5	6.3	8.5	3.8	1.1	0.0
가구원 수	1인	16.4	20.8	35.0	7.1	12.3	7.5	0.8	0.0
	2인 이상	16.2	27.0	32.9	6.9	9.6	4.9	2.5	0.0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7:3)를 적용한 결과임.

2.3.5. 환경 교육·체험 경험 여부와 관련 인식

○ 성인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한 8.4%가 최근 3년간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 교육 또는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성인 비중은 65.5%로 전년 대비 15.4%p나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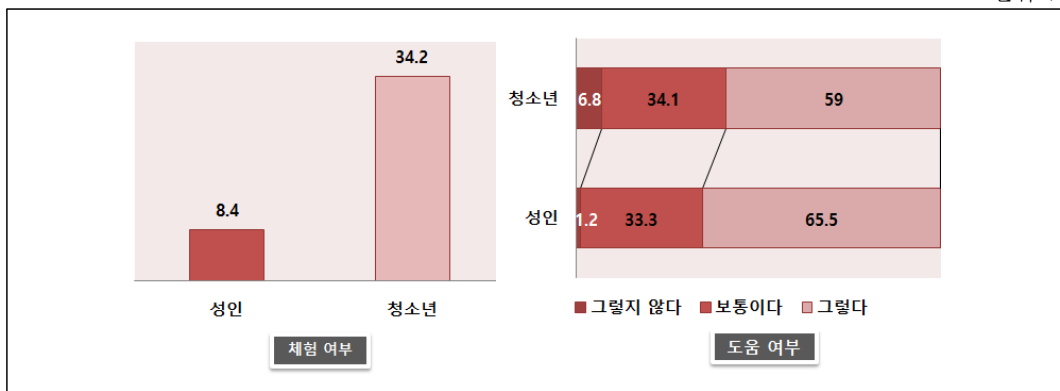
- 환경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10.1%), 30~40대(약 11%), 호남권(20.5%),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10.9%), 2인 이상 가구(9.0%)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교육 또는 체험을 받은 경험이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72.0%), 60대 이상(81.8%), 대경권(100.0%),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77.8%), 2인 이상 가구(66.2%)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은 최근 3년간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 교육 또는 체험을 받은 경험이 34.2%로 전년 대비 3.4%p가 증가함. 그러나 이러한 교육·체험이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9.0%로 전년 대비 11.2%p나 감소함.

- 환경 교육 또는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고등학생이 71.4%로 상대적으로 컸으며, 환경 교육·체험 경험이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도 고등학생(67.9%)이 높은 편이었음.

〈그림 3-63〉 성인·청소년의 환경 교육·체험 경험 여부와 식생활 실천 도움 정도

단위: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도움 정도는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86〉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환경교육 및 체험 참가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성인)		8.4	91.6
성별	남성	6.7	93.3
	여성	10.1	89.9
연령	19~29세	8.6	91.4
	30대	11.3	88.7
	40대	11.4	88.6
	50대	5.5	94.5
	60대 이상	5.5	94.5
지역	수도권	8.6	91.4
	충청권	7.3	92.7
	호남권	20.5	79.5
	대경권	2.6	97.4
	동남권	1.1	98.9
	강원권	8.7	91.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9	93.1
	300~500만 원 미만	6.6	93.4
	500~700만 원 미만	10.9	89.1
	700만 원 이상	8.3	91.7
가구원 수	1인	4.9	95.1
	2인 이상	9.0	91.0
전체(청소년)		34.2	65.8
연령	초등학생	34.0	66.0
	중학생	39.8	60.2
	고등학생	28.6	71.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표 3-87〉 성인·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환경 교육·체험의 환경을 고려하는 식생활 실천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2	33.3	65.5
성별	남성	0.0	44.1	55.9
	여성	2.0	26.0	72.0
연령	19~29세	0.0	31.3	68.8
	30대	0.0	42.9	57.1
	40대	4.2	37.5	58.3
	50대	0.0	25.0	75.0
	60대 이상	0.0	18.2	81.8
권역	수도권	0.0	44.4	55.6
	충청권	0.0	46.2	53.8
	호남권	0.0	22.9	77.1
	대경권	0.0	0.0	100.0
	동남권	50.0	50.0	0.0
	강원권	0.0	25.0	75.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42.9	57.1
	300~500만 원 미만	0.0	40.9	59.1
	500~700만 원 미만	2.6	28.2	69.2
	700만 원 이상	0.0	22.2	77.8
가구원 수	1인	0.0	42.9	57.1
	2인 이상	1.3	32.5	66.2
전체(청소년)		6.8	34.1	59.0
연령	초등학생	5.8	40.6	53.6
	중학생	7.5	35.0	57.5
	고등학생	7.1	25.0	67.9

주 1) 식생활 관련 환경 교육·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2.4. 가정과 지역에서 전통 식생활 실천

가) 전통 식생활 체험과 관련 인식

○ 성인은 최근 3년간 11.6%가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62.9%가 이러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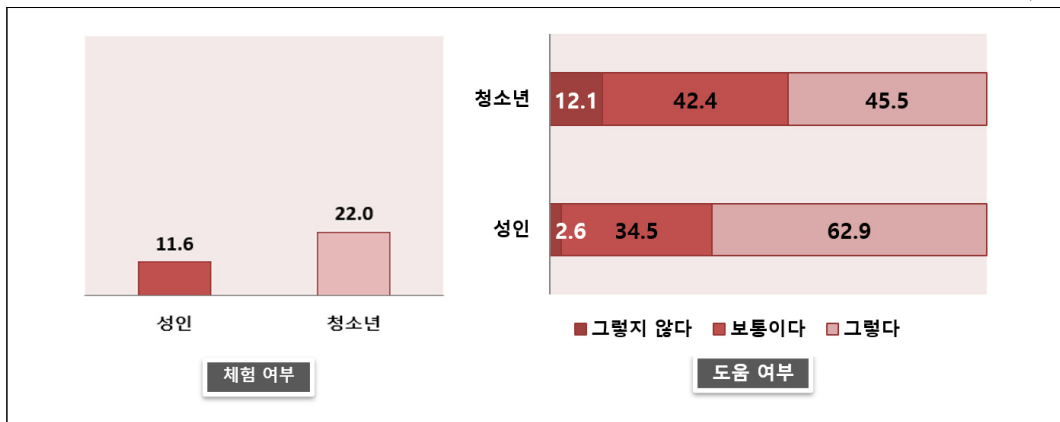
-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한 성인의 비중은 전년 대비 4.9%p가 증가하였으며, 전통 식생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2021년 (62.7%)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한 성인의 비중은 여성(14.4%), 40대(15.2%), 호남권(16.4%),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14.2%), 2인 이상 가구(12.1%)에서 큰 편이었음. 이러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여성(69.0%), 60대 이상(86.4%), 충청권(76.5%)과 호남권(78.6%),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76.9%), 2인 이상 가구(64.4%)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 중에서 최근 3년간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한 비중은 전년 대비 3.0%p가 증가한 22.0%이었으며, 이러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전년도(62.7%)와 유사한 수준(62.9%)이었음.

-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중은 초등학생(25.1%)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러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도 초등학생 (56.9%)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그림 3-64〉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와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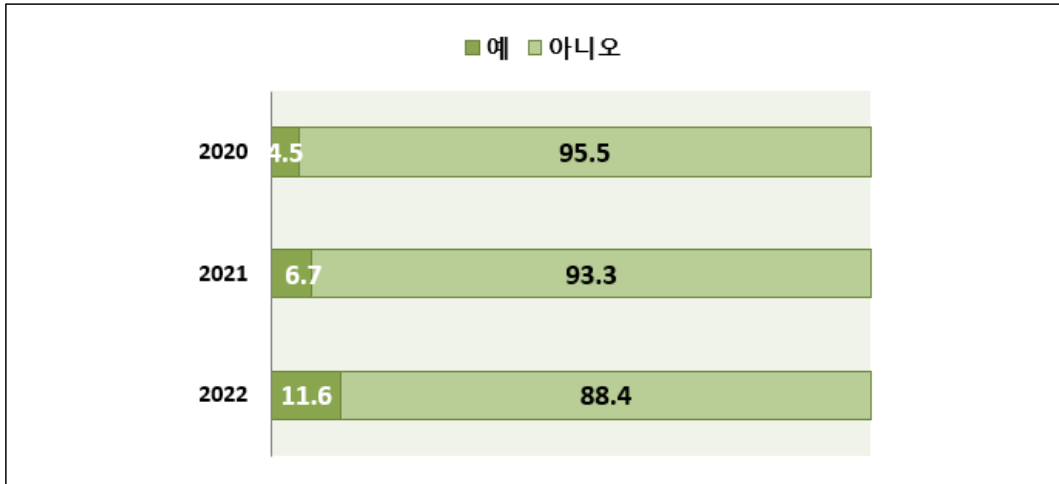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경험 여부는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그림 3-65〉 성인의 연도별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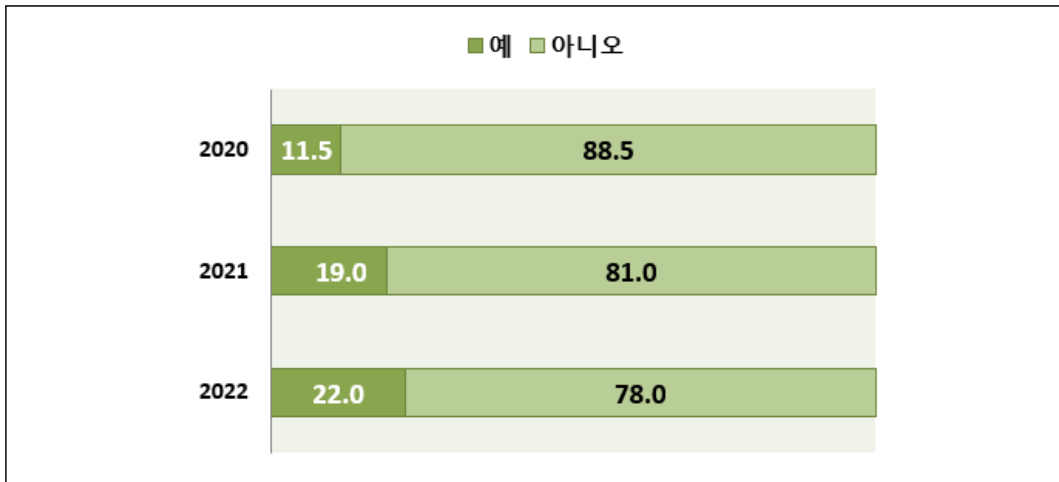
단위: %



주: 2020~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66〉 청소년의 연도별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 비교

단위: %



주: 2020~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88〉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성인)		11.6	88.4
성별	남성	8.9	91.1
	여성	14.4	85.6
연령	19~29세	8.1	91.9
	30대	10.2	89.8
	40대	15.2	84.8
	50대	12.9	87.1
	60대 이상	10.9	89.1
권역	수도권	15.3	84.7
	충청권	9.6	90.4
	호남권	16.4	83.6
	대경권	13.7	86.3
	동남권	.6	99.4
	강원권	13.0	87.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4	93.6
	300~500만 원 미만	14.2	85.8
	500~700만 원 미만	12.6	87.4
	700만 원 이상	10.2	89.8
가구원 수	1인	8.4	91.6
	2인 이상	12.1	87.9
전체(청소년)		22.0	78.0
연령	초등학생	25.1	74.9
	중학생	21.4	78.6
	고등학생	19.4	80.6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표 3-89〉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의 전통 식생활 계승·실천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6	34.5	62.9
성별	남성	0.0	46.7	53.3
	여성	4.2	26.8	69.0
연령	19~29세	13.3	40.0	46.7
	30대	0.0	31.6	68.4
	40대	3.1	46.9	50.0
	50대	0.0	35.7	64.3
	60대 이상	0.0	13.6	86.4
권역	수도권	6.3	31.3	62.5
	충청권	0.0	23.5	76.5
	호남권	0.0	21.4	78.6
	대경권	0.0	68.8	31.3
	동남권	0.0	100.0	0.0
	강원권	0.0	50.0	5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23.1	76.9
	300~500만 원 미만	2.1	42.6	55.3
	500~700만 원 미만	4.4	28.9	66.7
	700만 원 이상	0.0	36.4	63.6
가구원 수	1인	0.0	50.0	50.0
	2인 이상	2.9	32.7	64.4
전체(청소년)		12.1	42.4	45.5
연령	초등학생	5.9	37.3	56.9
	중학생	16.3	53.5	30.2
	고등학생	15.8	36.8	47.4

주 1) 전통 식생활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경험 여부는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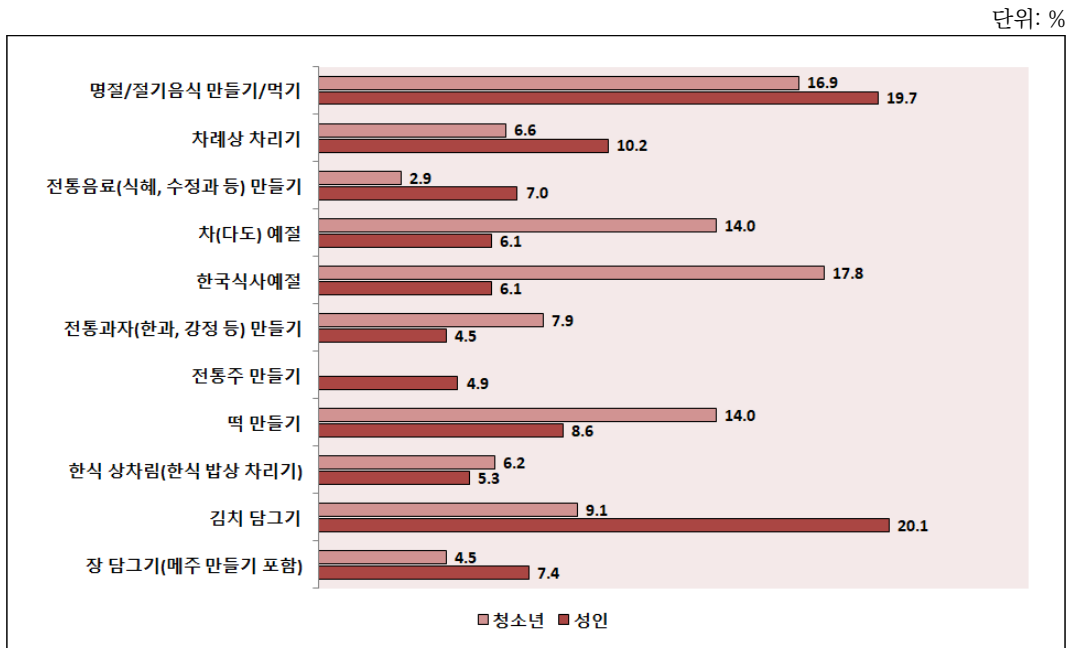
○ 성인은 최근 3년간 주로 김치 담그기(20.1%),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19.7%), 차례상 차리기(10.2%)와 관련된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하였음.

- 김치 담그기 체험을 경험한 비중은 여성(20.8%), 60대 이상(24.4%), 강원권(23.1%),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23.3%), 2인 이상 가구(20.6%),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는 여성(20.1%), 40대 (26.1%), 수도권(26.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26.7%), 1인 가구(23.1%), 차례상 차리기는 남성(15.3%), 30대(15.8%), 동남권(50.0%),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13.3%), 2인 이상 가구(11.0%)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은 다양한 전통 식생활 체험 중에서 최근 3년간 주로 한국식사예절(17.8%), 차(다도)예절(14.0%), 떡 만들기(14.0%)를 경험한 비중이 높았음.

- 한국식사예절, 차(다도)예절, 떡 만들기에 관한 체험을 경험한 비중에서 초등학생이 각각 19.4%, 16.1%, 19.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그림 3-67〉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종류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90〉 성인·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 경험 종류

단위: %

구분		장 담그기 (매주 만들기 포함)	김치 담그기	한식 상차림 (한식 밥상 차리기)	떡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전통 과자 (한과, 강정 등) 만들기	한국 식사 예절	차 (다도) 예절	전통 음료 (식혜, 수정과 등) 만들기	차례상 차리기	명절/ 절기 음식 만들기/ 먹기	기타
전체(성인)		7.4	20.1	5.3	8.6	4.9	4.5	6.1	6.1	7.0	10.2	19.7	0.0
성별	남성	5.9	18.8	7.1	7.1	5.9	7.1	5.9	3.5	4.7	15.3	18.8	0.0
	여성	8.2	20.8	4.4	9.4	4.4	3.1	6.3	7.5	8.2	7.5	20.1	0.0
연령	19~29세	12.9	16.1	9.7	9.7	3.2	6.5	3.2	6.5	3.2	16.1	12.9	0.0
	30대	5.3	10.5	5.3	15.8	7.9	2.6	10.5	7.9	2.6	15.8	15.8	0.0
	40대	1.4	21.7	7.2	7.2	5.8	5.8	5.8	5.8	2.9	10.1	26.1	0.0
	50대	8.2	23.0	3.3	8.2	1.6	4.9	3.3	4.9	11.5	11.5	19.7	0.0
	60대 이상	13.3	24.4	2.2	4.4	6.7	2.2	8.9	6.7	13.3	0.0	17.8	0.0
권역	수도권	2.9	22.5	2.9	3.9	3.9	2.0	3.9	8.8	10.8	11.8	26.5	0.0
	충청권	16.1	12.9	6.5	16.1	6.5	16.1	0.0	3.2	3.2	12.9	6.5	0.0
	호남권	11.9	18.6	8.5	13.6	6.8	5.1	10.2	3.4	6.8	1.7	13.6	0.0
	대경권	5.4	21.6	8.1	8.1	2.7	0.0	8.1	5.4	2.7	16.2	21.6	0.0
	동남권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강원권	7.7	23.1	0.0	7.7	7.7	7.7	7.7	7.7	0.0	7.7	23.1	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3	23.3	3.3	10.0	3.3	0.0	3.3	3.3	10.0	3.3	26.7	0.0
	300~500만 원 미만	5.6	20.0	6.7	7.8	6.7	6.7	3.3	4.4	4.4	13.3	21.1	0.0
	500~700만 원 미만	7.2	21.6	5.2	8.2	2.1	4.1	10.3	7.2	8.2	9.3	16.5	0.0
	700만 원 이상	7.4	11.1	3.7	11.1	11.1	3.7	3.7	11.1	7.4	11.1	18.5	0.0
가구원 수	1인	7.7	15.4	3.8	7.7	11.5	3.8	7.7	11.5	3.8	3.8	23.1	0.0
	2인 이상	7.3	20.6	5.5	8.7	4.1	4.6	6.0	5.5	7.3	11.0	19.3	0.0
전체(청소년)		4.5	9.1	6.2	14.0	-	7.9	17.8	14.0	2.9	6.6	16.9	0.0
연령	초등학생	2.2	5.4	5.4	19.4	-	6.5	19.4	16.1	1.1	5.4	19.4	0.0
	중학생	3.9	13.2	5.3	10.5	-	10.5	17.1	11.8	5.3	3.9	18.4	0.0
	고등학생	8.2	9.6	8.2	11.0	-	6.8	16.4	13.7	2.7	11.0	12.3	0.0

-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3) 최근 3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함.

나) 전통 식생활·식문화 실천·계승

○ 성인은 가정에서 주로 직접 실천 또는 계승되는 전통 식생활로 김치담그기(22.5%),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19.8%), 한식 상차림(한식 밥상 차리기)(15.6%), 차례상 차리기(15.4%)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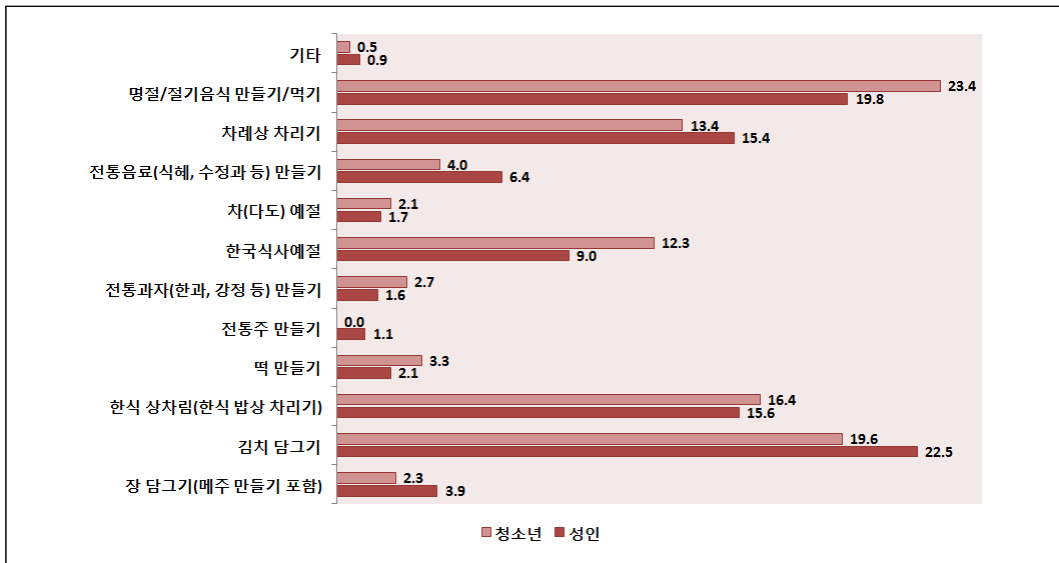
- 김치 담그기는 응답자 유형별로 대체로 20%대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는 40대(23.0%), 수도권(25.6%),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25.6%), 한식 상차림(한식 밥상 차리기)은 30대(16.5%), 충청권과 동남권(20.5% 내외),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16.1%)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은 주로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23.4%), 김치 담그기(19.6%), 한식 상차림(한식 밥상 차리기)(16.4%) 등을 가정에서 실천·계승하고 있다고 응답함.

- 청소년의 경우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는 초·중·고등학생(23~24%), 김치 담그기는 중학생(22.2%), 한식 상차림(한식 밥상 차리기)은 초·중·고등학생(16~17%)이 평소 가정에서 직접 실천하거나 계승하는 비중이 큰 편이었음.

〈그림 3-68〉 성인·청소년의 가정 내 실천 및 계승하는 전통 식생활 종류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91〉 성인·청소년의 가정 내 실천 및 계승하는 전통 식생활 종류

단위: %

구분	장 담그기 (매주 만들기 포함)	김치 담그기	한식 상차림 (한식 밥상 차리기)	떡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전통과자 (한과, 강정 등) 만들기	한국식사 예절	차 (다도)/ 예절	전통 음료 (식혜, 수정과 등)	차례상 차리기	명절/ 절기 음식 만들기/ 먹기	기타	
전체(성인)	3.9	22.5	15.6	2.1	1.1	1.6	9.0	1.7	6.4	15.4	19.8	0.9	
성별	남성	2.8	22.1	15.3	2.1	1.5	1.6	10.1	1.8	5.4	16.8	0.9	
	여성	4.9	22.8	15.8	2.1	0.7	1.6	8.0	1.6	7.3	14.2	1.0	
연령	19~29세	2.5	23.8	14.5	1.8	1.0	0.8	10.5	1.3	5.3	16.3	2.0	
	30대	2.9	20.0	16.5	3.2	1.9	1.2	10.9	3.4	4.1	13.6	2.7	
	40대	1.7	22.1	15.2	1.3	1.1	1.7	9.9	2.1	5.4	15.7	0.9	
	50대	3.6	22.3	15.8	1.3	0.7	1.8	8.3	1.1	7.8	17.6	0.0	
	60대 이상	7.5	23.8	15.6	3.1	1.0	2.1	6.6	1.0	8.1	13.6	17.7	0.0
권역	수도권	3.1	22.7	11.1	1.5	0.9	1.4	4.9	1.4	9.2	16.5	1.7	
	충청권	2.9	22.7	20.6	4.5	1.9	2.7	8.3	1.9	5.9	9.6	18.7	0.3
	호남권	5.2	25.2	11.6	3.5	2.5	2.7	9.4	3.0	7.4	12.9	15.8	0.7
	대경권	5.7	21.9	19.8	1.5	0.0	0.6	14.4	0.6	4.2	16.8	14.4	0.3
	동남권	2.6	19.7	20.3	0.6	0.2	0.9	11.7	1.1	3.0	19.9	19.2	0.9
강원권	7.7	23.8	13.1	1.5	1.5	1.5	11.5	3.8	5.4	13.8	16.2	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25.5	15.1	2.9	1.0	1.0	9.8	1.5	5.8	14.9	16.4	0.8
	300~500만 원 미만	4.4	22.3	15.4	2.1	1.2	2.1	9.5	1.5	6.4	14.5	19.0	1.6
	500~700만 원 미만	3.1	21.4	15.8	2.1	1.2	2.0	8.6	2.0	6.9	15.4	20.8	0.7
	700만 원 이상	2.2	21.2	16.1	0.7	0.4	0.0	7.0	1.5	6.2	19.0	25.6	0.0
가구원 수	1인	4.2	22.1	15.6	2.1	1.7	1.0	11.8	2.8	6.9	12.5	17.0	2.4
	2인 이상	3.9	22.6	15.6	2.1	1.0	1.7	8.6	1.5	6.4	15.8	20.2	0.7
전체(청소년)	2.3	19.6	16.4	3.3	-	2.7	12.3	2.1	4.0	13.4	23.4	0.5	
연령	초등학생	1.5	17.5	16.7	3.2	-	1.7	13.7	3.0	3.5	14.0	24.2	1.0
	중학생	1.6	22.2	17.1	3.4	-	2.7	11.0	1.1	3.6	14.2	22.9	0.2
	고등학생	3.7	19.0	15.5	3.3	-	3.5	12.2	2.4	4.8	12.2	23.1	0.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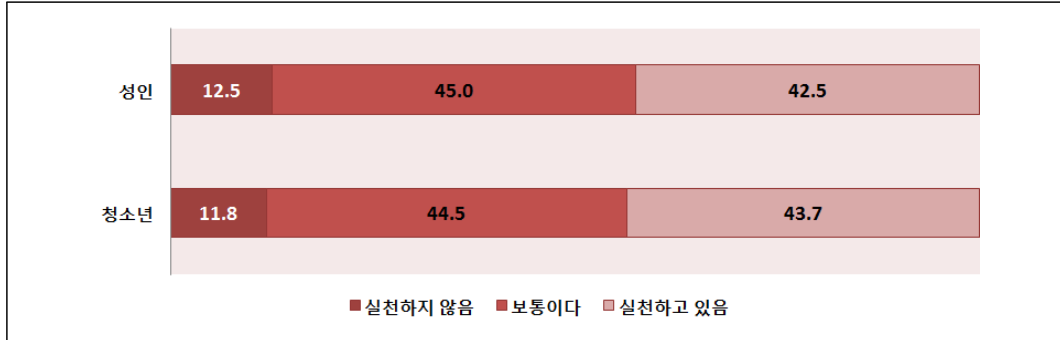
○ 성인은 평소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를 실천하는 비중이 42.5%였으며, 청소년은 43.7%로
성인과 청소년이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 성인은 여성(50.4%), 50대~60대 이상(약 52% 내외), 충청권(52.2%),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47.8%), 2인 이상 가구(45.2%)에서 평소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를
실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 청소년은 고등학생의 가정 내 전통 식문화 실천 비중이 50.0%로 중학생(41.8%), 초
등학생(39.4%)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그림 3-69〉 성인·청소년의 평소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 실천 수준

단위: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하고 있음'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92〉 성인·청소년의 평소 지역과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 계승 및 실천 수준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2.5	45.0	42.5
성별	남성	15.8	49.4	34.8
	여성	9.1	40.5	50.4
연령	19~29세	21.5	43.0	35.5
	30대	18.8	46.2	34.9
	40대	7.6	56.2	36.2
	50대	8.3	40.1	51.6
	60대 이상	8.0	39.3	52.7
권역	수도권	17.5	43.9	38.5
	충청권	9.0	38.8	52.2
	호남권	7.6	51.5	40.9
	대경권	14.5	49.6	35.9
	동남권	10.9	44.3	44.8
가구 소득	강원권	10.9	43.5	45.7
	300만 원 미만	14.9	46.0	39.1
	300~500만 원 미만	13.6	47.9	38.6
	500~700만 원 미만	9.5	42.7	47.8
가구원 수	700만 원 이상	14.8	41.7	43.5
	1인	20.3	53.1	26.6
	2인 이상	11.2	43.6	45.2
전체(청소년)		11.8	44.5	43.7
연령	초등학생	13.3	47.3	39.4
	중학생	11.9	46.3	41.8
	고등학생	10.2	39.8	50.0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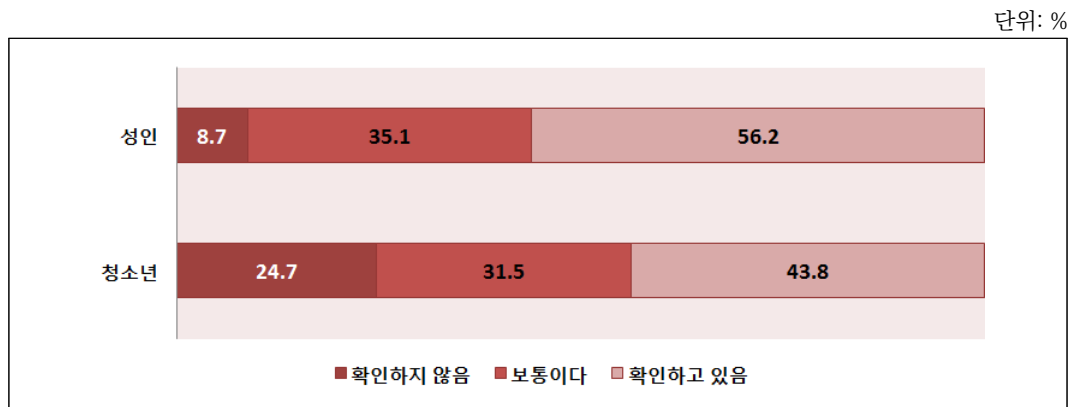
2.5.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가) 농식품 표시 및 인증 확인

○ 성인의 56.2%가 평소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12.4%p 작은 43.8%가 평소 표시 및 인증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음. 표시 및 인증 사항을 확인하는 성인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3.1%p가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은 2.5%p가 감소함.

- 성인의 경우 여성(63.4%), 40~60대 이상(59~62%), 강원권(65.2%),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63.1%), 2인 이상 가구(58.5%)에서 상대적으로 표시 및 인증 사항을 확인하는 비중이 큰 편이었음.
- 표시 및 인증 사항을 확인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고등학생이 46.4%로 초등학생(40.4%)과 중학생(44.8%)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그림 3-70〉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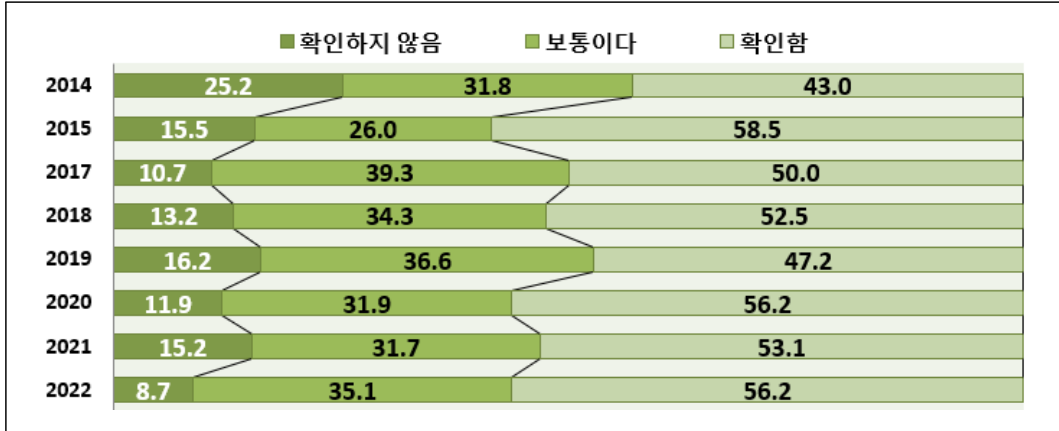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확인하지 않음'은 '1=전혀 확인하지 않음'과 '2=확인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확인하고 있음'은 '4=확인하고 있음'과 '5=항상 확인함'을 포함함.

〈그림 3-71〉 성인의 연도별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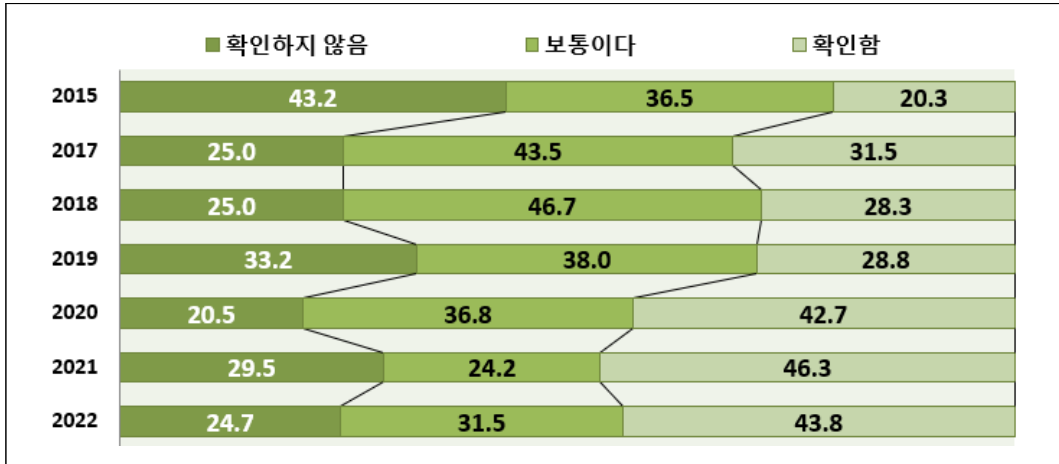


주 1) 2014~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확인하지 않음'은 '1=전혀 확인하지 않음'과 '2=확인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확인함'은 '4=확인함'과 '5=항상 확인함'을 포함함.

〈그림 3-72〉 청소년의 연도별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비교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확인하지 않음'은 '1=전혀 확인하지 않음'과 '2=확인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확인함'은 '4=확인함'과 '5=항상 확인함'을 포함함.

〈표 3-93〉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 확인 정도

단위: %

구분		확인하지 않음	보통이다	확인하고 있음
전체(성인)		8.7	35.1	56.2
성별	남성	11.5	39.3	49.2
	여성	5.9	30.8	63.4
연령	19~29세	16.7	35.5	47.8
	30대	10.2	39.8	50.0
	40대	2.9	34.8	62.4
	50대	4.6	35.0	60.4
	60대 이상	10.4	30.8	58.7
권역	수도권	8.3	36.0	55.7
	충청권	10.7	36.0	53.4
	호남권	6.4	38.6	55.0
	대경권	7.7	42.7	49.6
	동남권	9.2	27.6	63.2
	강원권	13.0	21.7	65.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9	42.6	42.6
	300~500만 원 미만	6.0	36.4	57.5
	500~700만 원 미만	7.8	29.1	63.1
	700만 원 이상	8.3	37.0	54.6
가구원 수	1인	11.2	46.2	42.7
	2인 이상	8.3	33.3	58.5
전체(청소년)		24.7	31.5	43.8
연령	초등학생	28.6	31.0	40.4
	중학생	18.4	36.8	44.8
	고등학생	27.0	26.5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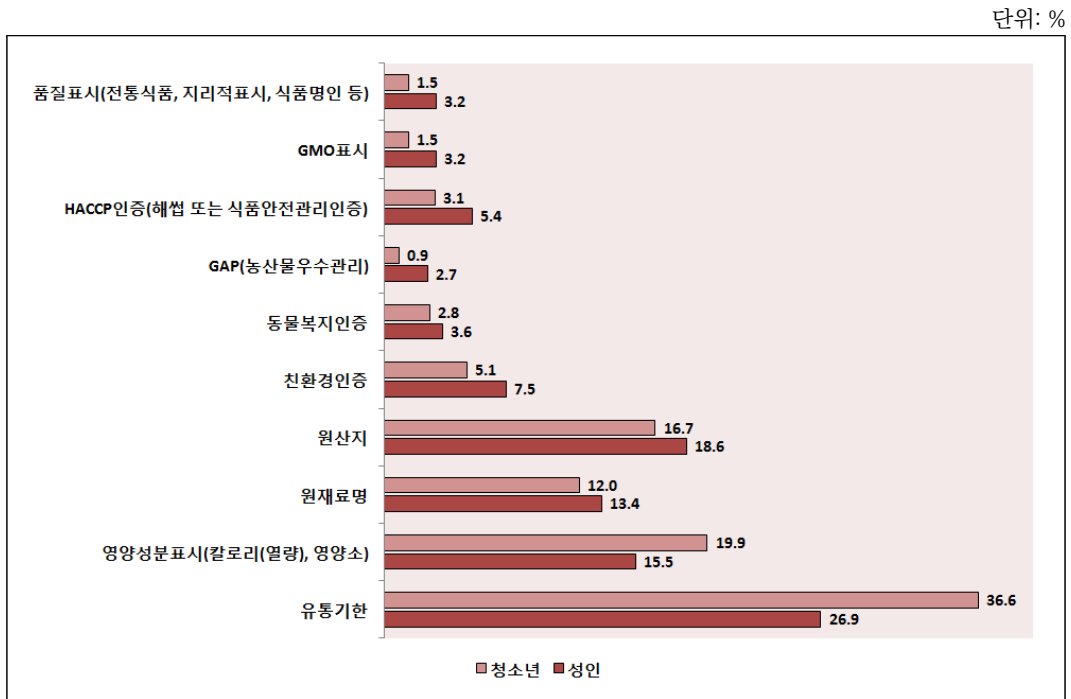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확인하지 않음'은 '1=전혀 확인하지 않음'과 '2=확인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확인하고 있음'은 '4=확인하고 있음'과 '5=항상 확인함'을 포함함.

○ 성인은 농식품 표시 및 인증 사항 중에서 주로 유통기한(26.9%), 원산지(18.6%), 영양성분표시(15.5%), 원재료명(13.4%)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도 유통기한(36.6%), 영양성분표시(19.9%), 원산지(16.7%), 원재료명(12.0%) 순으로 평소 확인한다는 비중이 컸음.

- 성인 중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비중은 남성(29.4%), 19~29세(28.1%), 동남권(35.7%), 원산지는 남성(19.7%), 19~29세(20.0%), 충청권(21.2%), 가구소득 300~700만 원 미만(19.1%), 2인 이상 가구(19.0%), 영양성분표시는 30대(17.4%), 호남권(17.8%),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16.7%), 원재료명은 40대(14.7%), 동남권(17.1%),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17.2%)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의 경우 유통기한은 중학생(39.4%), 영양성분표시는 초·중·고등학생(20% 내외), 원산지는 초·중·고등학생(16~17%), 원재료명은 고등학생(13.6%)이 평소 확인한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큰 편이었음.

〈그림 3-73〉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확인하는 표시 및 인증 사항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94〉 성인·청소년의 식료품 구입 시 확인하는 표시 및 인증 사항

단위: %

구분	유통 기한	영양 성분 표시	원재료명	원산지	친환경 인증	동물 복지 인증	GAP	HACCP 인증	GMO 표시	품질 표시	
전체(성인)	26.9	15.5	13.4	18.6	7.5	3.6	2.7	5.4	3.2	3.2	
성별	남성	29.4	15.9	13.2	19.7	6.4	2.6	2.5	5.3	2.5	2.5
	여성	24.8	15.2	13.6	17.7	8.4	4.4	2.9	5.5	3.8	3.7
연령	19~29세	28.1	15.2	12.9	20.0	6.0	3.9	2.1	5.4	4.1	2.4
	30대	25.5	17.4	13.9	16.1	8.4	3.8	3.3	5.5	3.5	2.6
	40대	27.1	15.2	14.7	19.2	6.7	3.3	2.2	5.4	3.0	3.2
	50대	26.4	14.7	13.2	19.5	7.9	3.8	3.2	5.6	2.8	2.8
	60대 이상	27.5	15.2	12.1	18.2	8.3	3.1	2.6	5.1	2.9	5.0
권역	수도권	24.0	17.3	15.5	18.8	8.2	3.7	2.5	4.7	2.3	3.0
	충청권	27.1	17.3	7.2	21.2	7.9	3.9	3.9	3.7	4.2	3.5
	호남권	26.0	17.8	13.8	17.1	7.9	3.3	2.9	6.6	2.9	1.7
	대경권	26.2	8.8	11.4	17.7	10.4	4.9	2.9	7.0	5.5	5.2
	동남권	35.7	15.2	17.1	17.4	2.2	2.2	1.0	3.9	1.7	3.7
	강원권	25.5	9.0	12.4	20.0	7.6	2.8	4.1	11.7	5.5	1.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8.6	13.9	12.2	17.4	8.1	2.5	3.5	6.8	3.5	3.5
	300~500만원 미만	26.7	15.3	12.8	19.1	7.5	3.7	2.4	5.9	3.3	3.4
	500~700만원 미만	26.0	16.7	13.4	19.1	7.5	4.0	2.7	4.5	3.2	2.8
	700만 원 이상	27.6	14.7	17.2	17.6	6.6	3.4	2.5	4.7	2.5	3.1
가구 원 수	1인	26.7	15.6	13.6	16.4	8.7	2.1	2.8	6.4	4.4	3.3
	2인 이상	26.9	15.5	13.4	19.0	7.3	3.8	2.7	5.2	3.0	3.1
전체(청소년)	36.6	19.9	12.0	16.7	5.1	2.8	0.9	3.1	1.5	1.5	
연령	초등학생	36.9	19.2	11.6	17.4	4.7	2.3	1.2	3.8	1.5	1.5
	중학생	39.4	20.6	10.7	16.6	4.0	2.4	0.3	3.5	1.1	1.3
	고등학생	33.6	19.8	13.6	16.0	6.5	3.5	1.4	2.2	1.9	1.6

주 1)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 결과임.

나) 지속가능한 식생활 인지와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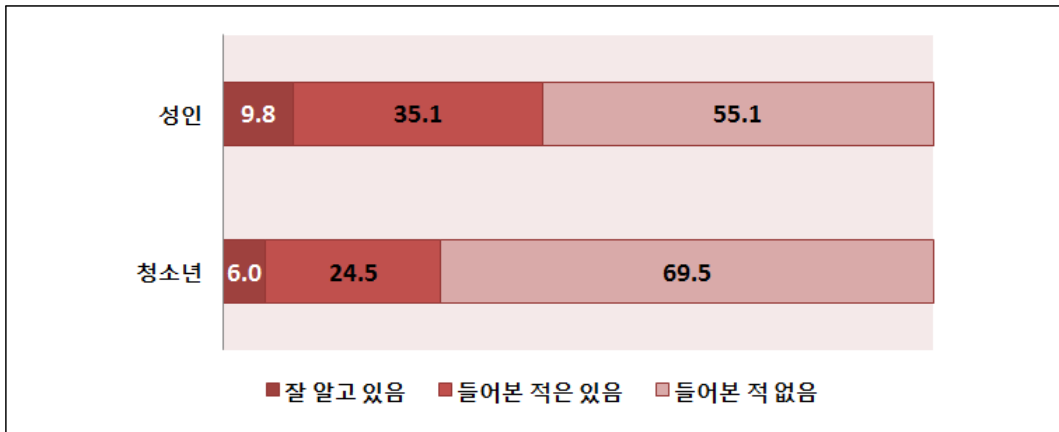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는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높지 않았음.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잘 알고 있음’)하는 성인의 비중은 9.8%였으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3.8%p가 낮은 6.0%였음.
 - 성인 중에서 여성(11.3%), 60대 이상(14.4%), 충청권(16.3%),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12.0%)에서 상대적으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비중이 높았음.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고등학생이 10.7%로 초등학생(3.9%)과 중학생(3.5%)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글상자 3〉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

-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식품의 순환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
- (환경) 식품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실천
- (건강) 건강한 삶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 실천
- (배려)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식생활 전(全) 과정에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 실천

〈그림 3-74〉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개념 인지 여부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95〉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개념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음	들어본 적 없음
전체(성인)		9.8	35.1	55.1
성별	남성	8.3	34.2	57.5
	여성	11.3	36.0	52.6
연령	19~29세	7.5	32.8	59.7
	30대	6.5	37.6	55.9
	40대	10.0	38.6	51.4
	50대	10.1	33.6	56.2
	60대 이상	14.4	32.8	52.7
권역	수도권	8.6	33.1	58.3
	충청권	16.3	33.1	50.6
	호남권	13.5	47.4	39.2
	대경권	9.4	28.2	62.4
	동남권	1.1	29.9	69.0
	강원권	13.0	47.8	39.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4	34.2	56.4
	300~500만 원 미만	8.1	35.2	56.6
	500~700만 원 미만	12.0	34.1	53.9
	700만 원 이상	8.3	39.8	51.9
가구원 수	1인	9.8	29.4	60.8
	2인 이상	9.8	36.1	54.1
전체(청소년)		6.0	24.5	69.5
연령	초등학생	3.9	14.8	81.3
	중학생	3.5	26.9	69.7
	고등학생	10.7	32.1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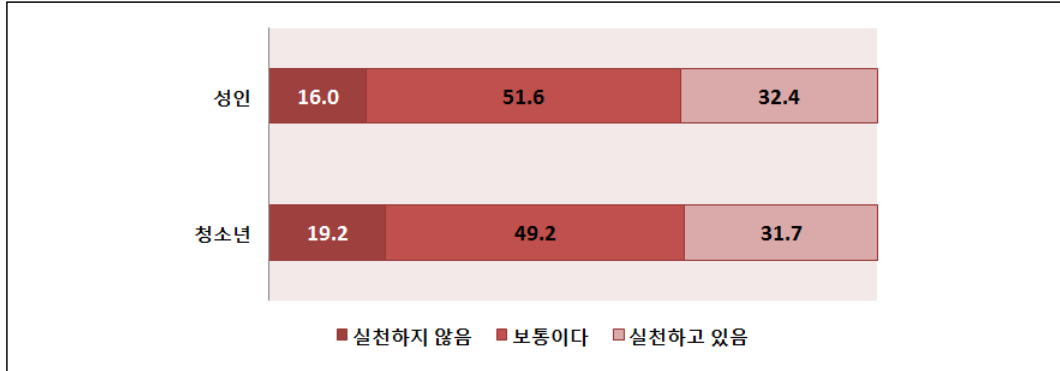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성인은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중이 32.4%, 청소년은 31.7%로 성인과 청소년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성인은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수준이 전년 대비 3.7%p가 감소하였으며, 청소년도 2.0%p가 감소함.

- 성인 중에서 여성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비중이 36.6%로 남성에 비해 8.3%p가 컸으며, 60대 이상(37.3%), 충청권(42.1%), 가구소득 500~700만 원 미만(39.4%), 2인 이상 가구(33.8%)에서 큰 편이었음.
- 청소년의 경우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하는 비중이 고등학생이 37.2%로 초등학생(27.6%), 중학생(30.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그림 3-75〉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수준

단위: %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하고 있음'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표 3-96〉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수준

단위: %

구분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
전체(성인)		16.0	51.6	32.4
성별	남성	18.2	53.6	28.3
	여성	13.8	49.6	36.6
연령	19~29세	22.6	54.3	23.1
	30대	16.1	56.5	27.4
	40대	17.1	45.7	37.1
	50대	13.4	51.2	35.5
	60대 이상	11.4	51.2	37.3
권역	수도권	15.0	52.5	32.5
	충청권	13.5	44.4	42.1
	호남권	12.3	47.4	40.4
	대경권	17.1	65.0	17.9
	동남권	23.6	49.4	27.0
가구 소득	강원권	15.2	63.0	21.7
	300만 원 미만	19.8	54.5	25.7
	300~500만 원 미만	15.7	56.0	28.3
	500~700만 원 미만	14.2	46.4	39.4
	700만 원 이상	15.7	50.0	34.3
가구원 수	1인	18.9	57.3	23.8
	2인 이상	15.5	50.6	33.8
전체(청소년)		19.2	49.2	31.7
연령	초등학생	23.6	48.8	27.6
	중학생	17.4	52.2	30.3
	고등학생	16.3	46.4	37.2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실천하지 않음'은 '1=전혀 실천하지 않음'과 '2=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실천하고 있음'은 '4=실천하고 있음'과 '5=매우 잘 실천함'을 포함함.

2.6. 국민 식생활 만족도⁵⁾

○ 식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항목을 가중 평가한 결과,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는 49.2%였음. 항목별로는 식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중이 51.9%였으며, 정책 및 제도 관련 항목 중에서 ‘언제든지 다양하고 충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에 대한 만족도가 59.5%로 가장 크고,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의 기회는 주변에 많이 있다’에 대한 만족도는 29.9%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음. 식생활 관련 항목 중에서는 ‘나는 농식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는다’에 대한 만족도가 54.9%로 가장 크고, ‘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한다’는 48.1%로 가장 작았음.

- 항목별 가중 평가한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는 전년 대비 1.6%p 증가함.

○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는 46.8%였음. 항목별로 식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중이 49.3%였으며, 정책 및 제도 관련 항목 중에서 ‘언제든지 다양하고 충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와 ‘친환경농식품, 로컬푸드(지역산농식품)는 구입하기 쉽다’가 각각 57.0%로 가장 만족도가 크고,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의 기회는 주변에 많이 있다’(31.2%)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음. 식생활 관련 항목 중에서는 ‘나는 농식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는다’에 대한 만족도가 48.2%로 가장 크고, ‘나는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한다’(39.3%)가 가장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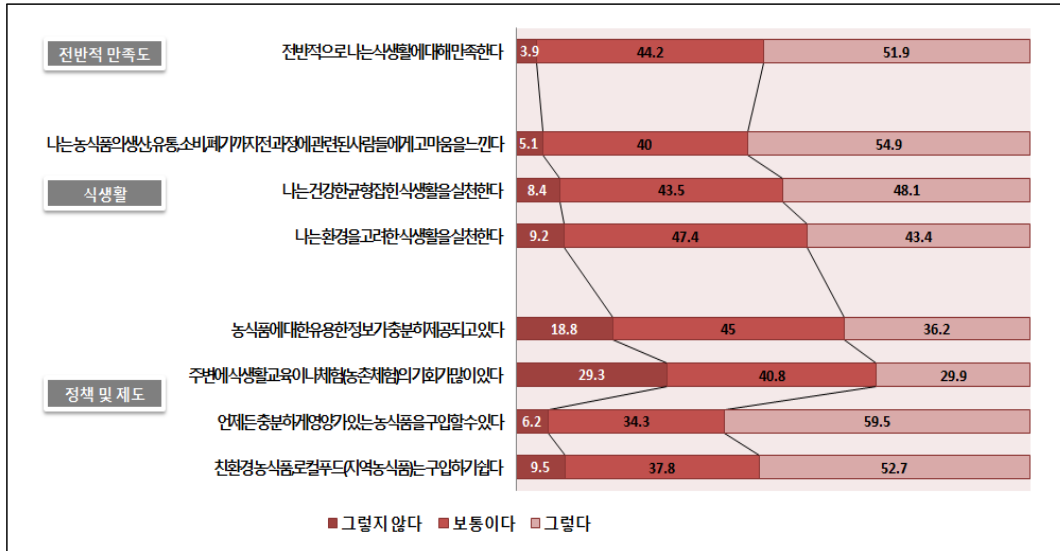
- 항목별 가중 평가한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는 전년 대비 4.9%p가 감소함.

○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는 2015~2022년에 대체로 40~60%대이며, 매년 변화하고 있지만 2020년에 성인이 63.7%, 청소년이 61.9%로 가장 높았고, 이후 다소 감소하면서 2022년에 성인은 49.2%, 청소년은 46.8%인 것으로 조사됨.

⁵⁾ 성인과 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2019년까지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식생활 만족도에 관한 복수문항으로 구성되었음. 이에 따라 연도별 비교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함.

〈그림 3-76〉 성인의 식생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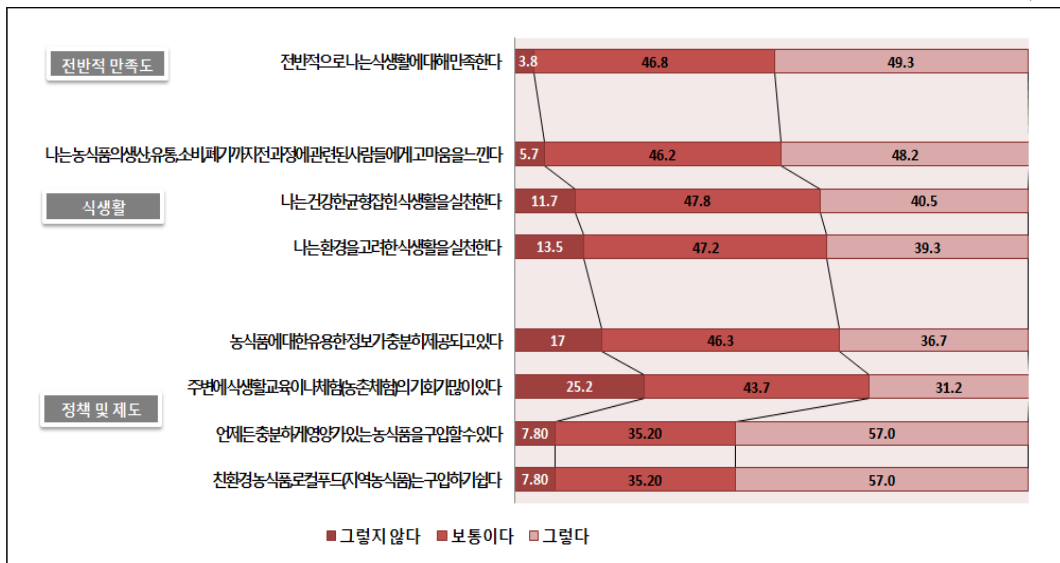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그림 3-77〉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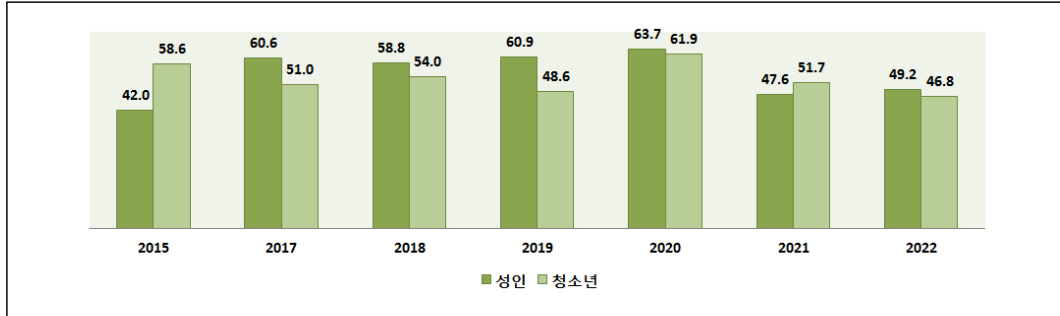


주 1)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그림 3-78〉 성인·청소년의 연도별 식생활 만족도 비교(‘만족함’ 비중)

단위: %



주 1) 2015~2021년의 설문조사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불만족함’은 ‘1=매우 불만족함’과 ‘2=불만족함’, ‘보통’은 ‘3=보통’, ‘만족함’은 ‘4=만족함’과 ‘5=매우 만족함’을 포함함.

3) 2020~2022년 식생활 만족도 결과는 식생활과 정책 및 제도 관련 만족도 7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과 전반적 만족도의 응답 결과 값에 가중치(1:1)를 적용한 결과임.

〈표 3-97〉 성인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친환경 농식품, 로컬푸드(지역농식품) 구입 용이성)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9.5	37.8	52.7
성별	남성	10.7	38.3	51.0
	여성	8.3	37.2	54.5
연령	19~29세	14.0	37.1	48.9
	30대	8.6	36.6	54.8
	40대	7.6	34.3	58.1
	50대	6.0	41.0	53.0
	60대 이상	11.9	39.8	48.3
권역	수도권	8.3	39.8	51.9
	충청권	5.1	30.9	64.0
	호남권	11.7	40.9	47.4
	대경권	8.5	35.9	55.6
	동남권	13.2	37.9	48.9
가구 소득	강원권	15.2	43.5	41.3
	300만 원 미만	13.9	43.1	43.1
	300~500만 원 미만	9.6	37.3	53.0
	500~700만 원 미만	7.8	37.2	55.0
	700만 원 이상	6.5	31.5	62.0
가구원 수	1인	16.8	40.6	42.7
	2인 이상	8.3	37.3	54.4
전체(청소년)		7.8	35.2	57.0
연령	초등학생	9.4	35.0	55.7
	중학생	7.0	37.3	55.7
	고등학생	7.1	33.2	59.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98〉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충분하게 영양가 있는 농식품 구입 가능성)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6.2	34.3	59.5
성별	남성	7.7	36.4	55.9
	여성	4.7	32.2	63.2
연령	19~29세	10.2	34.4	55.4
	30대	5.4	40.9	53.8
	40대	4.8	28.6	66.7
	50대	4.6	31.8	63.6
	60대 이상	6.5	36.8	56.7
권역	수도권	7.3	30.6	62.1
	충청권	4.5	30.9	64.6
	호남권	9.9	40.9	49.1
	대경권	2.6	37.6	59.8
	동남권	1.7	36.2	62.1
	강원권	17.4	32.6	5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9	39.1	51.0
	300~500만 원 미만	5.4	36.4	58.1
	500~700만 원 미만	5.9	31.8	62.3
	700만 원 이상	2.8	26.9	70.4
가구원 수	1인	14.7	39.9	45.5
	2인 이상	4.8	33.4	61.8
전체(청소년)		7.8	35.2	57.0
연령	초등학생	7.5	36.4	56.1
	중학생	8.1	33.9	58.0
	고등학생	9.4	35.0	55.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99〉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식생활교육 및 체험(농촌체험)의 기회)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9.3	40.8	29.9
성별	남성	30.2	41.3	28.5
	여성	28.3	40.3	31.4
연령	19~29세	41.4	34.4	24.2
	30대	28.5	41.4	30.1
	40대	23.8	44.8	31.4
	50대	23.0	44.2	32.7
	60대 이상	31.3	38.3	30.3
권역	수도권	33.1	40.4	26.4
	충청권	13.5	48.3	38.2
	호남권	28.7	36.3	35.1
	대경권	35.0	47.9	17.1
	동남권	28.7	36.8	34.5
	강원권	54.3	28.3	1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9.6	39.1	21.3
	300~500만 원 미만	29.2	44.0	26.8
	500~700만 원 미만	22.9	42.7	34.4
	700만 원 이상	31.5	27.8	40.7
가구원 수	1인	43.4	42.0	14.7
	2인 이상	27.0	40.6	32.4
전체(청소년)		25.2	43.7	31.2
연령	초등학생	22.2	46.8	31.0
	중학생	20.9	43.3	35.8
	고등학생	32.7	40.8	26.5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00〉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유용한 농식품 관련 정보제공의 충분성)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8.8	45.0	36.2
성별	남성	20.8	45.7	33.6
	여성	16.8	44.3	38.9
연령	19~29세	22.6	42.5	34.9
	30대	16.7	51.6	31.7
	40대	19.5	44.3	36.2
	50대	15.2	41.5	43.3
	60대 이상	20.4	45.8	33.8
권역	수도권	15.3	47.8	36.9
	충청권	18.5	39.9	41.6
	호남권	19.3	42.1	38.6
	대경권	29.1	42.7	28.2
	동남권	12.6	49.4	37.9
	강원권	39.1	45.7	15.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4.8	46.0	29.2
	300~500만 원 미만	19.3	47.6	33.1
	500~700만 원 미만	15.1	42.7	42.2
	700만 원 이상	18.5	42.6	38.9
가구원 수	1인	26.6	49.7	23.8
	2인 이상	17.5	44.2	38.3
전체(청소년)		17.0	46.3	36.7
연령	초등학생	15.3	50.2	34.5
	중학생	15.9	44.8	39.3
	고등학생	19.9	43.9	36.2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01〉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환경을 고려한 식생활 실천)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9.2	47.4	43.4
성별	남성	10.3	50.2	39.5
	여성	8.1	44.5	47.4
연령	19~29세	15.1	53.2	31.7
	30대	9.1	47.8	43.0
	40대	8.6	43.3	48.1
	50대	5.5	44.7	49.8
	60대 이상	8.5	48.8	42.8
권역	수도권	7.0	48.1	44.9
	충청권	9.6	42.7	47.8
	호남권	8.8	52.6	38.6
	대경권	12.8	47.0	40.2
	동남권	9.8	49.4	40.8
	강원권	13.0	34.8	52.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9	43.6	42.6
	300~500만 원 미만	9.3	52.7	38.0
	500~700만 원 미만	6.7	43.9	49.4
	700만 원 이상	8.3	50.0	41.7
가구원 수	1인	14.7	46.9	38.5
	2인 이상	8.3	47.5	44.2
전체(청소년)		13.5	47.2	39.3
연령	초등학생	13.3	47.8	38.9
	중학생	9.0	48.8	42.3
	고등학생	18.4	44.9	36.7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02〉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8.4	43.5	48.1
성별	남성	10.5	45.1	44.5
	여성	6.3	41.9	51.8
연령	19~29세	12.9	45.2	41.9
	30대	9.1	44.6	46.2
	40대	8.6	44.3	47.1
	50대	5.1	41.9	53.0
	60대 이상	7.0	41.8	51.2
권역	수도권	4.8	40.8	54.5
	충청권	9.6	43.8	46.6
	호남권	14.0	46.2	39.8
	대경권	8.5	53.0	38.5
	동남권	6.3	39.1	54.6
	강원권	15.2	43.5	41.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4	42.6	44.1
	300~500만 원 미만	6.9	49.1	44.0
	500~700만 원 미만	7.3	39.9	52.8
	700만 원 이상	7.4	39.8	52.8
가구원 수	1인	18.9	38.5	42.7
	2인 이상	6.7	44.3	49.0
전체(청소년)		11.7	47.8	40.5
연령	초등학생	9.4	51.7	38.9
	중학생	9.0	48.8	42.3
	고등학생	16.8	42.9	40.3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03〉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항목별 만족도(농식품의 생산·폐기 전 과정 참여자에 대한 감사)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5.1	40.0	54.9
성별	남성	6.7	42.3	51.0
	여성	3.4	37.7	58.9
연령	19~29세	8.1	45.7	46.2
	30대	6.5	40.3	53.2
	40대	5.7	39.0	55.2
	50대	3.2	34.6	62.2
	60대 이상	2.5	41.3	56.2
권역	수도권	3.8	45.9	50.3
	충청권	7.9	34.8	57.3
	호남권	6.4	38.6	55.0
	대경권	5.1	39.3	55.6
	동남권	2.9	40.2	56.9
	강원권	6.5	26.1	6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9	43.1	48.0
	300~500만 원 미만	6.0	38.9	55.1
	500~700만 원 미만	3.1	39.7	57.3
	700만 원 이상	1.9	38.9	59.3
가구원 수	1인	9.1	45.5	45.5
	2인 이상	4.4	39.1	56.5
전체(청소년)		5.7	46.2	48.2
연령	초등학생	6.9	51.7	41.4
	중학생	4.5	45.3	50.2
	고등학생	5.6	41.3	53.1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04〉 성인·청소년의 국민 식생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3.9	44.2	51.9
성별	남성	4.7	46.4	48.8
	여성	3.0	41.9	55.1
연령	19~29세	6.5	46.2	47.3
	30대	5.4	51.6	43.0
	40대	2.9	44.8	52.4
	50대	2.3	37.8	59.9
	60대 이상	3.0	41.8	55.2
권역	수도권	1.9	45.5	52.5
	충청권	3.4	34.8	61.8
	호남권	5.8	51.5	42.7
	대경권	6.0	46.2	47.9
	동남권	3.4	43.7	52.9
	강원권	8.7	41.3	5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4	46.5	47.0
	300~500만 원 미만	4.5	47.6	47.9
	500~700만 원 미만	2.5	41.9	55.6
	700만 원 이상	1.9	37.0	61.1
가구원 수	1인	10.5	51.0	38.5
	2인 이상	2.8	43.1	54.1
전체(청소년)		3.8	46.8	49.3
연령	초등학생	3.9	48.3	47.8
	중학생	3.0	48.8	48.3
	고등학생	4.6	43.4	52.0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2.7.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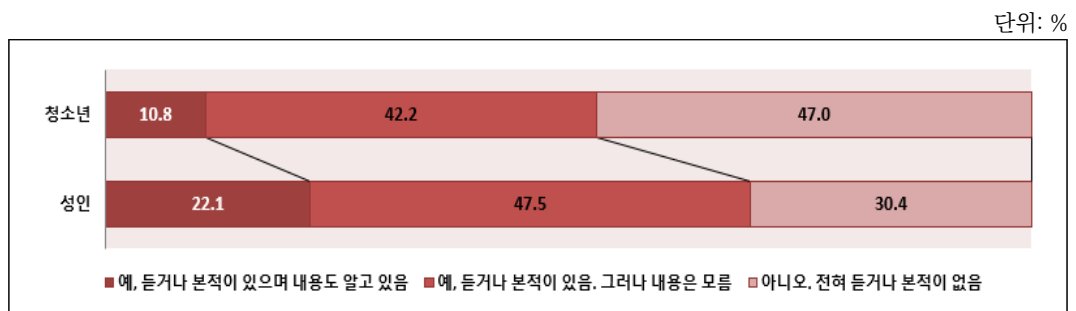
○ 성인의 69.6%가 식량안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나, 이 중 식량안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22.1%에 불과하였음.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16.6%p가 낮은 53.0%가 식량안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 중에서 내용까지 알고 있는 비중은 성인의 절반 수준인 10.8%에 불과하였음.

- 식량안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성인의 비중은 남성(24.7%), 60대 이상(27.9%), 강원권(28.3%),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26.2%)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16.8%로 초등학생(9.4%), 중학생(6.5%)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들어본 성인의 비중은 69.3%로 식량안보(69.6%)에 대한 인지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 중 내용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24.8%였음. 청소년이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들어본 비중은 51.7%이며, 이 중에서 내용도 알고 있는 비중은 성인의 절반 수준인 12.5%였음.

- 성인 중에서 식량자급률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는 비중이 남성(26.9%), 60대 이상(31.8%), 수도권(34.1%),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33.3%), 1인 가구(28.0%)에서 높은 편이었음. 청소년은 고등학생(18.9%)이 초등학생(8.4%)과 중학생(10.4%)에 비해 식량자급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비중이 9~10%p 내외로 큰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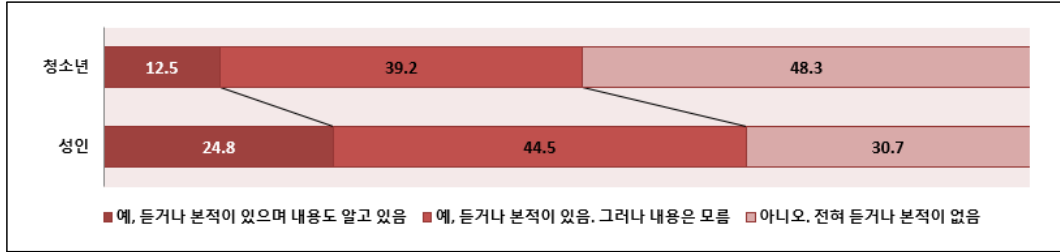
〈그림 3-79〉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안보)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80〉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자급률)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05〉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안보)

단위: %

구분		예. 듣거나 본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예. 듣거나 본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적이 없음.	
전체(성인)		22.1	47.5	30.4	
성별	남성	24.7	44.9	30.4	
	여성	19.4	50.2	30.4	
연령	19~29세	16.1	45.2	38.7	
	30대	24.2	47.3	28.5	
	40대	18.1	49.5	32.4	
	50대	24.0	47.5	28.6	
	60대 이상	27.9	47.8	24.4	
권역	수도권	27.4	49.0	23.6	
	충청권	20.2	53.9	25.8	
	호남권	18.7	49.7	31.6	
	대경권	27.4	41.0	31.6	
	동남권	12.6	43.1	44.3	
강원권	강원권	28.3	37.0	34.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6.2	42.6	31.2
		300~500만 원 미만	19.6	47.3	33.1
		500~700만 원 미만	20.9	50.0	29.1
700만 원 이상		25.9	49.1	25.0	
가구원 수	1인	25.9	42.7	31.5	
	2인 이상	21.5	48.3	30.2	
전체(청소년)		10.8	42.2	47.0	
연령	초등학생	9.4	32.5	58.1	
	중학생	6.5	48.3	45.3	
	고등학생	16.8	45.9	37.2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106〉 성인·청소년의 식량 관련 용어 인지 여부(식량자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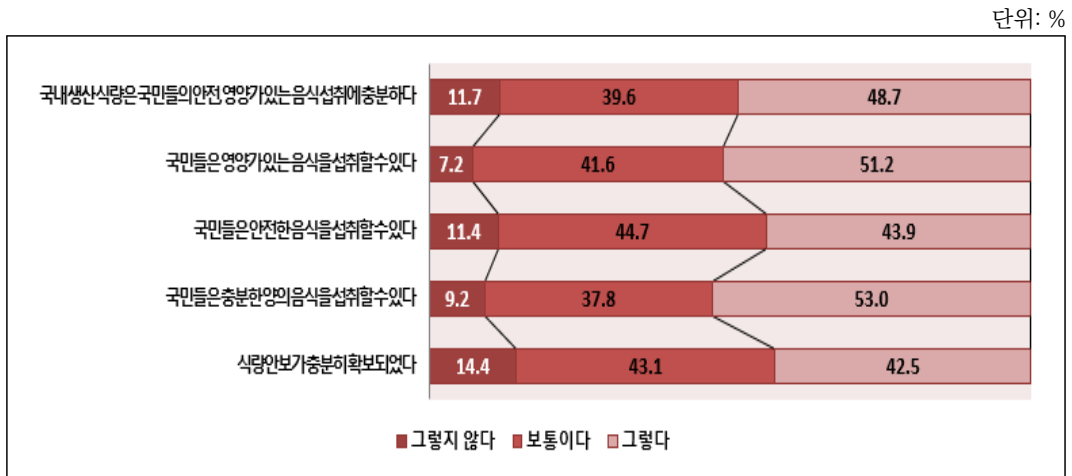
구분		예. 듣거나 본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예. 듣거나 본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전체(성인)		24.8	44.5	30.7
성별	남성	26.9	42.9	30.2
	여성	22.7	46.2	31.2
연령	19~29세	21.5	43.5	34.9
	30대	22.0	46.8	31.2
	40대	21.4	45.2	33.3
	50대	26.7	45.6	27.6
	60대 이상	31.8	41.3	26.9
권역	수도권	34.1	46.5	19.4
	충청권	21.3	38.8	39.9
	호남권	21.1	55.6	23.4
	대경권	27.4	44.4	28.2
	동남권	11.5	37.4	51.1
	강원권	32.6	39.1	28.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1.2	38.6	30.2
	300~500만 원 미만	20.8	45.2	34.0
	500~700만 원 미만	22.3	46.9	30.7
	700만 원 이상	33.3	45.4	21.3
가구원 수	1인	28.0	40.6	31.5
	2인 이상	24.3	45.2	30.6
전체(청소년)		12.5	39.2	48.3
연령	초등학생	8.4	31.5	60.1
	중학생	10.4	42.3	47.3
	고등학생	18.9	43.9	37.2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의 약 절반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교적 ‘충분한 양의 음식’(53.0%)과 ‘영양가 있는 음식’(51.2%)을 섭취할 수 있다고 인식함. 그러나 ‘식량안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한 성인의 비중은 42.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평가한 성인의 비중도 43.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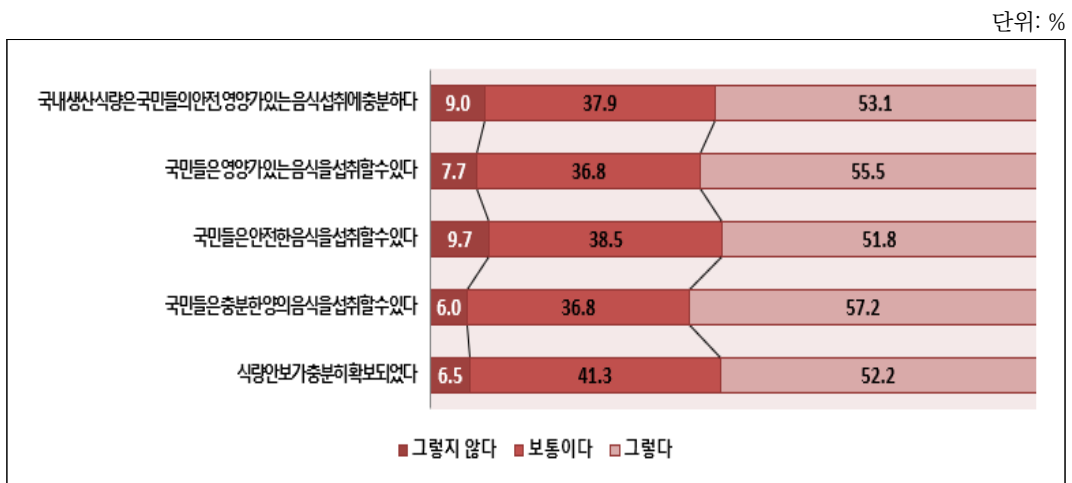
○ 청소년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음. 청소년은 ‘충분한 양의 음식’(57.2%)과 ‘영양가 있는 음식’(55.5%) 섭취 여부에 대해서 성인에 비해 각각 4.2%p, 4.3%p 높게 평가함. ‘안전한 음식’(51.8%)의 섭취 여부에 대해서도 성인에 비해 7.9%p 높게 평가하였음. 그러나 ‘안전한 음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그림 3-81〉 성인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3-82〉 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07〉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식량안보의 충분성)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4.4	43.1	42.5
성별	남성	16.0	42.9	41.1
	여성	12.8	43.3	43.9
연령	19~29세	16.1	43.5	40.3
	30대	12.9	43.0	44.1
	40대	16.7	43.3	40.0
	50대	10.6	44.7	44.7
	60대 이상	15.9	40.8	43.3
권역	수도권	15.6	49.7	34.7
	충청권	15.2	34.8	50.0
	호남권	17.0	45.0	38.0
	대경권	11.1	50.4	38.5
	동남권	7.5	31.0	61.5
	강원권	28.3	50.0	2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3	49.5	32.2
	300~500만 원 미만	13.3	38.3	48.5
	500~700만 원 미만	12.3	42.5	45.3
	700만 원 이상	17.6	48.1	34.3
가구원 수	1인	16.1	51.7	32.2
	2인 이상	14.1	41.7	44.2
전체(청소년)		6.5	41.3	52.2
연령	초등학생	5.4	40.4	54.2
	중학생	5.5	39.3	55.2
	고등학생	8.7	44.4	46.9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08〉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충분한 양의 음식 섭취 가능성)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9.2	37.8	53.0
성별	남성	10.9	36.0	53.2
	여성	7.5	39.7	52.8
연령	19~29세	8.6	39.2	52.2
	30대	11.3	37.1	51.6
	40대	10.5	34.8	54.8
	50대	7.4	40.1	52.5
	60대 이상	8.5	37.8	53.7
권역	수도권	15.3	40.1	44.6
	충청권	4.5	38.8	56.7
	호남권	10.5	40.9	48.5
	대경권	6.8	41.0	52.1
	동남권	2.3	29.9	67.8
	강원권	13.0	28.3	58.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4	47.0	43.6
	300~500만 원 미만	9.9	32.5	57.5
	500~700만 원 미만	7.8	38.0	54.2
	700만 원 이상	11.1	36.1	52.8
가구원 수	1인	13.3	42.0	44.8
	2인 이상	8.5	37.1	54.4
전체(청소년)		6.0	36.8	57.2
연령	초등학생	4.4	35.0	60.6
	중학생	5.0	39.8	55.2
	고등학생	8.7	35.7	55.6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09〉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안전한 음식 섭취 가능성)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1.4	44.7	43.9
성별	남성	14.4	41.7	43.9
	여성	8.3	47.8	43.9
연령	19~29세	9.1	41.9	48.9
	30대	10.2	49.5	40.3
	40대	14.8	43.8	41.4
	50대	12.9	39.6	47.5
	60대 이상	9.5	49.3	41.3
권역	수도권	18.8	43.6	37.6
	충청권	5.1	41.6	53.4
	호남권	10.5	50.3	39.2
	대경권	12.0	50.4	37.6
	동남권	3.4	43.1	53.4
	강원권	17.4	34.8	47.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9	49.5	39.6
	300~500만 원 미만	12.3	46.1	41.6
	500~700만 원 미만	10.1	41.6	48.3
	700만 원 이상	13.9	41.7	44.4
가구원 수	1인	14.0	55.2	30.8
	2인 이상	11.0	42.9	46.1
전체(청소년)		9.7	38.5	51.8
연령	초등학생	7.4	40.4	52.2
	중학생	9.5	37.8	52.7
	고등학생	12.2	37.2	50.5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10〉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가능성)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7.2	41.6	51.2
성별	남성	8.9	41.3	49.8
	여성	5.5	41.9	52.6
연령	19~29세	7.0	38.2	54.8
	30대	5.4	47.3	47.3
	40대	9.5	42.9	47.6
	50대	7.4	38.2	54.4
	60대 이상	6.5	41.8	51.7
권역	수도권	11.1	47.1	41.7
	충청권	4.5	44.9	50.6
	호남권	4.1	44.4	51.5
	대경권	8.5	42.7	48.7
	동남권	3.4	28.7	67.8
	강원권	13.0	26.1	60.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9	45.0	47.0
	300~500만 원 미만	7.8	42.2	50.0
	500~700만 원 미만	7.0	38.8	54.2
	700만 원 이상	4.6	42.6	52.8
가구원 수	1인	9.1	49.0	42.0
	2인 이상	6.9	40.4	52.7
전체(청소년)		7.7	36.8	55.5
연령	초등학생	6.4	38.9	54.7
	중학생	9.0	33.8	57.2
	고등학생	7.7	37.8	54.6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11〉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한 인식(국민들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에 충분한 식량 생산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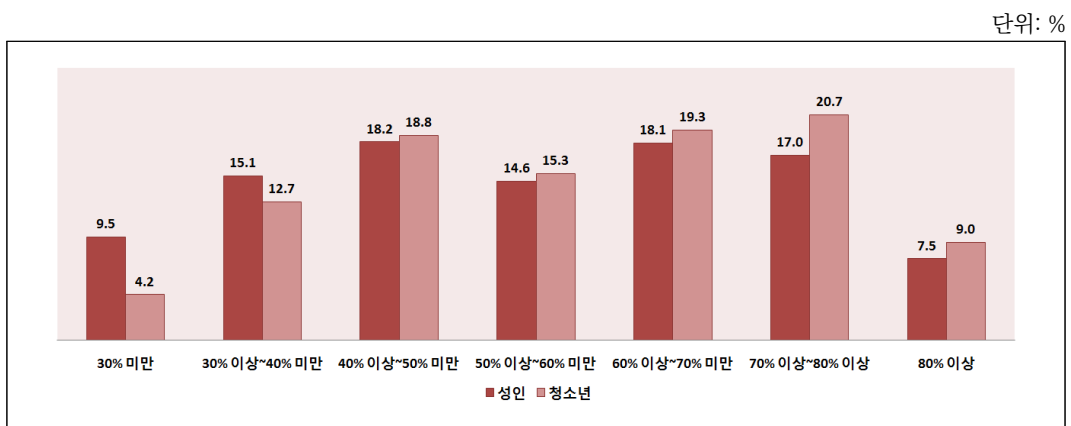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1.7	39.6	48.7
성별	남성	14.4	39.3	46.2
	여성	8.9	39.9	51.2
연령	19~29세	13.4	38.7	47.8
	30대	11.8	39.2	48.9
	40대	13.3	41.9	44.8
	50대	11.1	37.3	51.6
	60대 이상	9.0	40.8	50.2
권역	수도권	22.6	39.2	38.2
	충청권	4.5	40.4	55.1
	호남권	8.2	39.2	52.6
	대경권	7.7	48.7	43.6
	동남권	2.9	35.6	61.5
	강원권	21.7	32.6	45.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9	45.0	40.1
	300~500만 원 미만	10.2	41.0	48.8
	500~700만 원 미만	9.2	36.0	54.7
	700만 원 이상	18.5	37.0	44.4
가구원 수	1인	19.6	46.9	33.6
	2인 이상	10.4	38.4	51.2
전체(청소년)		9.0	37.9	53.1
연령	초등학생	9.9	33.2	56.9
	중학생	8.0	37.3	54.7
	고등학생	9.2	43.4	47.4

주 1)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 우리나라 실제 식량자급률은 2019년에 49.3%였으며, 2021년에는 4.9%p가 감소한 44.4%로 50%에 못 미치고 있음. 설문조사를 통해 식량자급률 수준에 대한 성인과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러한 인식과 실제 자급률의 차이를 비교하였음.
-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실제 자급률에 해당하는 40% 이상~50% 미만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인의 비중은 18.2%에 불과하였음. 24.6%는 40% 미만으로 실제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57.2%는 50% 이상으로 더 높게 인식하였음.
 - 조사대상 성인 중에서 남성(19.8%), 30~40대(21% 내외), 충청권(29.2%),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약 19~20%), 2인 이상 가구(18.3%)에서 식량자급률 수준을 실제 수준인 40% 이상~50% 미만인 것으로 평가함.
- 청소년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수준을 실제 수준인 40% 이상~50%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18.8%에 불과하였음. 청소년의 16.9%는 4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4.3%는 50% 이상이라고 인식하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을 성인보다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식량자급률 수준이 40% 이상~50% 미만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 비중은 중학생(21.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18.4%, 초등학생 16.3% 순이었음.

〈그림 3-83〉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에 관한 인식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12〉 성인·청소년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에 관한 인식

단위: %

구분		30% 미만	30% 이상~40% 미만	40% 이상~50% 미만	50% 이상~60% 미만	60% 이상~70% 미만	70% 이상~80% 미만	80% 이상
전체(성인)		9.5	15.1	18.2	14.6	18.1	17.0	7.5
성별	남성	10.9	14.4	19.8	12.8	17.0	16.8	8.3
	여성	8.1	15.8	16.6	16.4	19.2	17.2	6.7
연령	19~29세	11.3	19.4	13.4	18.8	13.4	18.8	4.8
	30대	9.7	18.3	21.5	9.1	18.3	18.3	4.8
	40대	8.6	13.3	20.5	16.7	17.6	13.8	9.5
	50대	8.3	12.0	18.9	13.8	20.3	17.1	9.7
	60대 이상	10.0	13.4	16.4	14.4	20.4	17.4	8.0
권역	수도권	11.1	20.1	17.8	16.6	24.2	9.2	1.0
	충청권	7.3	17.4	29.2	12.9	13.5	12.9	6.7
	호남권	12.9	12.9	12.3	13.5	8.2	21.6	18.7
	대경권	12.0	13.7	19.7	14.5	22.2	12.8	5.1
	동남권	1.1	6.3	14.9	13.2	17.2	35.1	12.1
강원권	19.6	17.4	8.7	17.4	23.9	10.9	2.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3	20.3	12.9	18.3	13.9	12.9	6.4
	300~500만 원 미만	10.2	9.9	19.9	13.9	18.4	20.8	6.9
	500~700만 원 미만	5.3	15.6	19.0	13.4	22.9	15.6	8.1
	700만 원 이상	10.2	19.4	20.4	13.9	9.3	17.6	9.3
가구원 수	1인	17.5	18.2	17.5	14.0	13.3	14.0	5.6
	2인 이상	8.2	14.6	18.3	14.7	18.9	17.5	7.8
전체(청소년)		4.2	12.7	18.8	15.3	19.3	20.7	9.0
연령	초등학생	4.9	11.3	16.3	17.2	21.2	18.7	10.3
	중학생	3.5	11.4	21.9	14.4	18.4	22.9	7.5
	고등학생	4.1	15.3	18.4	14.3	18.4	20.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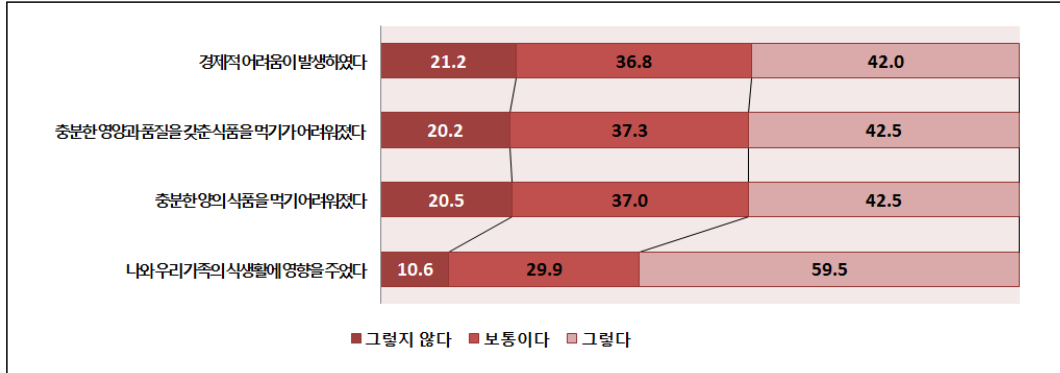
주: 성인 1,000명,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성인의 59.5%가 식품물가(식품가격 상승)가 '나와 우리 가족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여 식품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식품물가(식품가격 상승)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42.0%), '충분한 영양과 품질을 갖춘 식품'의 섭취(42.5%)와 '충분한 양의 식품'의 섭취(42.5%)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성인의 41% 내외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성인의 비중은 항목별로 10~20%대로 낮았음.

〈그림 3-84〉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13〉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식품가격 상승이 나와 우리 가족 식생활에 영향)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10.6	29.9	59.5
성별	남성	12.1	31.4	56.5
	여성	9.1	28.3	62.6
연령	19~29세	14.0	22.0	64.0
	30대	11.3	36.0	52.7
	40대	10.0	28.1	61.9
	50대	9.7	31.3	59.0
	60대 이상	8.5	31.8	59.7
권역	수도권	13.4	32.8	53.8
	충청권	12.9	25.8	61.2
	호남권	2.3	32.7	64.9
	대경권	13.7	27.4	59.0
	동남권	10.9	31.0	58.0
가구 소득	강원권	4.3	17.4	78.3
	300만 원 미만	7.9	25.7	66.3
	300~500만 원 미만	8.4	31.9	59.6
	500~700만 원 미만	11.2	31.0	57.8
	700만 원 이상	20.4	27.8	51.9
가구원 수	1인	9.1	30.8	60.1
	2인 이상	10.9	29.8	59.4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14〉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식품가격 상승으로 충분한 양의 식품 섭취 어려움)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0.5	37.0	42.5
성별	남성	20.2	37.4	42.5
	여성	20.9	36.6	42.5
연령	19~29세	25.3	29.6	45.2
	30대	21.5	44.6	33.9
	40대	16.2	40.5	43.3
	50대	21.2	32.3	46.5
	60대 이상	18.9	38.3	42.8
권역	수도권	29.6	42.4	28.0
	충청권	21.3	30.3	48.3
	호남권	8.8	33.9	57.3
	대경권	18.8	35.0	46.2
	동남권	17.8	42.5	39.7
	강원권	13.0	21.7	65.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6.8	31.2	52.0
	300~500만 원 미만	18.4	41.0	40.7
	500~700만 원 미만	21.8	35.8	42.5
	700만 원 이상	29.6	39.8	30.6
가구원 수	1인	19.6	35.7	44.8
	2인 이상	20.7	37.2	42.1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15〉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식품가격 상승으로 충분한 영양과 품질을 갖춘 식품 섭취 어려움)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0.2	37.3	42.5
성별	남성	20.8	38.3	40.9
	여성	19.6	36.2	44.1
연령	19~29세	19.9	32.8	47.3
	30대	22.0	36.6	41.4
	40대	18.6	38.6	42.9
	50대	21.7	37.3	41.0
	60대 이상	18.9	40.8	40.3
권역	수도권	28.7	38.9	32.5
	충청권	18.0	44.4	37.6
	호남권	9.9	33.3	56.7
	대경권	29.1	24.8	46.2
	동남권	13.8	43.1	43.1
	강원권	10.9	23.9	65.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2.9	38.6	48.5
	300~500만 원 미만	17.8	39.5	42.8
	500~700만 원 미만	22.1	36.0	41.9
	700만 원 이상	35.2	32.4	32.4
가구원 수	1인	15.4	41.3	43.4
	2인 이상	21.0	36.6	42.4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16〉 성인의 식품물가의 영향에 관한 인식(식품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21.2	36.8	42.0
성별	남성	21.7	35.6	42.7
	여성	20.6	38.1	41.3
연령	19~29세	23.7	30.6	45.7
	30대	18.8	41.4	39.8
	40대	24.3	36.2	39.5
	50대	21.2	40.6	38.2
	60대 이상	17.9	34.8	47.3
권역	수도권	35.7	36.0	28.3
	충청권	19.1	39.3	41.6
	호남권	8.8	33.3	57.9
	대경권	23.9	27.4	48.7
	동남권	8.0	48.3	43.7
	강원권	19.6	26.1	54.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8	30.7	53.5
	300~500만 원 미만	17.5	40.1	42.5
	500~700만 원 미만	22.6	37.2	40.2
	700만 원 이상	38.0	37.0	25.0
가구원 수	1인	18.2	38.5	43.4
	2인 이상	21.7	36.5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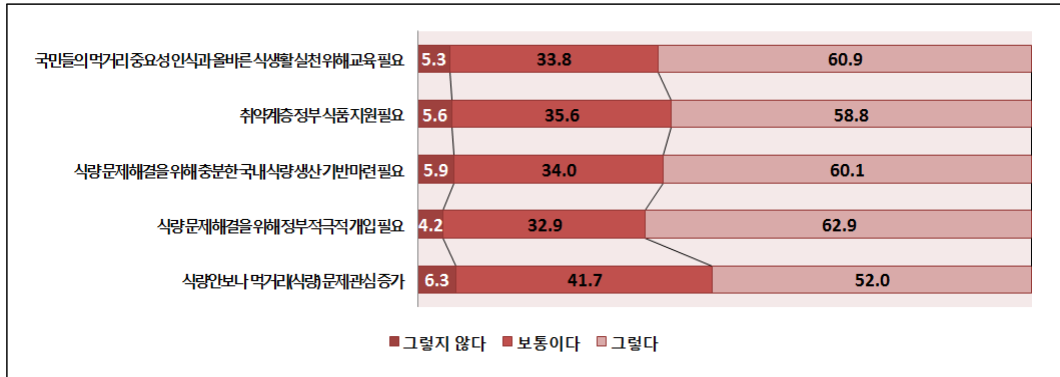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 성인들은 최근의 여러 식량문제가 식량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 항목 별로 이러한 영향을 50~60%대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비중이 62.9%로 가장 높았음. 식량안보나 먹거리(식량)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비중은 여러 항목 중에서 52.0%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3-85〉 성인의 식량문제의 식량에 관한 인식 영향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3-117〉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식량안보나 먹거리 문제 관심 증가)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6.3	41.7	52.0
성별	남성	7.1	44.7	48.2
	여성	5.5	38.7	55.9
연령	19~29세	8.6	46.2	45.2
	30대	8.6	43.5	47.8
	40대	4.3	43.8	51.9
	50대	6.0	34.6	59.4
	60대 이상	4.5	41.3	54.2
권역	수도권	8.9	49.0	42.0
	충청권	7.9	40.4	51.7
	호남권	4.7	32.2	63.2
	대경권	2.6	44.4	53.0
	동남권	5.2	40.2	54.6
가구 소득	강원권	2.2	30.4	67.4
	300만 원 미만	6.4	40.1	53.5
	300~500만 원 미만	5.4	44.9	49.7
	500~700만 원 미만	6.4	39.7	53.9
	700만 원 이상	8.3	41.7	50.0
가구원 수	1인	9.1	39.9	51.0
	2인 이상	5.8	42.0	52.2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18〉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4.2	32.9	62.9
성별	남성	5.1	33.2	61.7
	여성	3.2	32.6	64.2
연령	19~29세	6.5	33.3	60.2
	30대	2.7	34.9	62.4
	40대	3.3	32.9	63.8
	50대	3.7	31.8	64.5
	60대 이상	5.0	31.8	63.2
권역	수도권	8.0	39.8	52.2
	충청권	5.1	28.1	66.9
	호남권	1.2	26.9	71.9
	대경권	1.7	32.5	65.8
	동남권	2.3	37.4	60.3
	강원권	0.0	10.9	89.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5	34.2	63.4
	300~500만 원 미만	3.6	31.3	65.1
	500~700만 원 미만	5.3	33.2	61.5
	700만 원 이상	5.6	34.3	60.2
가구원 수	1인	2.8	34.3	62.9
	2인 이상	4.4	32.7	62.9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19〉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국내 식량 생산 기반 마련 필요)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5.9	34.0	60.1
성별	남성	7.1	36.2	56.7
	여성	4.7	31.8	63.6
연령	19~29세	6.5	34.9	58.6
	30대	7.5	39.8	52.7
	40대	3.8	35.2	61.0
	50대	5.1	33.2	61.8
	60대 이상	7.0	27.4	65.7
권역	수도권	12.4	41.7	45.9
	충청권	3.4	28.7	68.0
	호남권	0.6	28.1	71.3
	대경권	4.3	28.2	67.5
	동남권	4.0	39.7	56.3
	강원권	2.2	17.4	80.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27.7	66.8
	300~500만 원 미만	6.6	34.6	58.7
	500~700만 원 미만	4.7	36.6	58.7
	700만 원 이상	8.3	35.2	56.5
가구원 수	1인	8.4	32.9	58.7
	2인 이상	5.5	34.2	60.3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20〉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취약계층 정부 식품 지원 필요)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5.6	35.6	58.8
성별	남성	6.7	35.8	57.5
	여성	4.5	35.4	60.1
연령	19~29세	7.5	33.9	58.6
	30대	6.5	36.6	57.0
	40대	3.8	36.7	59.5
	50대	6.5	32.7	60.8
	60대 이상	4.0	38.3	57.7
권역	수도권	13.1	41.4	45.5
	충청권	2.2	29.8	68.0
	호남권	0.6	34.5	64.9
	대경권	3.4	36.8	59.8
	동남권	1.7	36.2	62.1
	강원권	6.5	17.4	76.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33.2	61.4
	300~500만 원 미만	4.2	37.0	58.7
	500~700만 원 미만	6.1	37.4	56.4
	700만 원 이상	8.3	29.6	62.0
가구원 수	1인	7.0	38.5	54.5
	2인 이상	5.4	35.1	59.5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표 3-121〉 성인의 식량 문제의 식량 인식에 관한 영향(국민들의 먹거리 중요성 인식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위해 교육 필요)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성인)		5.3	33.8	60.9
성별	남성	6.3	35.6	58.1
	여성	4.3	32.0	63.8
연령	19~29세	7.5	31.2	61.3
	30대	6.5	33.3	60.2
	40대	4.3	35.2	60.5
	50대	3.7	34.1	62.2
	60대 이상	5.0	34.8	60.2
권역	수도권	11.8	43.3	44.9
	충청권	2.2	24.7	73.0
	호남권	2.3	25.1	72.5
	대경권	1.7	32.5	65.8
	동남권	2.9	39.1	58.0
	강원권	2.2	19.6	78.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	39.1	55.4
	300~500만 원 미만	3.3	32.2	64.5
	500~700만 원 미만	5.6	33.8	60.6
	700만 원 이상	10.2	28.7	61.1
가구원 수	1인	5.6	40.6	53.8
	2인 이상	5.3	32.7	62.1

주 1)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3=보통이다', '그렇다'는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포함함.

4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및 분석

○ 이 장에서는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측정치를 제시함.

1. 기본계획 성과지표 개요⁶⁾

○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는 4개 부문별로 4개 성과지표, 총 16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 중 10개 성과지표가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계측됨.

- 부문별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측되는 성과지표는 ①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부문 2개 지표, ②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부문 3개 지표, ③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부문 2개 지표, ④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 부문 3개 지표 등임.

⁶⁾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중에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계측되는 성과지표의 결과를 분석함.

- 이 중에서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 동일한 지표는 4개 지표로, ‘성인 국민 공동 식생활 지침 실천율’,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 등임.
 - 이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와 이전의 성과지표 측정치 간에 상호 비교는 어느 정도 가능함. 그러나 2020년부터 실시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 측정치를 얻기 위해 관련되는 설문문항을 일부 수정하였음. 이에 따라 지표 간 상호 비교 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밖에 2개 지표는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성과지표에서 일부 변경되었으며, 4개 지표는 새로이 도입된 신규 지표임.
 - 변경 지표는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 등임.
 - 신규 지표는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 실천하는 국민 비율’,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 등임.

2. 기본계획 성과지표 결과 분석⁷⁾

-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과지표를 계측한 결과, 성과지표 중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81.4%)이 측정치가 가장 높았으며,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25.3%)은 지표 중에서 가장 측정치가 낮았음. 이는 2021년도 실태조사와 유사한 결과임. 전체 성과지표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지표는 5개 지표였으며, 반대로 감소한 지표는 5개 지표였음. 이

7)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중에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계측되는 성과지표의 결과를 분석함.

중 증가폭이 가장 큰 지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4.3%p)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지표는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4.6%)이었음.

- 전년 대비 증가한 지표는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실천하는 국민 비율’,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 등임.
- 전년 대비 감소한 지표는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등임.

〈표 4-1〉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1년 측정치	2022년 측정치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27.1	25.3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	47.4	46.8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	79.6	81.4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	36.0	35.8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54.7	55.3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	45.3	43.0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 실천하는 국민 비율(%)	41.3	42.5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47.8	43.2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	44.7	49.0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	53.1	56.2

주: 성과지표 측정치는 성인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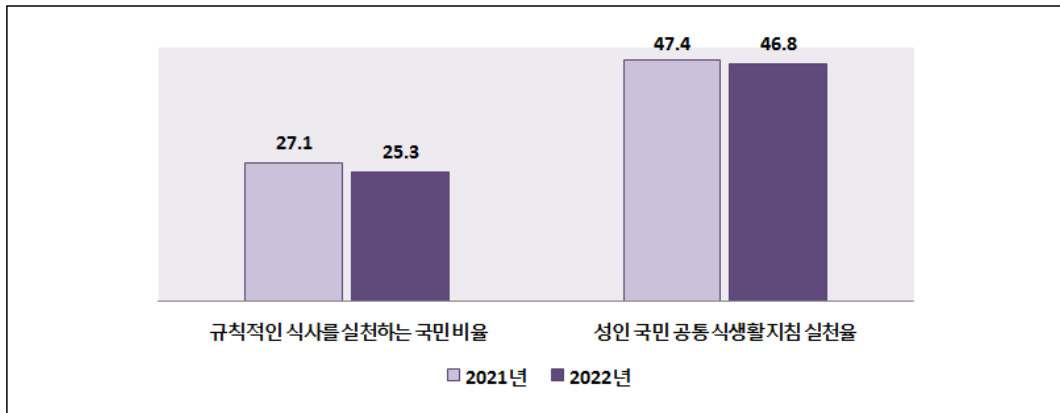
자료: 2021년과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 결과임.

- 부문별로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부문의 2개 지표 중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25.3%에 불과하였음. 즉, 성인의 25.3%만이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고 있었음. 또한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은 46.8%로 측정됨.

- 2021년 대비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이 1.8%p 감소하였으며,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도 소폭 감소함(0.6%p).⁸⁾

〈그림 4-1〉 성인·청소년의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단위: %



주: 2021년과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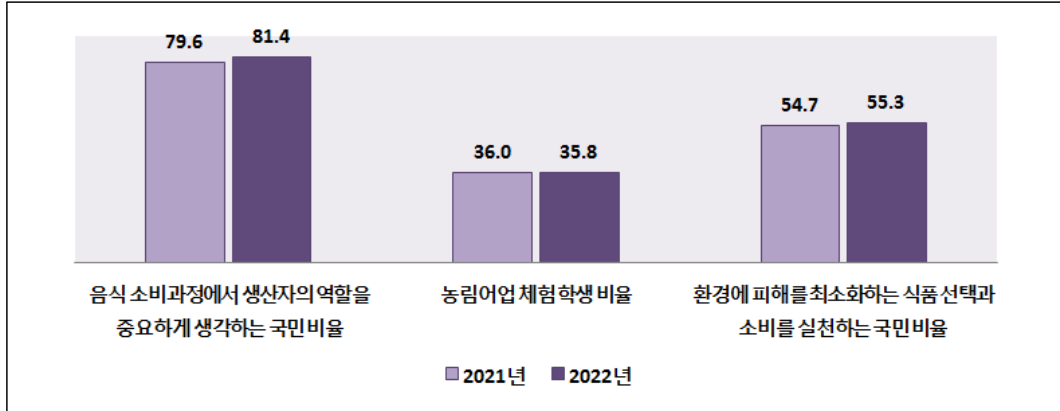
○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부분의 4개 지표 중에서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81.4%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은 35.8%로 높지 않으며,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55.3% 수준이었음.

-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은 2021년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도 전년 대비 0.6%p로 소폭 증가함.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은 0.2%p 감소한데 그쳐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⁸⁾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은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에 관련된 17개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실천 수준을 조사한 후, 이를 평균하여 실천율을 계산함.

〈그림 4-2〉 성인·청소년의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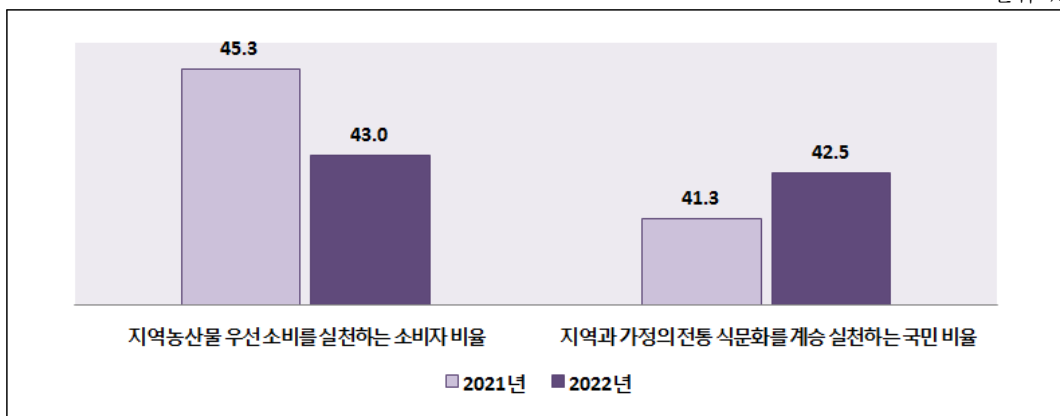
주: 2021년과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부문에서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은 43.0%이었으며,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42.5%로 두 성과지표가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부문을 구성하는 2개 지표 중에서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은 전년 대비 2.3%p가 감소하였으나,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 실천하는 국민 비율'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함.

〈그림 4-3〉 성인·청소년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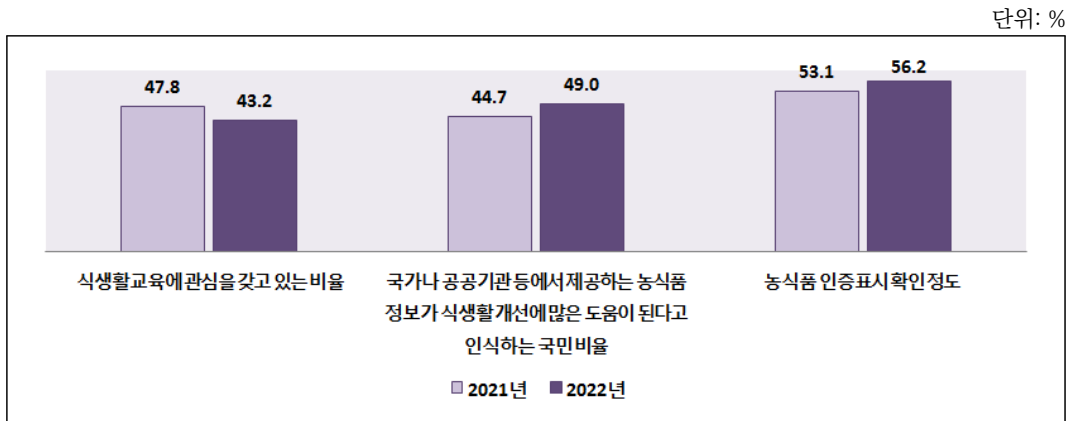
단위: %



주: 2021년과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에서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가 5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이밖에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은 49.0%였으며,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은 43.2%였음.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이 전년 대비 4.3%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도 전년 대비 3.1%p 증가함. 그러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은 전년 대비 4.6%p나 감소함.

〈그림 4-4〉 성인·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에 관한 성과지표 측정 결과



주: 2021년과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식생활교육의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 식생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2022년 성인의 만족도는 49.2%, 청소년은 46.8%였음.
 - ‘국민 식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식생활 관련 정책 및 제도 만족도, 식생활 만족도, 식생활 전반적 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함.
 - 성인의 국민 식생활 만족도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은 전년 대비 4.9%p가 감소함.

〈표 4-2〉 국민 식생활 만족도

구분	2021년 측정치 (성인/청소년)	2022년 측정치 (성인/청소년)
국민 식생활 만족도(%)	47.6/51.7 (44.1/47.8)	49.2/46.8 (47.1/44.9)

주 1) 국민 식생활 만족도 측정치는 식생활 전반적 만족도 설문결과와 식생활 전반적 만족도 이외의 식생활과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만족도 관련 설문결과를 산술평균 한 값에 가중치(1:1)를 적용한 결과임.

2) 괄호 안의 측정치는 식생활 만족도에 관한 모든 문항의 설문 결과를 가중치 없이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한 결과임.

5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

○ 이 장에서는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식생활 교육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⁹⁾

1. 조사 결과 종합

1.1. 식생활 및 식습관 실태

○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간 점심과 저녁을 먹는 횟수가 아침에 비해 많으며, 식사 실천율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2022년에 성인은 아침과 저녁 식사 실천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점심은 감소함. 청소년은 아침과 저녁 식사 실천율은 전년도와 유사하나 점심식사 실천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성인은 일주일간 아침, 점심 및 저녁식사 횟수가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에서 공통적

⁹⁾ 이 장에서는 식품소비행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와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의 주요 조사 결과를 활용함. 그러나 조사 시기의 차이로 인해 식품소비행태조사와 국민건강통계는 2021년에 조사한 결과로 본 보고서의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와 조사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으로 많고, 아침과 점심식사 횟수는 남성이 많으나 저녁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임. 청소년은 초등학생이 대체로 평일 및 주말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횟수가 중·고등 학생에 비해 많음.

○ 성인은 평일 아침과 저녁은 주로 집밥으로 먹으며, 점심은 집밥 또는 음식점에서 먹는 비중이 큰 편임. 그러나 주말은 대부분의 식사를 주로 집밥으로 먹음. 성인은 평일 점심을 주로 친구, 동료 등과 먹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사를 가족과 먹고 있음.

- 평일에 아침과 저녁을 집밥으로 먹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에서 높으며, 주말은 여성, 2인 이상 가구에서 높음.

- 평일 아침과 점심을 가족과 먹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 60대 이상에서 높으며, 평일 점심은 주로 친구, 동료 등과 먹는 비중이 남성, 30대에서 큰 편임. 또한 주말 아침, 점심은 남성, 50대, 저녁은 여성, 60대 이상에서 가족과 먹는 비중이 큰 편임.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도 성인은 대체로 아침과 저녁을 집에서 해결하며, 점심은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횟수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음. 또한 가구원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저녁(5.53회)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아침(4.89회), 점심(2.68회) 순이었음.

○ 청소년은 평일 아침과 저녁은 주로 집밥으로 먹으며, 점심은 단체급식으로 대부분 먹고 있음. 청소년은 평일 점심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사를 주로 가족과 먹고 있음. 특히 초등학생이 가족과 식사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성인과 청소년은 ‘먹고 싶지 않아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평일과 주말 아침을 거르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성인(11.8%)의 경우 청소년(4.4%)에 비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는 비중도 높은 편이었음.

- ‘먹고 싶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 60대 이상, ‘시간이 없어서’는 남성, 30대가 높은 편임. 이밖에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를 거르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2배 정도 큰 편임.

- ‘먹고 싶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의 비중은 초등학생, ‘시간이 없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2021 국민건강통계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은 28.0%였으며, 19-29세(53.0%)와 30-39세(43.2%)에서 특히 높은 편이었음.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도 성인과 청소년은 주로 ‘먹고 싶지 않아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고 있어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함.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 지침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60.8%, 57.1%로 높은 편이었으나, 지침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는 각각 17.4%, 15.3%로 높지 않았음.

○ 성인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중에서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우유·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청소년은 우유·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고,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며,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성인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식생활’, ‘다양하게 먹는 것’, ‘즐겁게 먹는 것’, ‘채소 중심의 식생활’, 청소년은 ‘규칙적인 식생활’, ‘다양하게 먹는 것’, ‘즐겁게 먹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균형잡힌 식사 이외에 식사 여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국민건강통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식생활실천율(초등학생이상)은 46.1% 수준이었음. 국민들의 단백질, 나트륨 섭취는 기준보다 많았으며, 1세 이상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17.0%로 10여 년 전인 2012년(11.9%)에 비해 크게 증가함.¹⁰⁾

¹⁰⁾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⁴⁾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필요량 미만인 비율임(질병관리청 2022).

2021년에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은 5.6%였음. 또한 만 6세 이상 국민의 29.7%는 매일 500g 이상의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고 있었음. 이밖에 만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이 37.2%에 달하며, 특히 남자 비만 유병률이 44.8%로 여자(29.5%)에 비해 높은 편임.¹¹⁾

- 평소 밥과 여러 종류의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는 성인과 청소년의 비중은 약 56~58%임. 특히 성인은 여성, 60대 이상, 청소년은 초등학생에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성인의 한국형 식생활 실천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0.6%p)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은 전년 대비 5.4p가 감소함.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2022년에 밥류 식사 횟수가 증가할 것(14.7%)이라는 전망이 감소할 것(4.8%)이라는 전망보다 9.9%p 높은 편이었음. 또한 성인은 주로 밥(50.7%)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밖에 일부의 경우 빵/샌드위치(13.6%), 죽/누룽지(10.6%)로 식사를 하고 있었음. 청소년은 밥(46.8%)을 먹는 비중이 높으며, 성인에 비해 빵/샌드위치를 먹는 비중이 18.5%로 큰 편이었음.

1.2. 식생활 교육 및 정책

- 성인의 경우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실제로 교육 및 체험을 받은 비중은 낮으며, 청소년은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실제로 교육 및 체험을 받은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었음. 또한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비중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약 60%로 성인과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성인은 주로 건강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배워서 또는 부모로부터 배워서(부모의 영향으로)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됨.

¹¹⁾ 비만 유병률(만 19세 이상)은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비율임(질병관리청 2022).

-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은 성인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은 증가함. 또한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경험한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경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은 성인이 여성,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청소년은 초등학생이 다소 큰 편임.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은 여성, 30~40대에서 높은 편이며, 교육 및 체험이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성인 비중은 여성, 19~29세에서 높은 편임. 청소년은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을 받은 비중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도 식품 관련 소비자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이러한 경험이 비교적 식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함(59.8%).

○ 성인과 청소년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큰 반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인식하였음. 성인과 청소년 모두 특히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생 대상 순으로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급식활동이 식생활교육과 연계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였음. 이밖에 체험활동 및 학습, 정규교육과정 등의 연계 효과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성인과 청소년의 비중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식생활교육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증가함.
- 성인은 여성, 40대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함. 또한 성인의 경우 성인 대상 식생활교육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성인은 음식 기초 지식 습득의 적정 시기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유아기 순,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기로 평가함.

- 성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경우 식생활교육 장소로 지역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등), 식생활교육전문기관, 로컬푸드 직매장, 농수축협마트를 선호하였음. 성인 유형별로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장소에는 차이가 있었음.
 - 지역 내 공공시설을 선호하는 비중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고, 60대 이상, 강원권에서 큰 편이며, 식생활교육전문기관은 여성, 강원권, 로컬푸드 직매장은 호남권, 농수축협마트는 남성, 50대,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음.

- 성인과 청소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의 식생활 개선 효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성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에 관한 정보를 주로 지상파 TV 방송,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청소년은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지상파 TV 방송,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얻고 있었음. 또한 선호하는 정보 수집 경로도 평소 주로 정보를 얻고 있는 경로와 동일하였음.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농식품 정보 획득 경로와 선호 경로는 조사 대상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음.
 - 지상파 TV 방송을 통한 농식품 정보 획득 비중은 여성, 60대 이상, 호남권과 대경권, 인터넷은 남성, 30대, 수도권과 강원권, 유튜브 동영상은 19~29세, 대경권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임. 정보 수집 경로로 지상파 TV 방송을 선호하는 비중은 여성, 60대 이상, 호남권과 대경권, 인터넷은 남성, 20~30대, 수도권, 유튜브 동영상은 남성, 19~29세, 동남권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청소년은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정보 수집 비중이 초등학생, 지상파 TV 방송은 초등학생, 유튜브 동영상은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선호 경로는 학교 등 교육기관과 지상파 TV 방송은 초등학생, 유튜브 동영상은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1.3. 농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 성인의 53.6%가 평소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은 성

인 보다 작은 37.3%만이 관심이 있었음. 성인과 청소년 모두 먹거리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참여자 중에서 생산자(농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함.

- 성인은 여성, 50대, 2인 이상 가구,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먹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었음.

○ 영유아(미취학) 자녀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성인의 경우 자녀가 최근 3년간 농림어업 체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30%대로 높지 않았으나, 향후 자녀의 농림어업 체험을 장려(권유)할 의향이 있는 비중은 이보다 높은 편이었음.

○ 최근 3년간 농림어업 체험을 경험한 성인과 청소년이 비중은 각각 17.0%, 27.8%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체험이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의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중은 각각 76.5%, 69.5%로 높은 편이었음.

- 농림어업 체험 경험은 여성, 40대가 많았으며,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의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중은 여성, 30~40대가 높은 편이었음.

- 청소년은 농림어업 체험 비중과 이러한 체험이 먹거리 생산과 식생활 중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중 모두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성인과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농업, 농촌의 주요 역할(기능)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밖에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 인구 유지, 농촌경관 유지 등도 중요하다고 평가함. 그러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높지 않았음.

○ 평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의 선택·소비를 실천하는 성인과 청소년의 비중은 40~50%대였음. 세부 실천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와 관련하여 성인은 제철농식품 이용, 국산농식품 이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식품 조리 및 보관은 상대적으로 실천 수준이 낮았음. 또한 성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와 관련하여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청소년은 음식

물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와 관련하여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비중은 낮았음.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가구 내 음식물쓰레기 양이 대체로 보통(55.9%) 수준이나, 작년에 비해 증가(22.5%)하였다는 비중이 감소(5.9%)했다는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과일껍질과 야채 또는 생선 손질 후 발생하는 조리 전 쓰레기'가 가구 내 음식물쓰레기의 주요 비중을 점하였음. 소비자 가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하였으며(67.2%), 주로 조금씩만 조리하는 방법(32.8%)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성인의 43.0%가 주로 신선하거나, 품질/맛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역농업/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농식품 구입 시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우선 선택하였으며, 청소년은 농식품 구입 시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우선 선택하는 비중이 34.5%였음.

-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우선 선택하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 50대, 청소년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성인 가구원은 '국산 농산물'(3.49점), '지역 농산물'(3.31점), '친환경 식품'(3.24점) 등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청소년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국산 농산물'(3.14점) 이외에 '지역 농산물'(2.90점), '친환경 식품'(2.90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환경 교육 또는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8.4%에 불과하였으며, 청소년은 34.2%로 성인에 비해서는 큰 편이었음. 그러나 환경 교육 및 체험이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 환경교육 및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의 비중은 여성, 30~40대, 교육 또는 체험을 받은 경험이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컸으며, 청소년은 환경 교육 또는 체험을 받은 경험과 이러한 교육 또는 체험이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모두 고등학생에서 높은 편이었음.

1.4. 가정과 지역에서 전통 식생활 실천

○ 성인은 최근 3년간 11.6%만이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하였으며, 청소년은 이보다 2배 정도 많은 22.0%가 경험한 데 불과함.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한 성인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 이러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60%대로 높은 편이었음.

-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한 성인의 비중은 여성, 40대, 이러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여성,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청소년의 전통 식생활 체험을 경험한 비중은 초등학생, 이러한 체험이 전통 식생활 실천·계승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고등학생이 큰 편이었음.

○ 성인은 최근 3년간 주로 김치 담그기,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 차례상 차리기, 청소년은 한국식사예절, 차(다도)예절, 떡 만들기를 경험한 비중이 높았음.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 유형별로 주로 경험한 체험은 차이가 있었음.

○ 성인과 청소년은 평소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를 실천하는 비중이 40%대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성인은 가정에서 주로 김치담그기,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 한식 상차림(한식 밥상 차리기), 차례상 차리기, 청소년은 주로 명절/절기음식 만들기/먹기, 김치 담그기, 한식 상차림(한식 밥상 차리기) 등을 가정에서 실천·계승하고 있었음.

- 평소 가정에서 전통 식문화를 실천하는 비중은 성인은 여성, 50대~60대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높은 편이었으며, 주로 실천하는 전통 식생활의 종류는 성인과 청소년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음.

1.5.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 성인과 청소년은 평소 식료품 구입 시 표시 및 인증 사항을 확인하는 비중이 40~50%대

로 높은 편이었으며, 성인은 특히 여성, 40~60대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평소 표시 및 인증을 확인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다양한 농식품 표시 및 인증 사항 중에서 성인과 청소년은 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비중이 큰 편이며, 이밖에 원산지, 영양성분표시, 원재료명 등을 주로 확인하고 있었음.

- 성인과 청소년 유형별로 주로 확인하는 표시 및 인증사항이 달랐음.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식품표시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성인의 62.0%, 청소년은 52.5%가 식품표시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음’으로 응답함. 성인은 청과물은 주로 가격, 원산지표시, 육류는 가격,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등급, 중량,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가격, 브랜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였음. 식품표시 현황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약 6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음.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는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높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이 30%대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 성인 중에서 여성, 60대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1.6.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

- 성인과 청소년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대해서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0~60%대로 높은 편이었으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은 10~20%대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청소년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비중이 성인의 절반 수준이었음.
 -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성인의 비중은 남성, 60대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교적 ‘충분한 양의 음식’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인식

하였으나,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평가한 비중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성인 가구원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한 79.0점(100점 기준)인 것으로 인식함. 청소년은 78.9점으로 평가하여 성인과 비슷하였음. 또한 성인 가구원의 66.5%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품안전성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인 가구원은 여러 식품 위해요인 중에서 방사능, 중금속·환경호르몬, 식중독균 등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높았음.

○ 우리나라 실제 식량자급률은 2019년에 49.3%, 2021년에는 44.4%로 50%에 못 미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을 제대로 인지하는 성인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지 않았음.

- 식량자급률이 40% 이상~50% 미만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인과 청소년의 비중은 18%대에 불과하였음.

○ 식품물가가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성인은 식품물가(식품가격 상승)가 '나와 우리 가족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였으며, 식품물가(식품가격 상승)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고, '충분한 영양과 품질을 갖춘 식품'과 '충분한 양의 식품'의 섭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평가함.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은 주요 원인을 '유통과정, 유통 마진'(22.0%), '농산물 생산 비용'(21.5%) 등인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밖에 병해충, 기상재해, 정부의 수급 조절 미흡, 국제 식량 가격 상승 순으로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음.

○ 또한 성인들은 최근의 여러 식량문제가 식량에 관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 특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비중이 높았고, 식량안보나 먹거리(식량)문제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1.7. 국민 식생활 만족도와 성과지표

○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과지표를 계측한 결과, 성과지표 중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81.4%)이 가장 높았으며,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25.3%)이 여러 지표 중에서 가장 낮았음.

-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식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경우 소비자들이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의 중요성을 크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성과지표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지표는 5개 지표였으며, 반대로 감소한 지표는 5개 지표였음. 이 중 증가폭이 가장 큰 지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4.3%p)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지표는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4.6%)이었음.

- 전년 대비 증가한 지표는 ‘음식 소비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비율’,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품 선택과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지역과 가정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실천하는 국민 비율’,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정보가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 정도’ 등임.

- 전년 대비 감소한 지표는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국민 비율’, ‘성인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실천율’, ‘농림어업 체험 학생 비율’,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비율’,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등임.

○ 이밖에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국민 식생활 만족도’를 추산한 결과 성인의 만족도는 49.2%, 청소년은 46.8%였음. 항목별로 성인은 식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중이 51.9%였으며, 정책 및 제도 관련 항목 중에서 ‘언제든지 다양하고 충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고,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의 기회는 주변에 많이 있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음. 식생활 관련 항목 중에서는 '나는 농식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는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고, '나는 건강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한다'는 가장 작았음.

- 성인의 국민 식생활 만족도는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은 전년 대비 4.9%p가 감소함.

- 청소년은 식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중이 49.3%였으며, 정책 및 제도 관련 항목 중에서 '언제든지 다양하고 충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와 '친환경농식품, 로컬푸드(지역산농식품)는 구입하기 쉽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고,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의 기회는 주변에 많이 있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음. 식생활 관련 항목 중에서는 '나는 농식품의 폐기까지 전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는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고, '나는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한다'가 가장 작았음.

2. 정책 시사점

- 2020년에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3년간 이를 바탕으로 국가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이 실시됨.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식생활교육은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임. 그러나 2020년에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실시되어 지난 3년여 간 국가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국가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측된 성과지표와 기타 조사 결과들이 전반적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음.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정도가 지나면서

2021년도에는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식생활 관련 여건·실태와 인식들이 다소 부진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조사에서는 2021년에 비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인식과 실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식생활교육 정책도 이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외에도 국가 간 전쟁, 기후변화 등의 여러 상황으로 먹거리를 둘러싼 여러 여건은 물론 국민들의 식생활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어 향후 효과적인 식생활교육을 위해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민들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생활 가이드라인인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함. 식생활 지침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식생활교육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은 편임. 그러나 지침의 세부내용까지 아는 경우는 성인과 청소년이 15~17%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한 성인과 청소년의 인지도는 각각 60.8%, 57.1% 수준임.

○ 또한 식생활 지침의 세부적인 실천수준을 살펴본 결과 밥을 위주로 한 우리 식생활의 특성으로 인해 성인과 청소년 모두 곡류도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반면, 최근의 식생활 서구화·외부화 경향을 반영하여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비중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향후 식생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식생활 지침상의 세부 항목들을 고려한 대응 방안도 요구됨.

○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밥과 여러 종류의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5.4%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청소년의 식생활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도 식생활교육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아직까지는 아침에 주로 밥을 먹는 비중이 큰 편이나 성인보다 빵/샌드위치를 먹는 비중이 큰 편이었음.

○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과 식생활교육이 식생활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며, 식생활교육의 필요성도 크다고 평가하는 반면, 이러한 인식이 아직까지 실제 교육 및 체험으로 충분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국가 식생활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임.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수년간 식생활교육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식생활 추진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어 국민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대상, 장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교육 초기에 국가 식생활교육이 주로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추진됨. 최근에는 식생활교육을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식생활교육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성인 대상 식생활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반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성인의 경우 성인 대상 식생활교육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함.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이 여전히 중요하나,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대상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장소, 전달 방법 등이 다양화되어야 함. 어린이·청소년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기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접할 기회가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성인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소, 전달 방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식생활교육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움. 성인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등 국민 특성·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용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장소 및 전달 방법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함.

-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환경, 전통식생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비중이 성인에 비해 높은 편임.
- 성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경우 식생활교육 장소로 지역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등), 식생활교육전문기관, 로컬푸드 직매장, 농수축협마트를 선호하였음. 그러나 성인 유형별로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장소에는 차이가 있었음.
- 성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농식품에 관한 정보를 주로 지상파 TV 방송,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청소년은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지상파 TV 방송,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얻고 있었음. 선호하는 정보 수집 경로도 평소 주로 정보를 얻고 있는 경로와 동일하였음. 그러나 주로 이용하는 농식품 정보 획득 경로와 선호 경로는 조사 대상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음.

○ 식생활교육은 영양·건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환경, 전통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주제를 포괄함.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먹거리 이슈가 되면서, 소비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의 필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는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높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중은 성인과 청소년이 아직까지 30%대 수준임. 또한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식품물가 등 최근의 먹거리 이슈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 또는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향후 식생활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아울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은 먹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설문조사 결과,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국민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음. 따라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기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1. 청소년용 설문조사표

청소년용

ID

국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의 식생활과 식습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생활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선정질문

SQ1.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_____세 → 만10세(초등학교 4학년) 미만 조사종료, 만19세 이상(성인) 조사종료

* 만14세 미만인 경우 11page의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후 조사진행

SQ2.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기타에 체크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기입

- | | |
|------------|----------------------------|
| ① 초등학교 4학년 | ② 초등학교 5학년 |
| ③ 초등학교 6학년 | ④ 중학교 1학년 |
| ⑤ 중학교 2학년 | ⑥ 중학교 3학년 |
| ⑦ 고등학교 1학년 | ⑧ 고등학교 2학년 |
| ⑨ 고등학교 3학년 | ⑩ 기타() |

SQ3.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 ① 남성 ② 여성

SQ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남 | ⑫ 충북 |
| ⑬ 전남 | ⑭ 전북 | ⑮ 경남 | ⑯ 경북 | ⑰ 제주 | |

※ 다음을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에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9개 수칙>

- ①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
- ②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 ③ 물을 충분히 마시자
- ④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 ⑤ 아침식사를 꼭 하자
- ⑥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 ⑦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 ⑧ 술은 절제하자
- ⑨ 우리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Q1. 위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 대해 알고 있나요?

- ①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 ②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 ③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II. 식생활 및 식습관 실태

Q2. 평소 평일과 주말에 아침·점심·저녁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원이 보여주는 <보기카드>를 확인하여 선택해 주세요.

※ 귀하의 전반적인 식사의 유형과 방식을 생각해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는 밥, 빵, 면류 등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외에도 식사를 위해 주식을 대신해서 식품을 섭취한 경우도 포함

구분		평일	주말(토,일)	평균 식사일
아침	식사유형			일주일 중 ()일
	식사방식			
점심	식사유형			일주일 중 ()일
	식사방식			
저녁	식사유형			일주일 중 ()일
	식사방식			

Q3. (위 식사유형에서 ⑥번을 선택한 경우) 평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 | | | |
|--------------------|----------------|----------------|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먹고 싶지 않아서 | ③ 건강상의 이유로 |
| ④ 체중 감량을 위해서 | ⑤ 음식을 만들 줄 몰라서 | ⑥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
| ⑦ 식재료/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 ⑧ 귀찮아서 | ⑨ 기타 () |

Q4. 다음을 읽고, 나의 식생활을 생각해보고,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세요.

문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신선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신선한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짠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침식사를 꼭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1	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여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여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음식을 먹을 땀 각자 덜어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Q5. 평소 밥과 여러 종류의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형 식생활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V 표시 해주세요.

※ 한국형 식생활은 밥, 국이나 찌개, 김치,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말합니다. 비빔밥, 덮밥 등의 밥 종류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는 포함되며, 면류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에서 먹을 때와 외식을 할 때를 모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실천하지 않음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함	매우 잘 실천함
①	②	③	④	⑤

VI.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Q24. 평소 농식품(과일, 채소, 고기, 음료수, 빵, 과자, 라면 등 먹을거리)을 구입할 때 표면이나 포장지에 부착된 표시 및 인증 내용을 얼마나 확인하나요?

전혀 확인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음	보통이다	확인함	항상 확인함
①	②	③	④	⑤

Q24-1. (Q24에서 ③, ④, ⑤ 라고 응답한 경우) 평소 농식품을 구입할 때 확인하는 식품표시 및 인증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지 모두 고르세요.

- | | |
|---------------------------|---------------------------|
| ① 유통기한 | ② 영양성분표시(칼로리(열량), 영양소) |
| ③ 원재료명(식품첨가물 포함) | ④ 원산지(생산지역) |
| ⑤ 친환경인증(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등) | ⑥ 동물복지인증 |
| ⑦ GAP(농산물우수관리) | ⑧ HACCP인증(해썬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
| ⑨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 ⑩ 품질표시(전통식품, 식품명인 등) |
| ⑪ 기타() | |

Q25.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지속가능한 식생활」
※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
* (환경) 농식품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실천
* (건강) 건강한 삶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농식품을 활용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 실천
* (배려)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식생활 전(全) 과정에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 실천

- ①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②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③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Q26.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평소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전혀 실천하지 않음	실천하지 않음	보통이다	실천함	매우 잘 실천함
①	②	③	④	⑤

VII. 국민 식생활 만족도와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Q27. 다음은 국민 식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정책 및 제도	1) 친환경 농식품이나, 로컬푸드(지역농식품)는 구입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2) 언제든지 충분하게, 영양가 있는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식생활교육이나 체험(농촌체험)의 기회가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농식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식생활	1) 나는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으로 나는 식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28. 다음은 식량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묻는 문항입니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	
※ 식량자급률은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전체 식량 중 그 해에 국내에서 생산한 식량의 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Q28-1. 귀하는 식량과 관련된 다음의 용어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예. 듣거나 본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예. 듣거나 본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1) 식량안보	①	②	③
2) 식량자급률	①	②	③

Q28-2. 다음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식량안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기에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Q28-3. 귀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전체 식량(식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식품)은 (%)라고 생각합니다.
--

- ① 30% 미만 ② 30%이상~40%미만 ③ 40%이상~50%미만
 ④ 50%이상~60%미만 ⑤ 60%이상~70%미만 ⑥ 70%이상~80%미만
 ⑦ 80%이상

Ⅷ. 응답자 특성

DQ1. 총 몇 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 현재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가구원만 포함(군입대, 유학 등은 제외)

① 1인 가구

② 2인 이상(본인 포함 총 _____명)

DQ1-1. (DQ1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나 자매

⑥ 친인척

⑦ 기타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성인용 설문조사표

성인용

ID

국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국민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개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선정질문

SQ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생 만()세 [→ 만 75세 이상 조사종료]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남 ⑫ 충북
⑬ 전남 ⑭ 전북 ⑮ 경남 ⑯ 경북 ⑰ 제주

※ 다음을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에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9개 수칙>

- ①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
- ②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 ③ 물을 충분히 마시자
- ④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 ⑤ 아침식사를 꼭 하자
- ⑥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 ⑦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 ⑧ 술은 절제하자
- ⑨ 우리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Q1. 귀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 ②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 ③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II. 식생활 및 식습관 실태

Q2. 평소 평일과 주말에 아침·점심·저녁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원이 보여주는 <보기카드>를 확인하여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전반적인 식사의 유형과 방식을 생각해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는 밥, 빵, 면류 등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외에도 식사를 위해 주식을 대신해서 식품을 섭취한 경우도 포함

구분		평일	주말(토,일)	평균 식사일
아침	식사유형			일주일 중 ()일
	식사방식			
점심	식사유형			일주일 중 ()일
	식사방식			
저녁	식사유형			일주일 중 ()일
	식사방식			

Q3. (위 문항에서 ⑥번을 선택한 식사에 대해) 귀하가 평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 | | |
|-----------------------|----------------|----------------|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먹고 싶지 않아서 | ③ 건강상의 이유로 |
| ④ 체중 감량을 위해서 | ⑤ 음식을 만들 줄 몰라서 | ⑥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
| ⑦ 식재료/음식을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 ⑧ 귀찮아서 | ⑨ 기타 () |

Q4.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식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1	나는 신선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신선한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쌀, 잡곡 등 곡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짠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건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침식사를 꼭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1	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준비하여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여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술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Q5. 귀하는 평소 밥과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형 식생활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 한국형 식생활은 밥, 국이나 찌개, 김치,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말합니다. 비빔밥, 덮밥 등의 밥 종류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면류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에서 드셨을 때와 외식하셨을 때를 모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실천하지 않음	←	보통이다	→	매우 잘 실천함
①	②	③	④	⑤

VI.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Q27. 귀하는 평소 농식품(농산물, 축산물 등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표면이나 포장지에 부착된 표시 및 인증 사항을 어느 정도 확인하십니까?

전혀 확인하지 않음	←	보통이다	→	항상 확인함
①	②	③	④	⑤

Q27-1. (Q27에서 ③, ④, ⑤ 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평소 농식품을 구입할 때 확인하는 표시 및 인증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
|---------------------------|---------------------------|
| ① 유통기한 | ② 영양성분표시(칼로리(열량), 영양소) |
| ③ 원재료명(식품첨가물 포함) | ④ 원산지(생산지역) |
| ⑤ 친환경인증(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등) | ⑥ 동물복지인증 |
| ⑦ GAP(농산물우수관리) | ⑧ HACCP인증(해법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
| ⑨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 ⑩ 품질표시(전통식품, 식품명인 등) |
| ⑪ 기타() | |

Q28. 귀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지속가능한 식생활」
※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
* (환경) 농식품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실천
* (건강) 건강한 삶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농식품을 활용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 실천
* (배려)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식생활 전(全) 과정에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 실천

- ①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② 예. 듣거나 본 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③ 아니오. 전혀 듣거나 본 적이 없음

Q29. 그렇다면, 귀하는 위에서 정의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전혀 실천하지 않음	←	보통이다	→	매우 잘 실천함
①	②	③	④	⑤

VII. 국민 식생활 만족도와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Q30. 다음은 국민 식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정책 및 제도	1) 친환경 농식품이나, 로컬푸드(지역농식품)는 구입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2) 언제든지 충분히 영양가 있는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식생활교육이나 체험(농촌체험)의 기회가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농식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식생활	1) 나는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을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으로 나는 식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31. 다음은 식량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묻는 문항입니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	
※ 식량자급률은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전체 식량 중 그 해에 국내에서 생산한 식량의 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Q31-1. 귀하는 식량과 관련된 다음의 용어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예. 들거나 본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	예. 들거나 본적이 있음. 그러나 내용은 모름.	아니오 전혀 들거나 본 적이 없음.
1) 식량안보	①	②	③
2) 식량자급률	①	②	③

Q31-2. 다음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식량안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기에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Q31-3. 귀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전체 식량(식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식품)은 (%)라고 생각한다.

- ① 30% 미만 ② 30%이상~40%미만 ③ 40%이상~50%미만
 ④ 50%이상~60%미만 ⑤ 60%이상~70%미만 ⑥ 70%이상~80%미만
 ⑦ 80%이상

DQ2-2. (DQ2-1에서 ②, ③에 응답한 경우) 귀하의 자녀 나이 및 인원을 작성해주세요.

구분	영아 (36개월 미만)	유아 (36개월 이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성인)	합계
인원						

D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대졸(전문대 포함)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졸 이상

DQ4.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농림어업 ⑥ 기능원/장치기계조작
 ⑦ 단순노무 ⑧ 공무원 공공기관 ⑨ 군인
 ⑩ 학생 ⑪ 전업주부 ⑫ 기타()

DQ5.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가구원 소득의 합)

※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의미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2021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20.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질병관리청. 2022. 「2021 국민건강통계」.
황윤재·박성진. 2021. 「2021년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